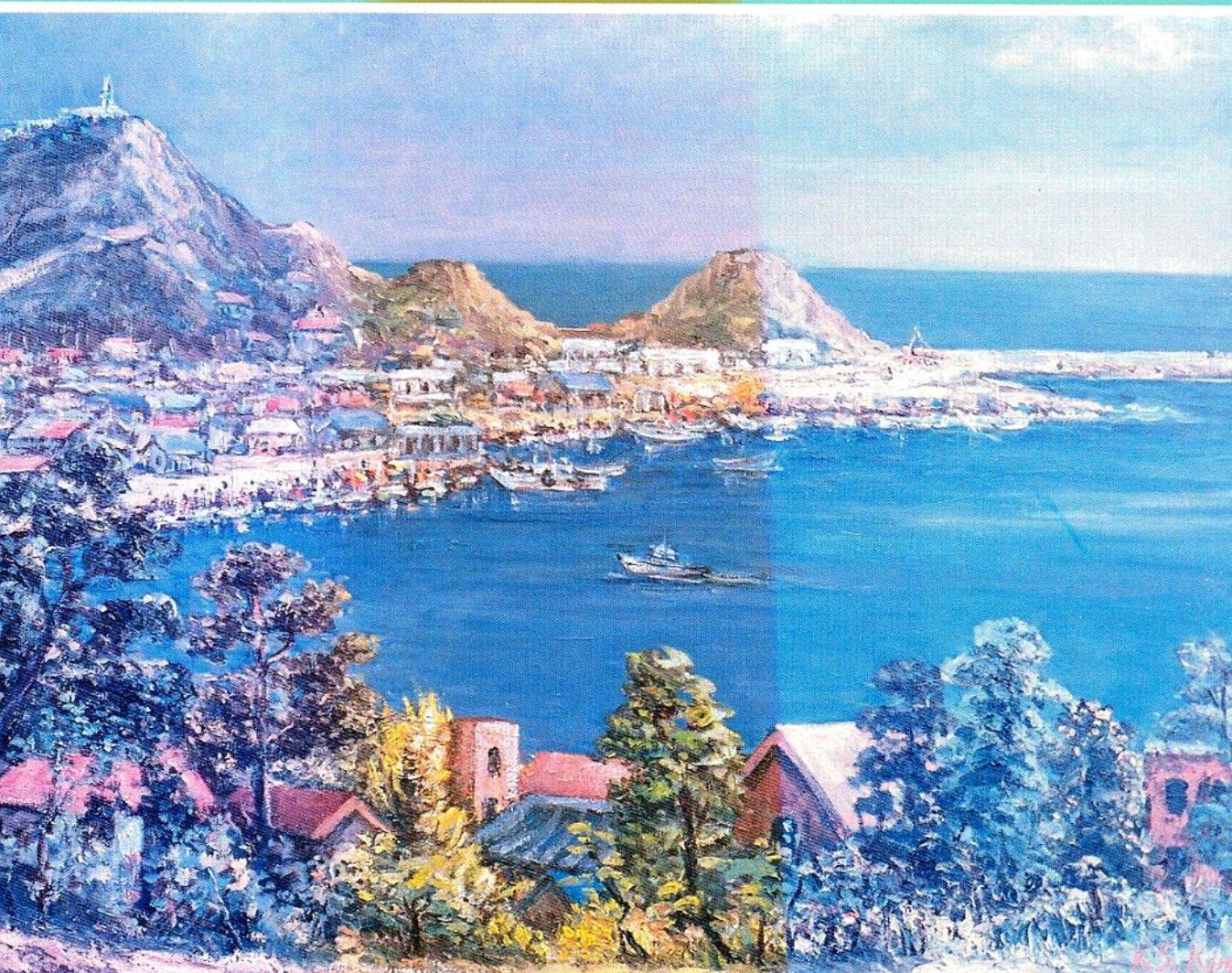


# 束草文化

1988/第四號



束草文化院

# 유·암·문·화·재·단

## 복지사회에서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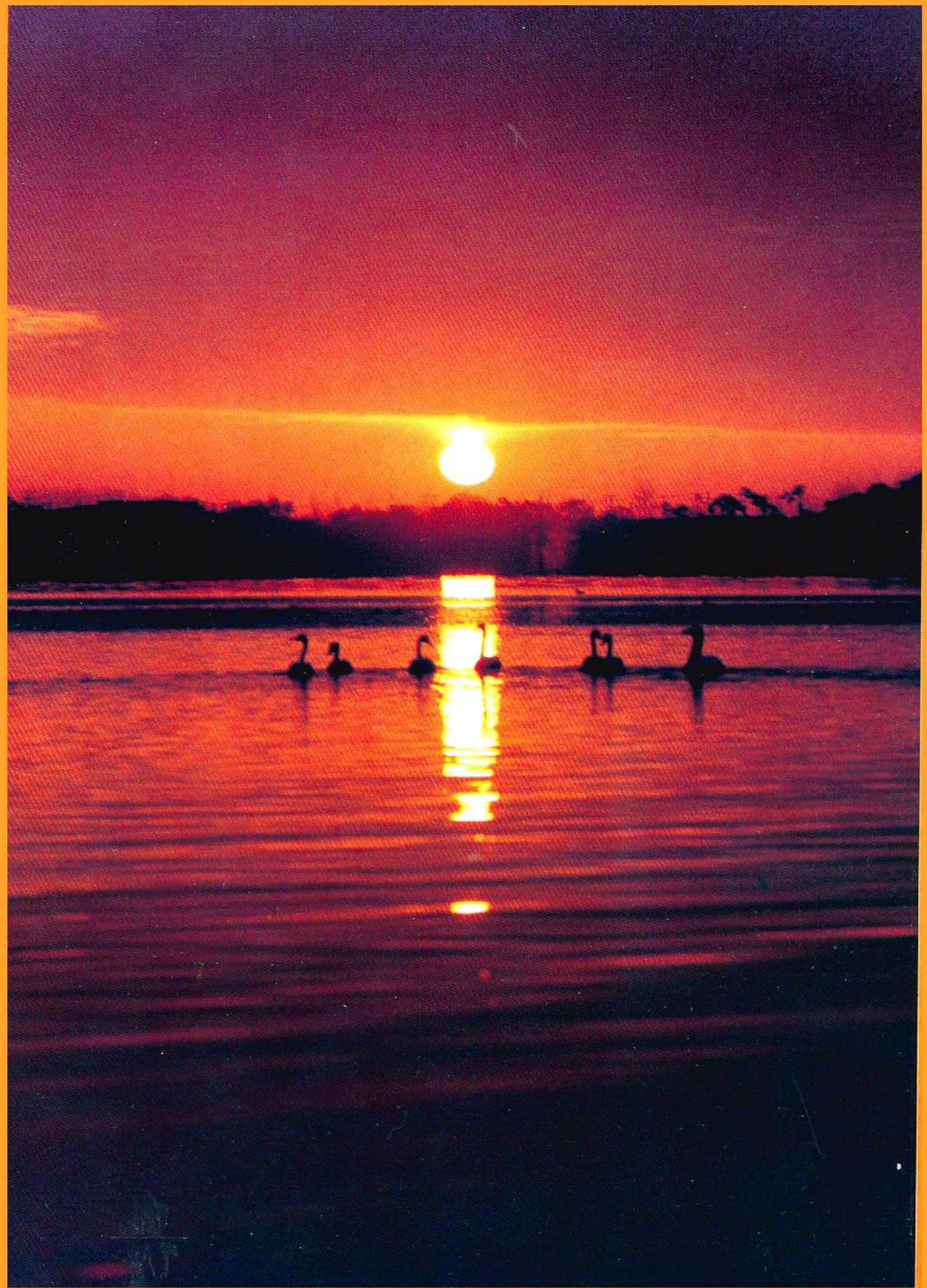
유암문화재단은 신체장애인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 획득을 위해  
연 1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사장  
정재철



전무이사  
동문성





2,000년 미래의 세계를 향한 기업

韓進은 지금 이 순간도 海外市場을 뛰고 있습니다.



### 韓進은 —

특수加工技法으로 위생처리 엄선된 오징어 가공 제품 “한진 홍진미”와 전량 수출되는 동해의 붉은 대게의 가공제품 “한진 홍게”로 미주및 일본시장 을 완전 점유 수출 700만불을 달성, 다가오는 ‘2 천년 강원의 연대”에는 1억불 수출을 목표로 하는 여러분의 鄉土企業입니다.

 韓進商事

本社·第一工場：江原道 東草市 青湖洞 444番地

TEL : (0392) 32-9366~8番

第二工場：(0392) 32-1822

서울支店：서울 中區 五壯洞 中部市場 8공구 137號

TEL. (02) 269-1955 · 275-4021

FAX. (02) 272-7210. SEOUL



冬  
西  
解  
冰

戊辰  
新春

羅方朴益效



박 익 훈

##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轉換期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 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を 穎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흥한다. 新羅 統一의 偉大한 業績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證明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產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을 이어 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 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頽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 속에 꽂 피우고 우리 文化를 特殊한 主體性에 뿌리 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值意識과 史觀을 바로 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們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年 10月 20日

## 차례

# 東草文化

## 1988 / 第四號

■ 권두사	鄭鍾勲 · 8
■ 傳統鄉風 일으켜야 한다	江原日報社説 · 10
■ 특집 / 永郎湖	
• 文獻에 나타난 永郎湖	편집부 · 14
• 映山倒地 永郎湖	편집부 · 18
■ 국회의원선거와 東草	26
■ 現場을 찾아서	
• 국립공원 설악산(4)	박익훈 · 36
• 雪嶽山 神興寺의 由來	金慧法 · 38
■ 내 고장의 옛 地名	김명환 · 44
■ 향토詩人 순례	
• 4 월의 노래	강석태 · 52
• 하늘새	정희균 · 53
■ 내 고장 기업탐방 / 韓進	편집부 · 54
■ 내 고장 문화재 / 舊城사지 3 층 석탑	56
■ 그리운 내고향	
• 꿈속에서 만나는 내고향	권진량 · 60
■ 나의 제언	
• 政治와 自由守護	李虎舜 · 64
•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자	정태갑 · 66
• 看板有感	李建錫 · 69
• 東道西器	高榮和 · 70
• 서예와 정신건강	鄭元澈 · 71
■ 긴급동의 / 雪嶽圈 개발을 위한 市民의 緊急動議	
• 金鍾祿 변영회장과 池一權 本誌 편집위원과의 對話	72
■ 詩人 李聖善論	강석태 · 79
■ 現場소개 / 물소리 詩낭송회	80
■ 속초문화 小詩集(1) / 李聖善 詩編	
• 별까지 가면 된다	李聖善 · 82
■ 속초문화 小詩集(2) / 青湖洞 새설	
• 이상국 / 김춘만 / 장승진 / 채재순	88
■ 청소년文化	
• 초대시	김종영 · 96
• 東草文化院주최 제22회 설악제 학생백일장입상작	97
• 경로효친 수기공모 입상작	103
■ 부록	
• 東草文化院 임원명단	107
• 東草文化院 연혁	107
• 東草文化院 회원명단	108
• 편집후기	111

제자 : 김철홍  
표지화 : 김광수  
휘호 : 박익훈  
    정원철  
    이원식  
권두사 : 최명길

# 價值 있는 文化生活



鄭鍾勳 / 東草文化院長

”

우리고장文化는  
우리고장사람들의  
혜지의 소산이다.  
이에  
東草文化의 개연성이  
존속하고, 이 개연성은  
文化를 사랑하는  
東草市民의 향토애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

夫 天地者는 萬物의 旅館이요. 光陰者는 百代의 過客이다. 浮生이 꿈과 같으니 생애에 幸福과 기쁨은 얼마쯤이나 되는 것인가. 古人이 촛불을 잡아 밤놀이를 한 것은 참으로 까닭이 있는 일이다. 하물며 陽春에 煙景으로 나를 부르고 天地는 나에게 文章을 빌려 주었음이라. 萬事分己定이어늘 浮生이 空自忙이라. 人生이 그 무엇을 생각하겠는가.

생각할 여지가 없을진데 凡 市民은 價值 있는 文化生活이 意識 속에 묻혀 생애의 보람을 찾는 것이 國家를 爲함이요, 社會를 爲함이요, 民族을 爲함이요, 家庭을 爲함이요, 個人을 爲함이 아닌가.

비록 방대하지는 못할지언정 작은 만큼 알찬 內容의 鄉土誌 東草文化는 文化를 사랑하는 東草市民의 精誠어린 鄉土愛가 서려 있어 矜持와 自負心으로 가득찬 자랑이 아닐 수 없다.

現實을 直視하건대 高度經濟成長에 따른 急激한 產業化 및 無分別한 外來文化의 受容으로 因해 價值觀의 混亂과 傳統文化의 輕視現狀이 蔓衍되어 있다. 어디까지나 東洋의 倫理 즉 韓國의 倫理를 바탕으로 하는 家庭, 學校,

”  
올바른 가치관 위에 우리의 뿌리를 찾고  
투철한 역사의식과 민족적 긍지로  
의지를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

社會에서의 全人教育은 물론 社會教育의 強化가 時急히 要請되고 精神文化의 올바른 方向과 定立이 切實히 要求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올바른 價值觀 위에 우리의 뿌리를 찾고 透徹한 歷史 意識과 民族的 矜持로 意志를 키우는 教育이 필요하며 秩序 禮儀 自律性 滋養을 위한 教育과 傳統文化를 繼承 發展시켜야 겠다. 그 위에 外來文化를 主體的으로 받아들여 우리 文化的 傳統性은 지켜나가고 새 文化를 創造하는 教育이 필요하다. 또 社會와 이웃 그리고 民族과 國家를 위해 奉仕 犠牲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感謝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教育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各種 文化 施設과 文化 空間의 擴充으로 國民들에게 올바른 情緒文化를 提供하고 地方文化의 育成 支援과 活性化를 통해 地域의 文化的 隔差를 解消하며 青少年 階層의 文化 感受性을 滋養시키고 文化 藝術의 社會教育 機能을 強化하여 健全한 文化 風土를 造成해야겠다. 西歐 先進社會의 경우 物質文化의 先進化는 이룩하였으나 精神的 貧困과 人情의 枯渴로 重患을 치루어야하는 歷史的 오류를 범하였다. 物質文化만으로는 人間이 바라는 理想 社會

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事實을 보여주고 있다. 未來社會는 物質만의 世界도 아니요, 精神 만의 世界도 아닌 物質과 精神의 調和를 이루는 綜合文明社會가 올 것이 分明하다. 우리는 이러한 人類史的 進路를 自覺하고 人類가 이룩하여 온 物質文明 위에 精神文化를 接木하여 精神과 物質이 調和를 이루는 人間中心의 人間文化를 創造해 나가야 할 것이다.

文化는 사람의 惠智에 依하여 이루어 진 것이라 할 것이다. 이 고장 文化는 이 고장 사람들의 惠智의 所產이다. 그러므로 東草文化의 蓋然性은 存續하고 蓋然性은 文化를 사랑하는 東草市民의 鄉土愛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文化東草市民 意識의 참모습은 行於濁地라도 不能 染亂 其心 할터이니 보람 있는 文化人の 爺이 아니겠는가.

끝으로 이 文化誌를 만들기까지 物心兩面으로 協助해 주신 모든 분들과 編輯委員 投稿해 주신 先生님들께 衷心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東草文化를 為해 항상 指導 편달을 부탁드린다.

# 傳統鄉風 일으켜야 한다.

〈1988. 3. 22 江原日報 社説〉

“  
오늘 날 한국사회는 국제화 시대를 지향하면서 지방화 시대를 또한 지향한다. 국제화 시대는 우리나라가 88 서울 올림픽 같은 국제행사의 주최와 그 중심이 되어 가는데서 찾아볼 수 있고, 지방화시대는 지방자치와 향토 전통의 고양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국제화시대의 넘치는 활력과 궁지와 보람은 알찬 지방화 실현에서 비롯된다.

세계화의 성취는 한국화의 내실없이는 불가능하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민족문화의 논리는 그래서 강조되고 촉구된다. 이 민족 문화를 꽂피우는 기본단위가 향토문화요, 향토문화의 진작은 곧 민족문화의 진작에서 비롯된다. 지방문화를 크게 일으켜야 한다는 것은 문화정책에 있어서 최우선의 과제가 되고 있다. 지방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향토의 전통민속을 발굴하며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진요하다. 향토문화물을 집대성하여 보존하는 것이 또한 진요하다. 전통문화 전통민속 발굴 계승은 향토문화제전 연구 연찬회 강습회 등으로 이어져야 하고 향토문화의 집대성은 민속관, 박물관 등의 전립과 운영과 전통지의 발간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같은 향토문화의 진작을 위해 지금 존속되고 활동하는 주체가 지방문화원이다. 그러므로 지방문화원은 그 지방의 향토문화 진작에서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현대문화 활동에 바탕을 만들어 주는 실체가 된다.

지방시대의 향토문화진작을 위해 각 지방문화원의 기구와 조직 재정과 운영 그리고 그 활동영역을 확대 충실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우리가 보여줄 것은 우리 것이다. 또 외국인들은 이미 보편화된 것을 우리나라에서 보려고 하지 않는다. 가장 한국적인 것 가장 그 지방적인 것 향토적인

”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자면  
거기에 선행해서  
그 지방의 전통향품을  
세워야 한다.  
문화원의 전통문화사업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지역전통발굴  
보존계승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

것을 보려고 한다.

한국적인 것 지방적인 것 향토적인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문명한 외국인들은 내심 경멸하고 얕잡아보며 전통과 문화가 없는 나라 민족으로 치부하게 된다.

우리 자신의 층대가 있다 없다 하는 것도 전통성과 향토성의 존재 여하에 달렸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전통의 향풍을 보존하고 육성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정력을 쏟는다.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를 육성지원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문화원이 이를 달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문화원의 기구조직, 예산운영, 활동사업은 지방시대의 핵심적인 사업기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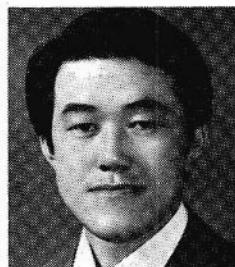
지방문화원이 전통사업에 활력이 넘치게 하도록 육성 지원이 요청된다. 강원도내에 설치된 시·군 문화원의 운영에 지방주민이 적극 참여하여야 하고 문화원끼리의 횡적인 정보교류등이 원활해야 한다. 시·군의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자면 거기에 선행해서 그 지방의 전통의 향풍을 세워야 한다. 문화원의 전통문화사업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지역전통발굴 보존 계승의 주체가 되도록 지방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문화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그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방안으로 이사회를 보강하고 운영위원회조직을 강화하며 회원가입증대를 계획하고 있다. 전통문화는 시민 모두가 향유해야 하며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직접 전통문화의 실상파 보존 계승에 헌신해야 한다. 운영위원으로 참가하고 회원으로 적극 참여하는 것이 전통의 향풍을 일으키는데 직접 참여하는 길이다.

지방시대를 성숙시키고 향토문화를 진작시키며 전통향풍을 일으키는데 참여하는 철경이 문화원 운영에 참여하는데 있다.

문화원운영위원회의 적극 참여는 시민정신의 구현이기도 하다.

## 겨울설악



崔明吉

산아

산

이 밤 맨발로

내가 너를 향해 걸어간다.

비어 해골같은 봉우리

풀 수 없구나

한 굽이 돌아들면

더욱 아픈 침묵

마음 갈피에 신음은 높은데

누가 저 별 뜯 산정을 헤매이리.

문득 나를 밟고

거대한 새가 날아 오른다.

피비린내여.

피비린내여

끌없이 일어서는 산,

산아.

옛神仙 다시 올 수 있다면……

# 永郎湖

산을 따라 소나무 아래 배대이니  
하늘은 푸르고 서늘한 기운 이제 가을이네.

연잎은 맑아서 씻은 것 같고  
순채실은 미끄럽고도 부드럽네.

저물녘에 배를 돌리려하니  
風煙이 천고의 수심일세.

옛 신선 다시 올 수 있다면  
여기서 그를 따라 놀리라.

# 文獻에 나타난 永郎湖

〈편집부〉



“

永郎湖는 고을남쪽 55리에 있다. 주위가 30여리인데 물가가 굽이쳐 돌아오고 암석이 기괴하다. 호수 동쪽 작은 봉우리가 절반쯤 호수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옛 정자터가 있으니 이곳이 永郎 무리가 놀며 구경하던 곳이다.”

## 1. 永郎湖 地名 유래

永郎湖는 東草市 西北쪽 장사동, 영령동, 동명동, 금호동에 둘러싸인 둘레 8km, 넓이 약 36만평의 거대한 자연호수다.

이 湖水를 永郎湖라 이름붙이게 된 것은 삼국유사의 기록에 근거한다.

신라의 화랑 永郎이 같은 郎徒인 迹郎, 南郎, 安祥등과 함께 금강산에서의 수련을 끝마치고 명승지 三日浦에서 3일동안 유람한 후 각각 헤어져 永郎은 동해안을 따라 신라의 首都 서라벌로 돌아가는 길에 이 호수를 발견하게 된다. 명경같이 잔잔하고 맑은 호수에 빨간 저녁 노을로 한결 응대하게 부각된 설악산을 산바위와, 웅크리고 앉은 범바위가 그대로 물속에 잠겨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그 아름다움에 매료당한다. 永郎은 서라벌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풍류를 즐겼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호수를 永郎湖라 부르게 되었고 이때 놀던 내금강의 회양군 한 봉우리를 영랑봉이라고 칭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후부터 영랑호가 화랑의 순례도장이 된 것이다.

### ※ 東海岸 新羅 花郎의 道場

신라의 진홍왕은 나라를 흥하게 하려면 반드시 풍월도를 먼저 일으켜야 된다고 하여 다시 영을 내리고 가문이 좋은 남자중에서 덕행이 뛰어난 자를 뽑아서 화랑이라 칭하였다.

처음에 설월랑을 받들어 국선을 삼으니 이것이 花郎國仙의 시초이다. 이로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고쳐 선에 옮기게 하고 어른을 공경하게 하고 아랫사람에게 순히하니 五常, 六藝, 三師, 태사, 태부등이 널리 이 시대에 행해졌다.

진홍왕 37년(서기 507년) 이후의 일이었다고 삼국유사는 기록한다.

이러한 화랑의 육성과 교육은 국가 사책의 하나였으며 화랑의 기념비가 세워졌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은 두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영랑호가 화랑도의 발생과 관계가 있고 다른 하나는 화랑도의 수련도장 이라는 것인데 그 기념비에 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화랑들은 대자연 속에서 호연지기를 배우고 대자연의 정기 속에 몸과 마음을 닦아 깊은 시절에 갖추어야 할 인격과 용맹성, 애국심과 충성심, 용기와 우정을 함께 익혔던 것이다. 이러한 화랑도의 기상은 국토순례를 통하여 그 정신을 더욱 닦아 신라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역사가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곳 영랑호는 동해안 순례의 중심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문헌에 나타난 永郎湖

### 가. 鄭澈의 關東別曲

松江 鄭澈의 關東別曲은 宣祖 12年 (1580년) 그의 나이 45세 때 江原道 觀察使로 除援되어 關東山水를 두루 遊覽하면서 쓴 遊覽歌이다.

全編을 크게 네 부분으로 分既하여 본다면 제 3 단에서는 外·海金剛과 東海岸에서 遊覽을 막았는데 그 가운데 永郎湖에 관한 句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高高城성을 란 더만 두고 三日浦포를  
초자나니

丹단書서는 宛然호되 四仙仙선은 어더가고  
예 소흘 머문 後후의 어더가쓰 머문고  
仙선遊유潭담 永영郎랑湖호가  
거기 나가 있는가

淸淸潤간亭명 萬만景경臺터 명고더 안듯던고  
高城은 고구려의 達忽로서 신라 경덕왕때부  
터 高城郡으로 되었다.

三日浦는 關東八景의 하나로서 高城郡 북쪽 7~8里에 있는데 四仙이 여기서 놀다가 三日이나 되도록 돌아가지 않았다하여 三日浦라 불리우게 되었다.

그 남쪽에 조그마한 봉우리가 있는데, 그 위에 石龕이 있고 그 북쪽 낭떨어지에 “永郎徒南石行”이라는 丹書가 있다.

四仙에 관한 기록은 지봉유설(芝峰類說: 광해군 6년, 이수광 편찬)에 나타나 있다.

新羅時 四仙 卽 迹郎 南郎 永郎

安祥 同遊高城三日不返 故名基地曰  
 三日浦 南郎疑丹書 所渭南石行是也  
 渭之仙者 盖其時謂郎徒爲國仙 故云非其仙也.

나. 安軸의 關東別曲

고려 말의 文人인 謹齊 安軸(충렬왕 13~  
 충목왕 4년; 1287~1348)은 景幾體歌인 關東  
 別曲을 노래했다. 작자가 충숙왕 17년(1330년)  
 存撫使로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關東의 絶勝  
 을 노래한 作品으로 총 8章으로 되어 있다.

그 중 4章은 三日浦, 5章은 永郎湖를 그렸  
 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仙遊潭 永郎湖 神清洞裏  
 綠荷州 靑瑤嶂 風煙十里  
 香再再 翠森森 琉璃水面  
 爲泛舟景 景如何  
 專典鱸膾 飪絲雪縷  
 爲羊酪 登勿夢爲古里

선유담과 영랑호의 신선이 노는 듯한 경치  
 를 잘 묘사해주고 있다.

다. 東國與地勝覽

신증동국여지승람 권지(新增東國與地勝覽  
 刊之) 四十五 간성군 산천조(杆城郡, 山川條)  
 에 영랑호에 대한 설명과 安軸, 李穀등의 詩  
 가 실려 있다.

“永郎湖는 고을 남쪽 55리에 있다. 주위가  
 30여리인데 물가가 굽이쳐 돌아오고 암석이  
 기괴하다. 호수 동쪽 작은 봉우리가 절반 쯤  
 호수가운데 들어갔는데 옛 정자 터가 있으니  
 이것이 永郎 신선 무리가 놀며 구경하던 곳이  
 다.”

〈在郡南五十五里 周三十餘里 汀回渚曲  
 巍石奇怪 湖東小峰 半入湖心 有古亭基  
 是永郎仙徒 遊賞之地〉

〈安軸의 詩〉

평평한 호수 거울인 양 맑은데  
 푸른 물결 엉기어 흐르지 않네.  
 놀잇배를 가는 대로 놓아두니  
 등실등실 떠서 날으는 갈매기 따라가네.

浩然하게 맑은 흥 발동하니  
 물결 거슬러 깊고 그윽한 데로 들어가네.  
 푸른 벼랑은 푸른 돌을 안았고  
 玉洞은 경주(瓊州)를 감추었네.  
 산을 따라 소나무 아래 배 대이니  
 하늘은 푸르고 서늘한 기운 이제 가을이네.  
 연잎은 맑아서 씻은 것 같고  
 순채 실은 미끄럽고도 부드럽네.  
 저물녘에 배를 돌리려 하니  
 풍연(風煙)이 천고의 수십일세  
 옛 신선 다시 올 수 있다면  
 여기서 그를 따라 놀리라.

平湖鏡面潛  
 蒼波凝不流  
 蘭舟縱所如  
 泛泛隨輕鷗  
 浩然發清興  
 沉洞入深幽  
 丹崖抱蒼石  
 玉洞藏瓊洲  
 循山泊松下  
 空翠涼生秋  
 荷葉淨如洗  
 專絲滑且柔  
 向晚欲回棹  
 風煙千古愁  
 古仙苦可作  
 放此終之遊

저문날 구름 반쯤 걷히니 산은 그림 같고  
 가을비가 새로 개이니 물결이 절로 생기네  
 이곳에 다시 올 것을 기약할 수 없으니  
 배 위에서 노래 한곡조 다시 듣노라.

暮雲半捲山如畫  
 秋雨新晴木自波  
 此地重來難可必

## 更聞般上一聲歌

## 〈李穀의 詩〉

安정승(安軸)의 정희는 황학(黃鶴)의 달이  
요.

李生(李穀 자신을 일컬음)의 行止는 훤 갈  
매기 물결이네.

이곳에 다시 온다 약속하기 어려운데  
부질없이 관동의 한곡조 노래만 듣네.

安相情懷黃鶴月

李生行止白鷗波

重來此地誠難必

空聽關東一曲歌

## 라. 李穀의 東遊記

목은 이색(李穡)의 아버지 가정(稼亭) 이  
곡(李穀)이 쓴 東遊記에도 잠깐 永郎湖가 언  
급된다.

“초사일(初四日), 삼일포에 가서 미륵당을  
보았는데 東北쪽 석벽(石壁)에 여섯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술렁도 남석  
행”(述郎徒 南石行)으로 되어 있다. 밑에  
있는 “徒”자와 “行”자는 잘 보이지 않아 그  
이유를 물어본즉 하도 유람객이 많이 찾아  
와 그 치다거리에 지쳐서 지방주민들이 일

부러 쪼아버렸다.”

## 〈원 문 생 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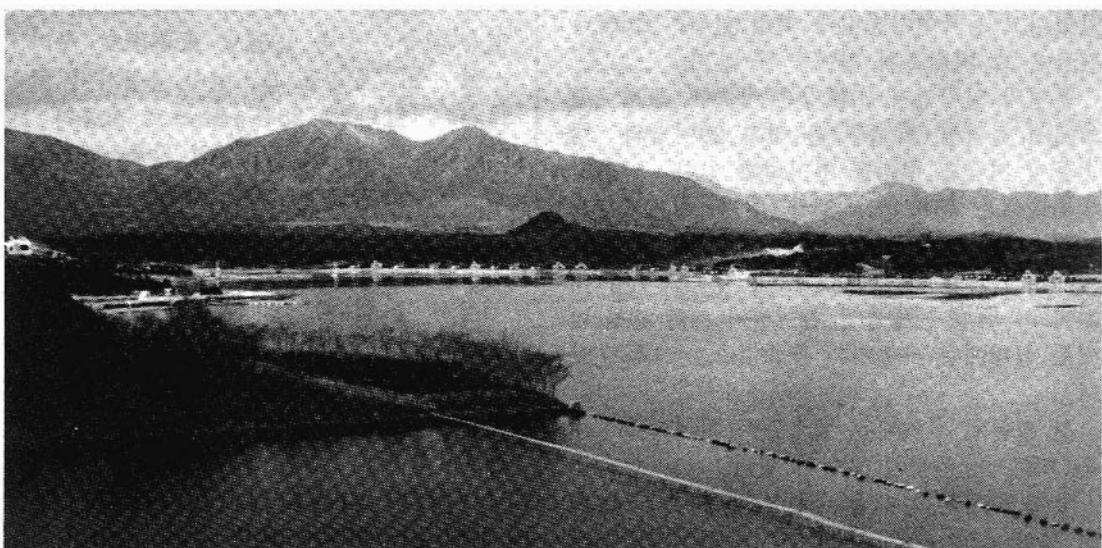
“초팔일(初八日)에는 “永郎湖”에 배를 띠<sup>우고</sup> 놀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어 마음껏 구<sup>경을</sup> 못하고 낙산사에 도착하여 白衣大師를  
만나 보았다. 사람이 말하기를 이곳은 관음  
보살이 살던 곳이며 산밑의 석벽에 짚린 구<sup>멍이</sup> 괴음보살이 들어간 굴이라 한다.”

(初八日 泛舟永郎湖 日晚不得窮源 到洛山寺  
白衣大師 人言觀音菩薩所住 山下石崖有賽  
是觀音入處也)

## 3. 永郎湖를 素材로 한 作品

백사 이항복의 후손으로 이조 숙종 때 홍주  
목사를 지낸 이세규는 永郎湖의 아름다움을 다  
음과 같이 노래했다.

모래사장 동쪽 솔밭을 지나니  
맑고 깨끗한 곳 바람도 없네.  
호수는 한 폭의 그림이요  
설악의 청봉이 거울 속에 잠겼다.  
금강의 만 이천봉 두루 돌아서  
명사십리 해당화 길 맑고 내려와  
영랑호반에 서니 눈이 번쩍 트이네  
어화 좋다 술동이 장단치며 노래부른다.



# 映山倒地 永郎湖

永郎湖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36만평이나 되는 광활한 지역이어서  
주변곳곳에 많은 애환과 깊은 사연들을  
담고 있다.  
朴益勲 교장의 안내로 湖水주변의  
여러 명소를 돌아본다.

- 편집자註 -

## <설 악 정(雪嶽亭)>

永郎湖 동쪽에 조그마한 山峰이 하나 있는데 이 山峰위에는 옛날 花郎이 놀았다는 정자가 있었다. 400여년 전만해도 그 亭子 터가 남아 있다고 동국여지승람에 적혀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자취조차 찾아볼 수 없다.

우연의 일치인지 由緒깊은 이곳에 東草弓道會에서 설악정(雪嶽亭)을 짓고 20여명의 弓士들이 지금도 弓術을 연마하고 있다. 회장 李昌燮씨는 45시(矢) 33중(中)의 실력자로서 국風 '81때 전국궁사 1,260명이 모인 경시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했다. 그외에도 각종 대회에 이 道場 弓士들이 참여하여 전평 28평 남짓한 실내에는 우승기와 우승컵으로 가득차 있다.

잘 정돈된 亭內에는 弓士들이 지켜야할 계훈(戒訓)이 현판에 쓰여져 있다.

동쪽 벽에는 설악정 내력에 대한 현판이 걸려 있다.

## 雪嶽亭 建立記

1964년 6월 25일 金奉容, 李昌燮 兩氏로 하여금 東草弓道會를 발족, 1965년 4월 大韓弓道協會에 가입하여 琴湖亭으로 발전을 거듭하던 중 1961년 東草市로 부터 一金一百萬원정을 보조받아 총공사비 參百六拾萬원(전평 28평 4흡)으로 시공자 金肩銖氏가 1971년 12월 6일 착공, 1972년 7월 15일에 준공함.

찬조자 명단 (생략)

## <관 음 암(觀音巖)>

雪嶽亭에서 약 100m가량 남쪽에 있는 정상에 오르면 큼직큼직한 바위가 여러개 모여서 있음을 볼 수 있다.

頂上에서 동쪽으로 수십보 내려가면 큰 암벽 하나가 絶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

永郎○○  
杖○大○

## 觀 音

西歷 一九五二年 六月 ○日

李 亨 根 題  
崔 泓 穀 書

다섯줄 종서(縱書)로 되어 있다.

처음 두 줄의 네 글자는 風雨寒暑에 마멸되어 알아볼 수 없으나 글의 내용은 花郎 永郎이 이곳에 와서 수도할 때 관음보살이 나타났다는 뜻인 것 같다.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오랜 옛날 이곳에 樹木이 우거지고 인적이 적적할 때 어느 道士가 이곳에서 修道를 하였는데 관음보살이 나타나 득도(得道)를 도왔다하여 이 바위 이름을 觀音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花郎들이 遠近을 가리지 않고 名山大川을 찾아다니며 즐겼다는 것은 (遊山大川 無遠不至) 거기에 신령과 신선이 강림한다고 믿어 神의 힘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花郎이 이곳에 왔다는 것은 아름다운 경치때문만 아니라 현묘한 신성성(神聖性)이 서려있는 聖城으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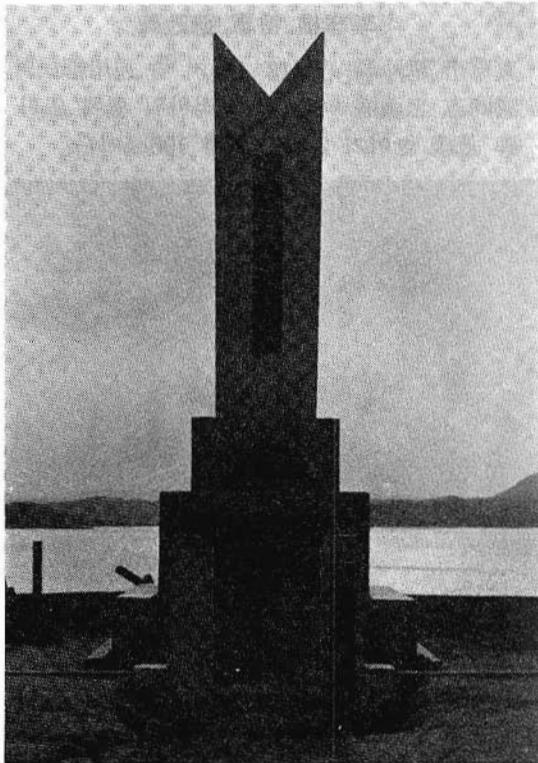
이 봉우리야말로 名峰 중의 名峰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아득한 옛날에는 花郎과 道士들이 찾아와 修道를 했고 지금은 이름난 弓士들이 弓道를 연마하고 있으며, 春夏秋冬 4계절을 통하여 남녀노소할 것 없이 아침이면 수많은 東草市民들의 산책코스로도 이용되고 있다.

이곳에서 주위를 바라보노라면 동서남북 어느 한 곳 막힘이 없고, 맑은 공기와 그림같은 風光 등으로 인해 그야말로 浩然의 氣를 독차지하는 느낌이 듈다.

## <通川郡民의 殉國同志 忠魂塔>

이 山峰의 最北端 즉 東草市 장사동 313의 1에 있는 이 탑은 自由, 平和, 正義의 깃발을 들고 싸우다 산화(散華)한 反共戰死者 및 6·25 사변때 戰沒한 勇士들중 通川郡民出身인 배연



通川郡民의 殉國同志 忠魂塔

주외 113명의 불멸(不滅)의 충혼(忠魂)을 새겨 반공을 다짐하고 統一을 맹세코자 영북지구 통천군민회(嶺北地區 通川郡民會) 新世默會長外 5명이 발기(發起)하여 전국에 있는 通川郡民의 성원(聲援)으로 鄭周永, 朴龍學, 강서룡(전교통부차관) 150余名으로부터 120만 원의 회사금(喜捨金)을 받아 1969년 10월 15일 通川郡民의 이름으로 建立하였다.

충혼탑의 규모는 비기단(碑基壇) 높이 110cm 둘레 17cm, 비신(碑身) 높이 625cm, 둘레 5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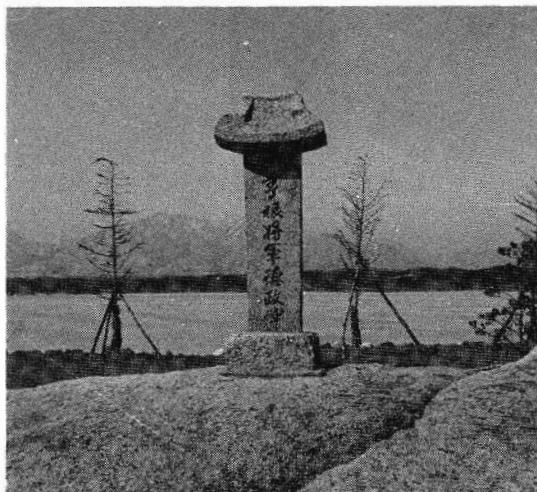
비문 全文은 다음과 같다.

“해돋는 동방(東方)의 나라 아름다운 내 조국.

자유, 평화, 정의의 깃발을 들고, 북한의 공산도당과 생명을 걸고 싸우다 피흘린 동지들의 불멸의 충혼을 비석에 깊이 새겨 고향바다 흐르는 이곳에 모시고 반공(反共)을 다짐하고 통일을 맹세하오니 충혼들이여 고이 잡드소서.”

<李亨根 將軍 德政碑>

束草市 章沙洞 산 313-1번지 즉 通川郡民의  
殉國同志 忠魂塔 바로 앞 뚝적바위 옆에 있다.  
碑 基壇 높이가 23cm, 둘레 196cm이다.



본래 이 지역은 38도선 이북으로 8.15 후 共產治下에 있다가 1961년에 陸軍 제1군단장 李亨根 장군이 수복(收復)하고 軍政을 실시하여 이 地域再建에 큰 공이 있었으므로 6만 속초시민들이 크게 감격하여 1952년 8월 15일에 제1군단 전투지구 민중대표(民衆代表) 朴鍾勝外 13명의 발기로 碑石을 세워 그 공적을 기념하고 있다.

<낚 시 바 위>

通川郡民의 순국동지 충혼탑에서 20m 채 웃 되는 水中에 조그마한 바위가 있는데 水深이 깊은 까닭에 어찌나 고기가 잘 낚이는지 봄 여름, 가을철만 되면 태공들이 이른새벽부터 찾아들어 자리잡기가 하늘에 별따기보다 더 어려웠다.

<普光寺>

永郎湖 東南方에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푸른 松林이 우거진 情겨운 조그마한 골짜기가 있다. 이 골짜기에 民家 비슷한 절이 하나 있는데 이 절이 바로 “普光寺”이다.

지금부터 약 50여 년전인 1937년 鄭華澤이란



스님이 세운 사찰이다.

절 이름을 “보광사”라고 한 것은 부처님의 제자 53佛中에 首弟子이신 普光佛尊을 이 절에 모셨다하여 “普光”이란 이름을 붙인 것이라한다.

절 입구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岩壁에

普光寺創建  
大法師  
鄭華澤

이라 隱刻되어 있다.

절 주위에 남아있는 老松林은 이 절의 스님이 절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남달리 애써 보호해 온 덕이라 한다.

이곳은 永郎湖中에서도 가장 景觀이 아름다운 산자수명(山紫水明)한 곳으로 봄, 가을 철이면 이 부근에 있는 각급학교 학생들의 소풍으로 초만원을 이룬다. 春夏秋冬 四時를 통해 탐승객(探勝客)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松江 鄭澈先生이 지은 關東別曲 歌詞中 本文(基四)에 다음과 같은 귀절이 있다.

高城을란 떠만두고 三日浦를 ो자 가니  
단서(丹書)는 완연(宛然) 乎대 사선(四仙)은  
어디가고  
예사흘 머문 후의 어디가 또 머문고  
선유담(仙遊潭) 영랑호(永郎湖) 거그나가  
잇는가

청간정(淸澗亭) 萬景臺 벗고더 안듯던고  
 梨花는 불셔지고 접동새 슬피 올제  
 洛山東畔으로 義湘臺에 올라앉아  
 月出을 보리라.

松江은 宣祖 13年 (1580) 正月에 江原觀察使  
 (現 道知事)에 제수되어 漢陽을 떠나 여주를  
 거쳐 原州 觀察府에 부임하였다.

그때 나이 45세로, 부임직후 관내지역(管內地域)인 金剛山을 비롯한 關東八景을 두루 들  
 아보며 山水, 風景, 故事, 風俗등을 탐월(卓  
 越)한 필치(筆致)로 운률(韻律)에 알맞게 서  
 술한 것이 바로 “關東別曲”이다.

關東은 江原道의 鐵嶺以東의 江陵諸州를 말  
 한다.

松江은 전라도 昌平사람으로 수많은 詩歌를  
 남겼고 벼슬은 左議政까지 올랐다. 東人們의  
 모함으로 官職에서 물려난 후 江華 松亭村에  
 집거하면서 晚年을 보냈다.

鄭澈뿐 아니라 누구나 이곳을 처음와 보는  
 사람은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야말로  
 地上의 樂園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 <충 혼 탑(忠魂塔)>

束草市 東明洞 산 62-1 永郎湖에 있는 충혼  
 탑은 束草出身 軍警戰役將兵 忠義를 追慕하고  
 자 1964년 5月에 束草市 東明洞 現 등대 뒷산  
 에 建立하였던 것을 1969년 5월에 현재의 위  
 치에 移設하여 1969년 6월 6일 현충사 행사와  
 겸하여 제막식을 가졌다.

규모는 탑 기단높이 165cm, 둘레 890cm, 塔  
 身 높이 355cm, 둘레 360cm이다.

“아아 임무(任務)와 목표 앞에  
 구국의 지성(至誠)은 천지와 함께 길이  
 빛나리라.”

英靈들의 忠義에 상응하는 규모로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의 추모를 받게 해야 한다는 市民  
 들의 여론에 따라 忠魂塔建立委員會(委員長 :  
 金鍾緣)가 조직되어 새 塔의 전립을 적극추진  
 중에 있다.

### <五勇士墓>

지금은 없어졌지만 永郎湖畔 忠魂塔 南쪽 언  
 덕밭이에 五勇士의 墓가 있었다. 다복솔이 우  
 거진 사이에 다섯개의 무덤이 나란히 놓여 있  
 었다. 그 무덤의 임자들은 고향을 멀리 이북  
 땅에 둔 청년들이었고, 속초시민은 이 무덤을  
 반공 5용사의 무덤이라 불렀다.

1952년 가을(10월), 후퇴를 하며 북상하는  
 40여명의 공비들을 맞아 다섯명의 무장청년들  
 이 맞서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한 곳이다.

이를 기리기 위해 1961년 8월 建立推進委員  
 會(위원장: 方孝根)에서는 순국 5용사 추모비  
 를 세웠다. 비문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 1952년 10월 22일 영랑호반에서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반공전선에 목숨을 바친 다섯 용사  
 가 여기에 잠들었으니 그 층의야 말로 천추에  
 빛나리. >

그리고 묘 하나하나마다 용사의 이름을  
 적은 묘비가 있었다.

김덕범 (金德範)	고향	함경북도
지창하 (池彰河)	고향	함경북도
이기구 (李基九)	고향	함경남도
김병선 (金炳善)	고향	평안북도
김화수 (金化壽)	고향	평안남도

그때 세워진 비는 서재홍(徐在鴻)씨가 총경  
 비를 부담했었다.

그후 20여년 동안 묘의 벌초는 속초고등학  
 교 학생들이 하고, 매년 10월이 되면 김종률  
 씨를 비롯한 속초유지들이 각급기관의 협조를  
 얻어 제수를 장만하여 제사를 올리며 숭고한  
 반공정신을 추모해 왔다.

그러던 중 1981년 4월 5일, 5용사의 유골  
 을 화장하고 영령만을 普光寺에 봉안하였다.

### <법 바위>

永郎湖 중간지점 서남쪽에 잠겨있는 큰 바위  
 로서, 위엄이 당당하며 마치 범형상으로 생  
 겼다하여 범바위라 불리운다. 지금은 옛적 주  
 위 원형을 찾아볼 수 없으나 산림이 올창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불과 20~30년전만 해

도 범이 출몰하기도 했다. 1960년 어떤 운전 기사가 트럭을 몰고 미시령을 넘다가 표범새끼 세마리를 생포하여 한마리는 외항선을 타고 온 일본사람에게 팔고 두마리는 금호동에 있는 자기집에서 기른 일이 있다고 한다.

이 바위는 속초 일부 서민들에게 聖스러운 바위로 알려져 무당들의 歌舞가 끊이지 않았고 기도 올리기 위해 찾아드는 사람들의 발길이 줄을 잇기도 했다.

### <金 將 臺>

高城, 束草, 襄陽地區 收復當時 功이 많았던 제11사단장 김병휘(金炳徽)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 범바위 동쪽에 세워진 亭子였는데 管理소홀로 風雨에 퇴락되어 지금은 정자는 잔곳이 없고 깨어진 기와쪽과 주춧돌만 남아 있을 뿐이다.

### <洛 山 斯 匪>

범바위에서 西南쪽으로 약 300m 가량 떨어진 산기슭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암자 하나가 있었다.

거기에는 70이 넘은 老僧 한 분이 살고 있었다. 姓은 金이고 法名은 洛山이다.

藝術에 조예(造詣)가 깊어 암자앞에 조그마한 石山을 쌓아두고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삼라만상(森羅萬象)의 묘리(妙理)를 說明하는가 하면 室內에는 적은 木佛을 조각해 두고 최고 걸작품이라 자랑하면서 예술의 진가(真價)를 아는 사람 없는 것을 한탄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뛰어난 書藝家로서 많은 作品을 남겼다. 이분은 普通書藝家와 달라 글씨를 쓸 때는 붓은 악필(握筆)이라 하여 주먹으로 꽉잡고 발 뒤꿈치를 들고 발끝만 땅에 닿게 한다. 글씨를 손으로 쓰는게 아니고 몸 전체를 움직이며 쓴다.

아무리 추운 엄동설한(嚴冬雪寒)이라 할지라도 글씨 한장 쓰고 나면 이마에 구슬땀이 흐르게 된다. 이분은 젖먹은 힘까지 다 들여서 쓰지 않은 글씨는 그림이지 글씨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붓이 좋고 나쁜 것이 무슨 관계

있느냐 하며 붓을 가리지 않는다.

그분의 글씨는 김추사(金秋史) 글씨와 같이 힘이 있고 글자 짜임새도 있어 70老僧의 글씨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뛰어난 藝術의 才能을 가진 분이었건만 때가 6.25사변 직후라 모두 생활고에 시달려 알아주는 사람 없어 문전걸식(門前乞食)을 하는 형편이었다.

지금은 암자도 스님도 잔곳이 없으니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 <모 래 뚝>

범바위 西쪽에 水中으로 약 30m쯤 뻗어나간 제방처럼 생긴 뚫이 있다.

이곳은 비교적 水深도 깊고 水草도 많아 많은 魚族들이 모여든다. 낚시하려 찾아드는 釣士들도 많지만 목욕하는 사람으로 봄비기도 한다.

여름철이면 越尺의 승어가 많이 잡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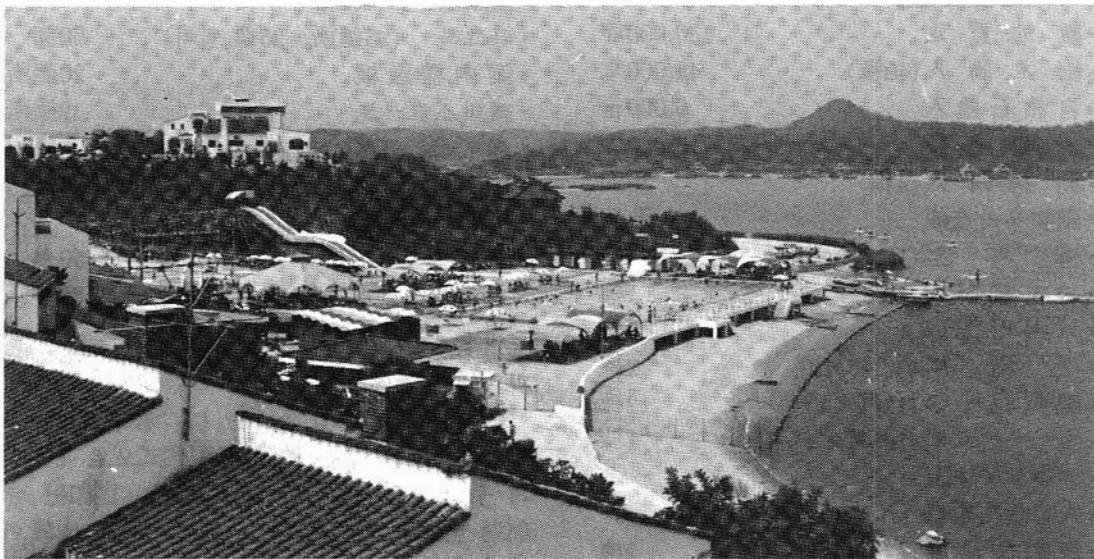
범바위 앞에는 가물치가 많기로 유명하다.

### <湖邊公園 永郎湖>

永郎湖는 많은 詩文을 남긴 由緒깊은 이름난 勝地이기도 하지만 영산도지(映山倒地)라고도 한다.

봄이면 진달래꽃 아름답게 피고 가을이면 단풍잎 곱게 물든 울산바위에 올라가 永郎湖를 바라보면 아름다운 庭園의 연못과 같고 達魔峰의 그림자가 水中에 비치면 山이 거꾸로 보인다 하여 映山倒地란 말이 생겼다.





永郎湖 뒤에는 雪嶽靈峰이 하늘 높이 솟아 있고 앞에는 東海의 萬頃蒼波가 펼쳐져 있다.

아무리 神의 섭리(攝理)에 依하여 이루어진 大自然이지만 欲된 人間의 비위를 다 滿足시킬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勝地란 自然에 人文이 加해질 때 더 옥 脚光을 받게 된다.

永郎湖는 雪嶽山 國立公園과 함께 東海岸 特定地域 綜合開發計劃에 依하여 束草市를 水產觀光都市로 開發시키게 되었다.

1976년 4월 12일 大統領公告 第33節로 永郎 地區  $1.02\text{ km}^2$  綜合開發計劃 公告되었고 1976 年 9月 29日 江原道告示 第104號로 永郎湖 周邊  $0.84\text{ km}^2$  및 束草都市計劃 遊園地區計劃이 告示되었다.

1976年 12月 22日 嶺東 東海岸 特定地域開發 細部計劃이 確定되어 (6 地區 25千坪 地域 430-3244)

東邦遠洋開發公司가 開發指定業體로 指定되었다. 1977年에서 1986년까지 總面積 25萬坪 敷地에 敷地에 總工事費 30億9千6百67萬원 을 投入하여 開發하고 있다.

이 開發工事는 二段階로 나누어 完工할 豫定이다.

一段階로 湖邊道路開設 및 公園造成 護岸施

設 등이 이미 完成되었다.

第二段階 工事が 完工된다면 國內에서 가장 우수한 湖邊公園으로 登場하게 된다.

### 開發推進狀況

#### (基本施設)

- 道路開設(幹線路) 2,200 m
- 下水道 井戸 場水施設
- 多目的水槽 및 小河川整備施設
- 電氣引入 및 通信施設 等이다.

#### (內水資源開發)

• 護岸工事	10個所	3,000 m
• 湖邊道路開設		5,400 m
• 魚村林造成		62,400 $\text{m}^2$
• 暗渠土管	20個所	260 m
• 鐵柵		1,600 m
• 鐵網		3,720 m
• 遮斷網	1個所	90 m
• 優秀魚種入殖	(4種)	1,015萬尾
• 小溜池施設	1個所	1,200坪
• 養魚機具		
• 揚水機		
• 管理船等		

[特定地區開發]

• 敷地買入	130,000坪
• 樹木購入(40種)	48,000本
• 自然石搬入	6,000 m <sup>2</sup>
• 造園施設	6,000坪
• 動物購入(4種)	20頭
• 動物우리造成	千個所
• 방 가 로(15.7坪×4)	千棟
• 낚시賓與所(18.8坪×1)	1棟
• 낚시터造成	5個所
• 案內所(8.2坪×2)	2棟
• 公衆化粧室(12坪×1)	12棟
• 食堂(105坪×1)	1棟
• 水中亭子施設	
• 人工瀑布施設	
• 魚類展示場(176坪)	1棟
• 展望臺(16坪)	1棟
• 호텔(758坪)	70室
• 休憩所(2個所)	105坪
• 레크레이션센타	262坪
• 캐빈	17棟
• 텐트	30個
• 野外公演場(121坪)	1棟
• 水泳場(760坪)	1個
• 보ート클럽	52坪
• 賣店(27坪×3)	1棟
• 亭子(6坪)	1棟
• 道路(4種)	5,050 m
• 駐車場	4,300 m <sup>2</sup>
• 上水道	1,570 m
• 食料臺	15個所

• 噴水臺, 照明施設

• 파그라(25個所, 25個벤치)	50個
• 案內標識板	20個所
• 테니스코ート	2個所
• 卓球臺	20個所
• 다이빙臺	
• 미끄럼臺	
• 보드트	50隻
• 요트	20隻

水上스키등도 할 수 있도록 모든施設이 거의 완成단계에 있다.

범바위 맞은편 山峰에 있는 “永郎亭”은 食堂, 禮式場等 모든施設이 現代式으로 편리하게 꾸며져 있는데다가 青山線水로 調和된 永郎湖 全景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바로 山峰 아래인 東쪽 기슭에는 풀장, 테니스코트等 運動施設이 갖추어져 있어 永郎湖畔의 새 명소로 登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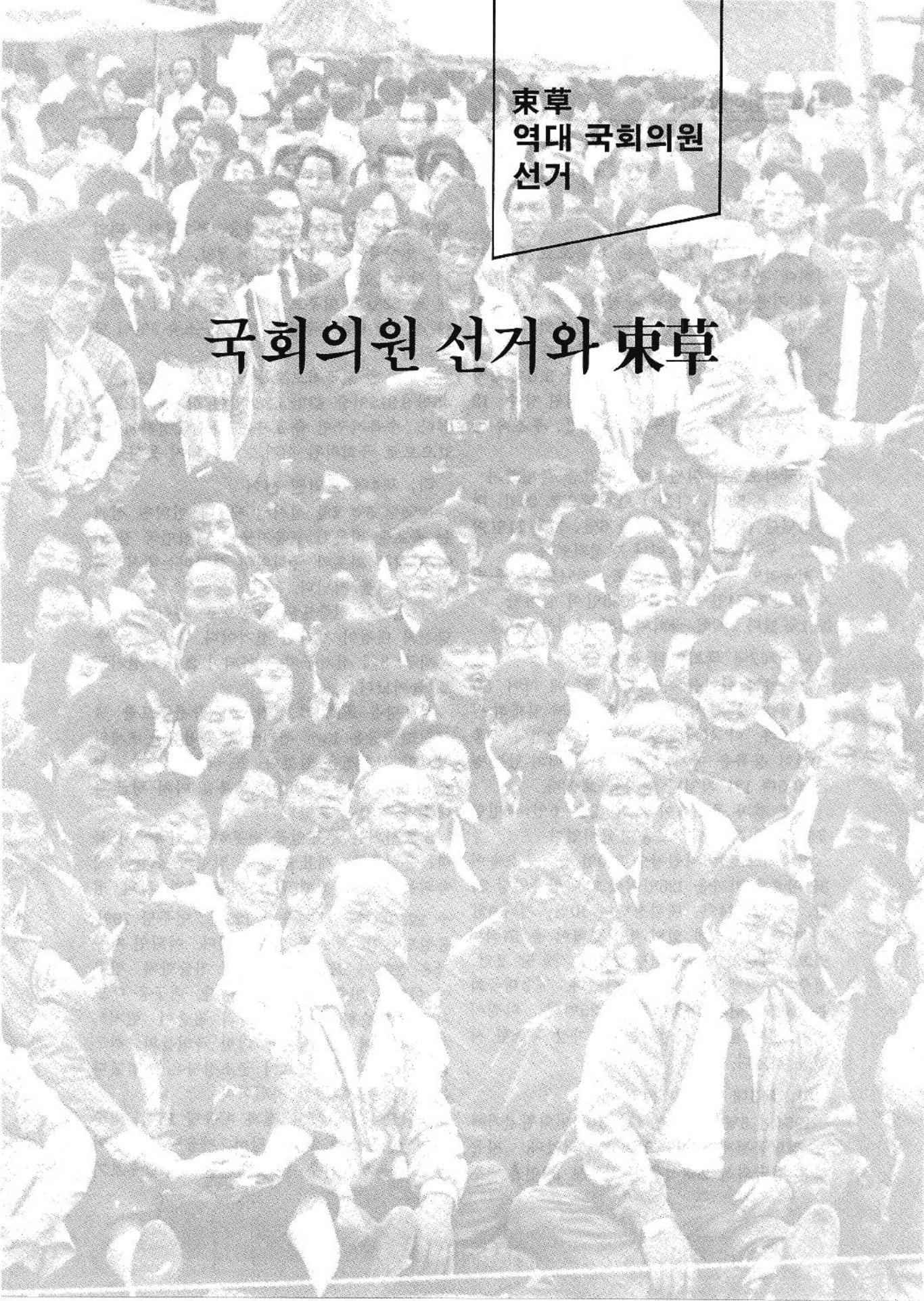
장마가 지거나 洪水가 날 때면 湖水와 바다가 서로 연결되어 바다고기들이 湖水로 올라와 승어떼는 말할 것도 없고 몇년 묵은 큰 도미까지 낚이어 太公들에게 들도 없는 낚시터로 脚光을 받는다.

겨울이면 수십마리의 고니떼가 날아와 푸른湖面을 白色으로 점점이 수를 놓는다.

永郎湖야 말로 물고기들의 樂園이요 철새들의 極樂인지도 모른다.

綜合開發로 自然에 人文의 수를 놓고 있지 만 행여나 欲巧反巧로 自然을 毀損汚染시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朴益勳 撰〉



束草  
역대 국회의원  
선거

# 국회의원 선거와 束草

## 국회의원선거와 束草

### 가. 제헌 국회의원 선거

1948년 5월 10일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 감시하에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대한민국의 기틀이 될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회라는 데서 역사적 의의를 지니는 선거였다.

강원도에서는 3·8선 이남에 자리한 12개 선거구에서 총 43인이 입후보, 평균 3.6대 1의 경쟁을 보였다. 개표 결과 국회의원 정수 12인 중 국민회 6인, 대동청년단 1인, 무소속 5인이 당선되었다.

전국적으로는 의원정수 198인 중 국민회가 가장 많은 55인, 다음이 한민당으로 29인, 대동청년단 12인, 민족청년단 6인, 기타 11인이었고, 무소속이 85인이나 당선되었다.

전국적인 투표율은 95.5%, 강원도는 유권자 46만 7,554인 중 45만 9,038인이 참가한 98.1%였다. (제헌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

### 나. 제2대 국회의원 선거

2년간의 임기를 마친 제헌국회에 이어 50년 5월 30일 道內 12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는 의원정수 12인에 총 79인이 등록을 마쳐 1대 선거의 배가 넘는 평균 6.5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개표 결과 무소속이 가장 많은 6인, 국민당 3인, 국민회 2인, 노총 1인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의원정수 210인 중 무소속이 3분의 2에 가까운 126인이었고 대한민국당 24인, 국민회 14인, 대동청년단 10인, 기타 9인 등 여당적 입장에 있던 정치세력이 총 57석이었고, 야당인 민주국민당 24인, 사회당 2인, 민주자주연맹 1인 등 27석이었다. 제2대 국회는 6·25 동란의 와중에서 총 35명의 의원이 납치, 행방불명, 사망하는 등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 다. 제3대 민의원 선거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3대 민의원선거에는 정당공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자유당은 전국의석 203석 중 공천후보 99인을 포

함한 114인을 당선시켜 압승, 제1당이 되었고, 민주국민당 15인, 기타 7인, 무소속 67인이 당선되었다. 강원도내에서는 12개 선거구에 총 52인이 입후보, 평균 4.3대 1의 경쟁률에 자유당 8인, 국민회 1인, 무소속 3인이 당선되었다.

투표율은 전국적으로는 91.1%, 강원도는 총 46만 8,915인 중 43만 5,288인이 참가한 92.8%였다. 수복지구인 속초시는 유엔군정하에 있었으므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였다.

### 라. 제4대 민의원 선거

1958년 5월 2일 실시된 제4대 민의원 선거는 속초를 비롯한 수복지구가 대한민국 품 안에서 치른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라는데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이 선거는 민주당의 창당으로 본격적인 정당간의 대결이 시작된 선거이다. 강원도는 수복지구 8개 선거구가 추가되어 20개 선거구로 늘어났다.

자유당은 道內 전 선거구에 공천후보를 냈고, 민주당은 13개 선거구에 공천자를 내세워 치열한 선거전을 벌였다. 또 국민회 4명, 무소속 39명 등 총 80인이 등록을 마쳐 평균 4대 1의 경쟁을 보였다.

5·2 선거는 투표일을 전후하여 전국에서 폭력, 유령투표, 개표중단 등 일련의 소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진행됐다. 개표 결과 의원 정수 223인 가운데 자유당 126인, 민주당 79인, 통일당 1인, 무소속 27인이었다. 여당인 자유당은 농촌과 소도시에서 대거 진출한데 반하여 야당인 민주당은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 압승하였다. 무소속의 진출이 현저하게 억제되어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흥구를 단적으로 나타냈으며 군소정당은 전멸했다는 것이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강원도에서는 개표 결과 자유당 15인, 민주당 2인, 무소속 3인이 당선, 자유당의 대승이 있으나 춘천, 원주 두 곳에서는 민주당후보가

당선되는 야당세를 나타냈다. (홍천, 원주는 무 투표 당선) 도내 유권자 80만 3,663인중 64 만 2,049인이 참가하여 93%의 투표율이었고, 정당별 득표율은 자유당 44.5%, 민주당 19.7 %, 국민회 2.3%, 무소속 33.5%이었다.

이때 속초읍을 포함한 양양군에서는 자유당의 李東根, 민주당의 함종빈등 9인이 입후보 했다. 개표결과 10,366표의 득표로 자유당 이동근 의원이 당선되어 우리 고장 최초의 선 량이 되었다.

(제 4 대 민의원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양양지구))

성명	연령	소속	경력	득표수	비고
崔 晶	45	무 소속	양양경찰서장	4,113	
李 濬	43	민 회	김해군 내무과장	2,676	
咸 鐘	35	민 주 당	인천의숙강사	7,796	
蔡 承	42	무 소 속	대한중앙산업사장	3,633	
崔 基	35	"	휘문중교사	1,133	
李 東	53	자 유 당	경향여객사장	10,366	당선
全 德	49	무 소 속	농사원교도국장	1,001	
金 瑞	60	"	부산화역협회이사	590	
金 昌	53	"	부산공업회사 취체역	3,642	

#### 마. 제5대 민의원 선거

4.19 학생의거로 자유당정권이 무너진후 60년 7월 29일 초대 참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었다. 자유당의 몰락에 따라 이때까지 빛을 보지 못했던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진출, 제2공화국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민주당은 민의원 의석정수 223석, 참의원 58석 중 무공천자를 합하여 민의원의 경우 타당당 선자는 사회대중당 4인 등 기타 9인, 무소속 49인이었고, 참의원은 사회대중당 등 기타 7

인, 무소속 20인이었다. 잡자기 비대해진 민주당은 신정부의 권력안배문제를 들러싸고 종래의 신·구파 대립이 격화되어 마침내 분당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

강원도내에선 20개 선거구에 총 141인의 후보가 등록, 무려 7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개표 결과 민주당은 파반수인 12인의 당선자를 냈고, 자유당 1인, 무소속 6인이었다.

(제 5 대 민의원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양양지구))

성명	연령	소속	경력	득표수	비고
李 洪	39	무 소속	한일은행업무부차장	4,198	
咸 鐘	31	민 주 당 (公)	의회평론사편집부장	12,480	
金 中	32	무 소속	남죽동지회 부회장	1,012	
申 孝	36	민 주 당	언론인	5,871	
朴 泰	36	무 소 속	명륜중학이사	2,202	
崔 晶	47	"	경찰서장	5,531	
徐 南	50	"	대한모방집협이사장	683	
李 東	55	자 유 당	4 대민의원	3,716	
朴 義	41	무 소 속	서울공대교수	2,312	
崔 基	37	한국청년단	한청중앙위원	2,468	
李 輽	52	사 대	중앙위원	638	
姜 則	43	무 소 속	시문평론사논설위원	573	

투표율은 총 유권자 76만 9,474인 중 68만 3,181인이 참가 88.9%를 나타냈다. 도내 정당별 득표율은 민주당 32.9%, 무소속 59.9%, 사회 대중당 12.2%, 기타 정당은 4% 미만이었다.

속초읍이 포함된 양양군에서는 이홍영, 함종빈, 김중덕, 신호순, 박태송, 최정, 서남통, 이동근, 이의선, 최기선, 이재춘, 강최모 등 12명이 난립하는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개표 결과 민주당 공천을 받은 함종빈씨가 12,480 표를 얻어 5,870표를 획득한 또 다른 민주당 후보 신효순씨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무난히 당선되었다.

이때 高城郡에서는 정재철(12대 의원), 최정식(현의원)씨 등이 31세의 젊은 나이에 후보로 나섰으나 김웅조씨에게 패했다.

### 바. 제6대 국회의원 선거

5.16 혁명 후 구정치인들이 퇴진하고 신진 세력이 대거 등장한 가운데 1963년 11월 27일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민정이양을 위한 제3공화국의 정치판도를 결정짓는다는데서 중요한 정치적 의의를 지녔다. 이에 앞서 혁명주체 세력이 중심된 민주공화당이 창당되고 구민주당 세력은 민정당을 새 진용을 갖춰 전 지역구에서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선거구는 종전의 시·군단위에서 2~3개군씩이 합친 구역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도내는 20개구에 9개 선거구로 개편되었다.

속초시는 고성, 양양과 함께 제7지역구가 되었다. 또 사상 최초로 비례대표인 전국구 후보제가 등장한 것도 한 특징이다.

공화, 민정 양당은 전국 131개 전지역 선거구에 공천후보를 내세웠고, 민주당, 한독당 등

이 그 뒤를 따랐다. 강원도내에서는 9개 선거구에 총 61인이 입후보하여 평균 6.8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지역구 131, 전국구 31인에 총 1,001인이 입후보, 평균 6.1대 1의 치열한 경쟁이었다. (지역구 847인, 전국구 154인) 투표율은 전국유권자 1,334만 4,149인 중 72.1%, 강원도는 82만 3,498인 중 61만 9,829인으로 75.4%의 낮은 투표율이었다.

개표 결과 전국적으로 민주공화당이 지역구 131인 중 88인을 당선시키는 압승을 거두었고, 다음은 민정당이 27인을 당선시켜 독자적인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 민주당 8인, 자유민주당 6인, 국민의당 2인이었고, 자유, 보수, 신흥, 추풍회, 정민회, 신민회, 한독당 등 군소정당은 전멸하였다. 전국구는 총 31인 중 공화 22인, 민정 14인, 민주 5인, 자민당 3인이었고, 국민의당은 원내 의석 3석 미만이어서 의석배정을 받지 못하였다. 야당은 특히 서울에서 압승하였고, 여당은 대구, 부산을 포함한 경남북, 충북, 강원, 제주에서 크게 이겼다.

선거결과 강원도내에서는 의원정수 9인 중 공화당 7인, 민주당 1인, 자민당 1인이 당선, 공화당이 압승하였다. 득표율에서 공화당은 36.2%, 민주당 19.8%, 자민당 2.3%였다.

속초시가 속한 제7지역선거구에서는 공화당의 金鍾浩, 민정당의 金斗烈, 민주당의 崔正植, 국민당의 咸鍾贊, 보수당의 申孝舜, 자민당의 崔順源, 등 6명이 등록을 해 6대1의 경쟁이었다.

개표 결과 공화당의 金鍾浩 후보가 2만 3,68

(제6대 국회의원선거 득표상황 (제7지역))

성명	연령	본적	소속	학력	득표수	비고
崔順源	49	서울	자민당	사범대학	732	
咸鍾贊	40	강원	국민의당	대학졸	3,738	
申孝舜	40	합복	보수당	"	6,883	
崔正植	34	강원	민주당	대학원졸	17,315	차점
金斗烈	39	"	민정당	대학졸	4,284	
金鍾浩	44	"	민주공화당	대중퇴	23,684	당선

4표를 얻어 차점자를 5천여표 차로 늘려 당선되었다. 차점자인 민주당의 崔正植 후보는 1만 7,315표, 보수당의 申孝舜 6,883표, 민정당의 金斗烈 4,284표, 국민당의 합종빈 3,739표, 자민당의 崔順源 732표를 각각 얻었다.

제7지역 선거구에서는 유권자 8만405인 중 6만 4,043인이 투표, 비교적 높은 79.7%의 투표율을 보였다.

#### 사. 제7대 국회의원 선거

1967년 6월 8일 실시된 총선거는 제3공화국 1기 치적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데서 의의를 지닌다. 이 선거에는 도내 9개 지역구에 총 66인이 입후보, 평균 6.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중 제8지역구인 횡성, 평창구는 10명, 제9지역구인 삼척구는 9명이 대결한 난립현상을 보였다.

개표 결과 공화당은 원주를 제외한 8개 지역구에서 압승했고, 신민당은 원주에서만 당선되었다. 전국적으로 공화당 102인, 신민당 28인, 대중당 1인이 당선(지역구) 됐다. 전국구 의석은 44석 중 공화당 27석, 신민당 17석을 배분받아 7대 국회의석은 공화 129석, 신민 43석, 대중당 1석이 되었다. 공화당은 결국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이상 결과

를 가져왔고, 군소정당은 전멸하였다. 공화당은 농촌, 신민당은 도시에 우세한 전형적인 여촌야도(與村野都) 현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6·8총선거는 선거부정으로 얼룩져 심한 선거 후유증을 유발, 선거부정이 현저한 6개 구의 공화당 당선자가 제명되는 사태를 빚었다.

선거 결과 강원도내에선 총유권자 88만 2,332인 중 71만 7,320인이 투표, 81.2% 투표율을 보였다. 정당별 투표율은 공화 49.1%, 신민 27%, 자유 12.1%의 순이었다. 속초시가 속한 제7지역 선거구에는 공화당의 金鍾浩, 신민당의 咸鍾贊, 자유당의 金應祚, 민중당의 梁碩煥, 대중당의 吳泰成 등 5명이 대결했다. 개표 결과 공화당의 金鍾浩 후보가 3만 1,406표를 얻어 차점자를 1,025표차로 늘려 재선의 영예를 누렸다. 차점인 신민당의 咸鍾贊 후보는 3만 382표, 자유당의 金應祚 후보는 2,766표, 대중당의 吳泰成 후보는 1,788표, 민중당의 梁碩煥 후보는 336표에 그쳤다. 제7지역구에서는 총 8만 8,678인 중 7만 2,428인이 투표 81.6%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전국구 의원으로는 공화당도지부 사무국장 金龍鎬가 순위 16번으로 의정 단상에 서게 되었다.

〈제7대 국회의원선거 득표상황 (제7지역)〉

성명	연령	본적	소속	학력	득표수	비고
金應祚	58	서울	자유당	육군 대졸	2,766	
金鍾浩	48	양양	공화당	만주전국대학	31,407	당선
咸鍾贊	44	양양	신민당	고려 대졸	30,382	차점
梁碩煥	51	서울	민중당	대학 졸	336	
吳泰成	25	고성	대중당	성균관 대졸	1,788	

#### 아. 제8대 국회의원 선거

1971년 5월 25일 실시된 8대 국회의원선거는 도내에서 총 39명이 입후보, 종전보다는 다소 둔화된 평균 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화, 신민 양당은 전지역구에서 공천 후보를 내세워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선거 결과 공화당은 춘천을 제외한 8개 지역구에서 압승을 거두었고, 춘천지역구는 신민당후보가 당

선되었다.

전국적으로는 공화당 96인, 신민 65인, 국민당 1인, 민중당 1인이 지역구에서, 전국구 의석은 공화 27석, 신민 24석을 배분받아 8대 의석분포는 공화 113석, 신민 89석으로 총 204석이 되었다.

공화당은 농촌지역, 신민당은 도시에서 우세한 여촌야도(與村野都) 현상이 재현되었다.

## 역대 국회의원선거

강원도내에서는 총 유권자 87만 6,490인중 68만 4,683인이 참가, 78.6%의 투표율을 보였고 정당별로는 공화 53.3%, 신민 35.4%, 국민당 7.6%였다.

속초가 속한 제7지역 선거구에는 공화당의 韓丙起, 신민당의 咸鍾贊, 국민당의 李星逸, 대중당의 李譖洙, 통일사회당의 金應三 등 5명이 맞붙었다. 개표 결과 공화당의 韓丙起 후보가 3만 8,957표를 얻어 차점자를 8,484표차

로 크게 이겨 당선되었다. 차점자인 신민당의 咸鍾贊 후보는 3만 509표였고, 대중당의 李譖洙 후보는 457표, 통일사회당의 金應三 후보 349표, 국민당의 李星逸 후보는 137표에 머물렀다.

제7지역 선거구에서는 총 8만 7,378인의 유권자중 82.4%인 7만 2,008인이 투표에 참가했다.

〈제8대 국회의원선거 득표상황(제7지역)〉

성명	연령	본적	소속	학력	득표수	비고
韓丙起	39	강원	공화당	미해어업힌스대학원	38,957	당선
咸鍾贊	48	"	신민당	고려대 졸	30,509	차점
李星逸	35	서울	국민당	함백문천농전	137	
李譖洙	35	강원	대중당	전국대.졸	457	
金應三	34	"	통사당	춘천대.졸	349	

### 자. 제9대 국회의원 선거

10월 유신 이후 1973년 2월 27일 실시된 9대 국회의원 선거법의 개정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강원도내 선거구는 종전의 9개구에서 5개 선거구로 조정되었고, 1개 선거구에 최고득점자 1인만 당선자로 했던 선거방식이 1구 2인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당선자도 종전의 9인에서 10인이 되었다. 또 지역구 146석의 반수인 73석의 維新政友會(약칭 維政會) 가 신설되었다.

강원도내 5개선거구에는 공화, 신민당을 비롯한 총 22인이 입후보, 평균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화당은 제5선거구에 복수 공천자를 내는 등 6명, 신민당 5명, 민주통일당 4명, 무소속 7명이 등록을 마쳤다.

개표결과 도내의석 10석인 공화 5명, 신민 3명, 무소속 2명이 당선됐다. 도내유권자 83만 5,936인의 80.7%인 67만 4,595인이 속초

시가 속한 제4선거구는 총 10만 7,266인의 86.1%인 9만 2,327인, 속초시는 2만 8,144 인의 86.2%인 2만 4,254인이 각각 투표에 참가했다.

공화당은 5개 선거구에서 모두 당선자를 냈고, 신민당은 제2(원주), 제3(강릉), 제5(영월) 등 3개 선거구에서 제1, 제4선거구에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다.

전국적으로는 공화 73인, 신민 52인, 민주통일당 2인, 무소속 19인이 지역구에서 유정회 73명을 합쳐 원내에서 3분의 2의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1구 2인 당선에 따라 공화당은 대·중도시에서도 고른 당선자를 내었다. 제4선거구는 종전의 속초, 고성, 양양 등 3개 시군에서 인제군이 추가된 1시 3군으로 확대되었다.

속초가 속한 제4선거구에는 공화당의 丁一權, 신민당의 金鍾浩, 무소속의 金寅起 등 세

〈제9대 국회의원선거 득표상황(제4지역)〉

성명	연령	본적	소속	학력	득표수	비고
丁一權	58	서울	공화당	대.졸	57,994	당선
金鍾浩	54	양양	신민당	대.중.퇴	14,086	
金寅起	51	서울	무소속	대.졸	18,491	당선

후보가 맞붙은 3파전을 벌였다. 개표결과 공화당의 丁一權 후보가 상대방 후보를 3배 이상 앞선 5만 7,994표를 얻는 압승을 거두었고, 무소속의 金寅起 후보가 1만 8,491표를 얻어 차점당선의 영예를 누렸다. 신민당의 金鍾浩 후보는 1만 4,086표를 얻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하는 維政會의원으로는 金在淳, 金振晚, 咸鍾贊, 咸在勳, 朴貞子, 金玉子 등 6명이 1기에 진출했고, 2기에는 崔宇根, 宋孝淳, 朴貞子 3인만 포함되었다.

#### 차.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유신 2기에 해당하는 10대의원 선거는 12월 12일 실시되었다. 도내 5개 선거구에는 공화·신민·양당에서 각각 5명씩과 민주통일당 3명, 무소속 17명 등 총 30명이 입후보하여 3대 1의 경쟁을 보였다.

선거결과 총 유권자 92만 2,254인의 74.8%인 78만 2,147인이 투표한 가운데 공화당 5명

신민당 3명, 무소속 2명의 당선자를 냈다. 정당별 득표율은 유효투표 77만 1,325표 중 공화당이 39%인 30만 1,503표, 신민당이 19%인 14만 6,719표, 무소속이 7%인 5만 4,165표를 각각 얻었다.

속초시가 속한 제 4 선거구는 공화당의 丁一權, 신민당의 許景九, 무소속의 朴敬遠, 咸鍾贊, 金琦煥, 李譖洙 등 6인이 입후보했다.

개표결과 공화당의 丁一權 후보가 총 5만 8,251표를 얻어 대승했고 무소속의 咸鍾贊 후보가 1만 1,779표를 얻어 나란히 당선되었다. 무소속의 朴琦煥 후보 1만 789표, 신민당의 許景九 후보 1만 258표, 무소속의 李譖洙 후보 3,991표, 金琦煥 후보 1,551표였다.

속초시내에서는 丁一權 후보 1만 4,249표, 咸鍾贊 후보 1,768표, 朴敬遠 후보 4,172표, 許景九 후보 2,057표, 李譖洙 후보 743표, 金琦煥 후보 302표였다.

維政會의원으로는 宋孝淳, 崔宇根 등 3인의 도출신이 포함되었다.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득표상황 (제 4 지역)〉

성명	연령	본적	소속	학력	득표수	비고
丁一權	61	서울	공화당	옥스포드대수학	58,251	당선
許景九	36	인제	신민당	고려대 졸	10,258	
金琦煥	57	서울	무소속	日中央大卒	1,551	
朴敬遠	57	"	"	건국대 졸	10,789	
李譖洙	39	양양	"	전대대학원	3,991	
咸鍾贊	55	"	"	고려대 졸	11,779	당선

#### 타.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제5공화국의 정치주역을 뽑는 11대 선거는 1981년 3월 25일 실시되었다. 강원도내 선거구는 1개구가 늘어난 6개선거구로 개편되었고, 속초시는 고성, 인제, 양구군과 함께 제5선거구가 되었다. 종전의 구역중 양양군이 떨어져 나간 대신 양구군이 편입되었다. 구정·치인들의 정치규제로 신진세력이 대거 등장한 선거이다. 도내 6개 선거구에는 민정, 민한당에서 각 6명씩과 민사당 4명, 한국국민당 6명, 민권당 4명, 신정 2명, 원일민입당 1명 등 7개정당에서 31명이 입후보,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개표결과 유권자 94만 7,977명의 88%인 83만 4,253명이 투표, 민정 6명, 민한 4명, 국민당 2명이 당선되었다. 도내 정당별 득표율은 유효투표 총수 82만 5,759표 중 민정당이 45.8%인 37만 8,872표, 민한당이 22.3%인 18만 4,800표, 국민당이 17.3%인 14만 3,141표를 각각 얻었다.

속초시가 속한 제 5 선거구에는 민정당의 鄭在哲, 민한당의 許景九, 국민당의 金俊教, 무소속의 金應祚, 金應三 등 5인이 입후보했다. 개표결과 민정당의 鄭在哲 후보가 차점자보다

## 역대 국회의원 선거

3배 가까운 5만 4,767표를 얻어 대승했다. 차점자인 민한당의 許景九 후보는 1만 9,597표를 얻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무소속의 金應祚 후보 8,888표, 金應三 후보 7,684표, 金俊教

후보가 4,808표를 각각 얻었다.

전국구 의원으로는 민정당 1지구 조직책이었던 李敏燮이 당선되었다.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득표상황 (제5지역))

성명	연령	본적	소속	학력	득표수	비고
鄭在哲	53	고성	민정당	동국대 졸	54,767	당선
許景九	39	인제	민한당	하와이주립대학	19,597	당선
金俊教	55	서울	한국국민당	육군대졸	4,808	
金應祚	72	고성	민권당	"	8,888	
金應三	46	강원	민사당	춘천대 졸	7,684	

### 카.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제5공화국 출범 이후 두 번째인 제12대 국회 의원을 뽑는 총선거는 1985년 2월 12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개표결과 총의석 276석 (전국구 포함) 중 민정당이 과반수선을 넘은 147석, 신민 67석, 민한 35석, 국민 19, 신사·신민주 각 1석, 무소속 4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2총선결과는 제1야당이었던 민한당이 퇴조하고 창당 1개월도 안되는 신민당(신한민주당의 약자)이 신당바람을 타고 제1야당으로浮上했다는데서 與野를 가릴 것 없이 경악과 좌절, 충격을 안겨 주었다.

특히 신민당은 총선거후 배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金泳三, 金大中の 주도로 민한당 당선자를 대거 영입, 민한당을 사실상 와해시키고 총의석 1백석을 넘는 원내세력을 확보해 또 한번 政街에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신민당은 갑자기 비대해진 뒤에 각 계파간의 불협화음을 극복하지 못해 민한당영입자

중 일부가 이탈, 新保守會를 구성하는 바람에 큰 상처를 입기도 했다. 2·12선거에는 전국 유권자 2,398만 7,830명중 2,029만 57명이 참가, 84.6%의 투표율을 보였다.

속초시가 속한 제5지역구(속초, 고성, 인제, 양구)는 민정당의 정재철 후보가 득표율 58.8%를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민한당의 許景九 후보는 11대때보다 3천여표 많은 2만 3,226표를 얻어 또 다시 차점 당선되었다. 신민당의 崔正植 후보는 득표수에서 속초에서는 민한당의 許후보를 늘렸으나 인제, 양구에서 열세에 놓여 낙선하였다.

제5지역구에서는 민정의 鄭在哲, 민한의 許景九, 신민의 崔正植 등 3명만이 입후보, 鄭在哲 6만 2,030표, 許景九 2만 3,226표, 崔正植 1만 8,266표를 각각 얻었다. 재선된 鄭在哲 의원은 총선거 직후인 1985년 2월 19일 改閣때 政務長官에 임명되어 2년간 각료생활을 하기로 했다.

(12대 총선거 득표상황 (제5지역))

시군명	선거인수	투표인수	투표율	정재철	허경구	최정식
속초	41,618	39,817	95.7	32,323	6,785	10,022
고성	28,965	25,485	88.0	15,705	5,387	4,012
인제	26,139	23,401	89.5	13,330	7,185	2,351
양구	18,806	16,688	88.7	10,672	3,869	1,881
계	115,528	105,391	91.2	62,030	23,226	18,266

## 파.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제 6 공화국 출범후 소선거구제로 전환되어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는 88년 4월 26 일 299명의(전국구 포함) 새 선량을 선출하였다.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는데 실패하고, 제3당이던 평화민주당이 제 1야당으로 부상되었으며, 당에 따른 지역 편

중이 심화되고 신구교체가 두드러지는 등의 특이한 현상을 보였다.

강원도는 모두 14개의 선거구로 분류되었는데 속초시는 고성군과 한데 묶여 제 13 지역

구에 편입되었다. 민정당의 정재철 후보와 민주당의 최정식 후보, 단 두 명만이 출마한 가운데 총유권자 71,919명 중 59,533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득표율 53.5%로 야당 후보인 최정식씨가 집권당의 중견 현역의원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강원도는 속초시 말고도 강릉, 삼척, 원성 등이 야당의원을, 동해와 태백이 무소속 의원을 배출함으로써 여당 아성이라는 신화를 깨다.

〈제13대 총선거 득표상황 (제13지역)〉

시 군 명	선거인수	투표인수	투 표 율	정 재 철	최 정 식
속 초	43,002	35,208	81.9	14,966	19,768
고 성	28,917	24,325	84.1	12,331	11,627
계	71,919	59,533	82.8	27,297	31,395

〈속초시 동별 득표현황〉 (부재자 1,380 장사동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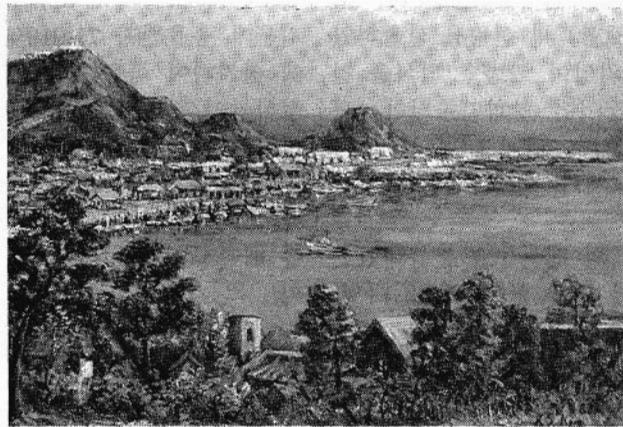
후 보	영 랑	동 명	중 앙	금 호	청 학	교 동	노 학	조 양	청 호	대 포	도 문	설 악	장 사	계
정재철	1,214	1,621	1,092	1,538	1,095	2,306	493	1,324	1,119	670	571	444	1,479	14,966
최정식	1,420	2,314	1,838	2,297	1,531	3,664	769	1,839	1,292	585	469	564	1,186	19,768

역 대 국 회 의 원 명 단

역대별	선 거 일	성 명	지 구 별	비 고
1	1948. 5. 10		未 收 復	
2	1950. 5. 20.		"	
3	1954. 5. 20.		"	
4	1958. 5. 2.	이 동 근	양양군 (속초읍 포함)	
5	1960. 7. 29.	함 종 빈	"	
6	1963. 11. 26.	金 鍾 浩	속 초, 고 성, 양 양	
7	1967. 6. 8.	"	"	
8	1971. 5. 25.	韓 丙 起	"	
9	1973. 2. 27.	丁一權, 金寅起	속초, 고성, 양양, 인제	
10	1978. 12. 12.	정일권, 함종빈	"	
11	1981. 3. 25.	정재철, 허경구	"	
12	1985. 2. 12.	鄭在哲, 許景九	"	
13	1988. 4. 26.	崔 正 植	속 초, 고 성	

(이글 내용중 일부는(고성군발행:1986년판)에서 발췌 수록한 것입니다).

## 표지의 말



命題“束草港”(72.7cm×60.6cm)

83년 10월의 어느날 속초감리교회 언덕에서 내려다 본 동명항구다. 작은 배들이 꽤 많이 닻을 내리고 있다. 부두에서는 소란스럽겠지만, 이곳 언덕에는 고요한 적막마저 감돈다.  
바람결에 흘로 귀향하는 똑딱배의 소리가 간간히 들릴뿐이다.  
수시로 변하는 바다의 색깔, 눈을 가리는 푸른나무의 처리 등, 그리고 지우기를 몇번인가 거듭한 驥作이다.  
지금은 항구공사가 진척돼 옛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런대로 속초를 생각나게 하는 풍경임에는 틀림없으리라.



## 金光秀

- 咸興師範(44) 平壤美大(50)
- 한국전시미술대상전銅賞(79)
- 한국현대미술대상전特別賞(81)
- Asia現代美展招待 韓國代表團長(83. 日本87)
- 江原道展(80, 82) 咸南道展招待(80~87)
- 韓國美術協會展(84~87. 國립현대박물관)
- 外遊(83. 日本, Europe, 87. 日本)
- 個人展 4回(서울덕수미술관외)
- 現 中央美術學院長
- 束草市 校洞 482-280 T. 32-8022, 8322

# 現場을 찾아서



# 국립공원 설악산(4)

## 계조암 庭園



박익훈 / 교육자

### 기억해 둘만한 刻字

계조암 부근 바위에는 飛仙台 못지않게 수많은 刻字들이 있는데 첫눈에 뜨이는것이 용암에 새겨져 있는 “繼祖庵”이라는 큰 글자다.

이 刻字에 대한 記錄으로는 襄陽邑誌(舊峴山誌)에 “……石窟號 三字刻 尹判書淳筆”이라고 쓰여 있다.

즉 “계조암”이란 큰 세 글자는 판서 윤순이 썼다는 것이다.

윤순은 英祖때 文臣으로 호는 白下。 당시 이름난 書藝家로서 文徵明의 書體를 닮았으나 글씨는 오히려 그보다 더 잘 썼다 한다.

그 岩面에 “朴趾源”이란 이름도 눈에 뜨인다. 筆者는 그 이름을 볼 때마다 微笑를 짓게 된다. 이분이야 말로 庶民大衆의 아낌을 받는 庶民兩班이라 할 수 있다. “양반전”이란 漢文諧謔 小說을 써서 양반들을 讽刺하였다 하여 동료 양반들로부터 곤욕을 당하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듯 소탈한 그의 庶民性에 애착이간다.

아마 양양부사로 있을때 이곳을 다녀간 것 같다.

### 李大統領 刻字

계조암 앞에 “마당바위”라는 넓은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가하면 1m 간격으로 “李大統領”이란 큰 글자가 隱刻되어 있다. 이 글자에 대하여 두가지 설(說)이 있다.

하나는 6.25 당시 虎林部隊가 설악산에 주둔하고 있을때 새겼다는 설이고, 또 하나는 왜정 말기에 새겼다는 설이다.

前者에 대하여 “열토당토 않는 소리”라고 분개한 金鍾權氏는 단기 4288년(1955년) 12월 9일자 東亞日報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 있다. (이분은 (김종권) 이 고장 강현면出身으로 이 方面에 조예 (造詣)가 깊은 鄉土史學者요 전



국적으로 이름난 지학자이며  
三國史記 등 많은 古書를 우리  
말로 번역하기도 했다)

동아일보에 실린 그 기사내  
용을 간추려 보면,

신흥사 계조암의 庭園인  
마당바위에는 約 30년전(지금  
부터는 60여년전) 부터 “大  
統領”이란 珍貴한 刻字가 있  
었다.

이는 지난 11月 中旬 各 紙  
上을 통하여 그 刻字 사진까  
지 報道되어 무한이 기뻤는데  
그 사실이 誤傳이 後世에 重  
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믿고 그 由緒를 알고 있는 한사  
람으로서 良心의 衝動을 느껴 그 真正을 例證하려는 것이다.

이 刻字는 어느때 누가 어  
한 意趣로 創造한 것인가?

나는 이것을 時代, 人物, 作  
品으로 考察하여 지금으로 부  
터 약 30년전에 (1955년 현재)  
우리 民族代表 33人中의 한분  
이신 韓龍雲님이 3·1 精神의  
民族魂을 살리기 위하여 만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李大統領 就任後의 것이라  
면 논란의 여지도 없지만 이  
것이 倭政 때부터 있었다는 것  
을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왈가왈부(曰可曰否)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解放當時의  
新興寺主持 洪興雲氏와 地方  
有志 金振卿氏(前東草國民學  
校長 金振翼氏의 父親)들이  
최초로 이를 발견하였다.

그들의 말에 依하면 30여년  
전 (1955년 현재)에 있었는데  
倭政治下에서 秘傳되었고 8.

15 直後는 3·8선 以北이어서  
이 地域이 共產治下였으므로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하  
고 다만 自由를 그리워하는 사  
람들이 남몰래 이 刻字를 어

는 점이요,

네째로 民族思想面으로 보  
아 포악부도한 倭政治下에서  
이런 大膽無雙한 일을 生死를  
超越한 사람 아니고는 할 수

## 우리는 이 貴重한 자료를 無關心地帶을 돌려 야 옳은지 … 이곳을 찾는 觀光客들에게 눈길 이라도 돌릴수 있게하는 方法은 없는지…

루만지며 통일을 그리워 했다  
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이 偉大한 創  
造의 主人公이 누구인지 몰라  
의문속에 묻혀 있는 것을 나  
는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두  
고 여러面으로 考察하여 故韓  
龍雲님의 所致라고 主張한다.

그 理由로는 다음과같이 몇  
가지를 들어 例證한다.

첫째로는 發見者の 立證과  
時代性으로 보아 約 30년전(  
지금으로 부터 약 60여년전)  
倭政治下의 계조암, 新興寺主  
持가 韓龍雲 스님 이였으므로  
이와 因緣이 제일 가깝다는 점  
이요,

둘째로는 韓龍雲 스님이 新  
興寺에 남겨놓은 筆蹟과 筆體  
가 같고 특히 “統”字를 半字  
體로 썼다는는데는 몇곳에서 그  
예가 있었다는 점이요,

세째로는 그 당시 內外情勢  
로 보아 이 각자를 창조한 것  
이 3·1運動後 上海에 大韓民  
國臨時政府가樹立된지 5~6  
년 뒤였으니 당시 이러한 事  
實과 臨時政府 李承晚 博士가  
初代 大統領이었다는 것을 아  
는 분은 地方에는 稀少하였다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왜 倭政治下나 共產  
治下에서 여러사람들 눈에 뜨  
이지 않았나하면 글자 사이가  
1m나 되는데다가 여러 刻字  
들 사이에 숨겨져 있도록하였  
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주의해  
보지 않으면 눈에 뜨이지 않  
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刻字에 대하여 金鍾權氏  
自身이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氏는  
이미 故人이 되고 말았으니 哀  
惜한 마음 금할길 없다.

미국 어느 곳에 가니 南北  
전쟁때 쓰던 낡은 대포하나를  
두고 옛 戰跡地라 하여 觀光  
要員이 그 당시 戰況을 열심  
히 說明하더라는 이야기를 들  
었다.

우리는 이 貴重한 자료를  
無關心地帶로 돌려야 옳은지  
再考해 보고 싶다.

이 刻字에 심어져있는 韓龍  
雲님의 愛國心을 살려 보려는  
金鍾權氏의 지극한 丹誠도 添  
加되어 이곳을 찾는 觀光客들  
에게 눈길이라도 돌릴수 있게  
하는 方法은 없는지 아쉽기만  
하다.

# 雪嶽山 神興寺의 由來(4)



大韓佛教曹溪宗 第三教區 本寺  
神興寺 住持 金慧法(法博)

## (12) 한계령 (寒溪嶺)

구름 새로 햇빛 흘러 영마루에 비치고 비바람 조용히  
내려앉을 제 고갯마루 나무에 기대 있으니  
코 끝에 스쳐만 가는 향나무  
냄새.

한계령 (寒溪嶺)은 내설악 (內雪嶽)과 외설악 (外雪嶽)의 경계가 되는 영마루이며 인제군 (麟蹄郡)과 양양군 (襄陽郡)의 郡界가 되는 혐한 곳이다.

옛날은 이 寒溪嶺을 五色嶺이라고도 호칭하였다. 한계령 밑에 五色藥水터가 있으므로 그렇게 불렸다. 그러니까 지금 한계령의 國道 옆에

옛 도로 (舊道)가 간간히 보인다. 한계령에 올라서서 四方을 살피며 남쪽에 온갖 형상의 바위들이 섰고, 북쪽의 내설악의 풍치 또한 절묘하다.

## (13) 대승령 (大勝嶺)

대승령은 높이 1,210m의 다른 봉우리가 바로 옆에 있고 안산 (鞍山)인 길마산의 길마산 능선에 있는 영마루이다. 장수대에서 대승폭으로 대승폭에서 대승령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대승령에서 대승골계곡 (흑선계곡)을 따라 백담사 (百潭寺)로 나갈 수도 있다.

이 대승령은 설악산의 서북에 위치하는 영이므로 매우 경치가 좋은 곳이기도 하다. 또한 12선녀탕쪽에서 올수도 있다.

더욱 이 영마루는 한계리, 자양전 (紫陽田) 방향에서 내설악 깊은 골짜기로 들어 가는 첫 능선 (稜線) 고개인 것이다. 내설악의 심산유곡 (深山幽谷)을 잘 나타낸 영마루이기도 하다. 이 고개에서 백담사로 가자면 약 4시간이나 소요된다.

## (14) 백담사 (百潭寺)

백담사는 新羅 真德女王 元年 (647)에 慈藏律師가 創建하였다. 創建當時는 절 이름

이 백담사가 아니고 寒溪寺라 하였다. 즉 寒溪寺는 百潭寺의前身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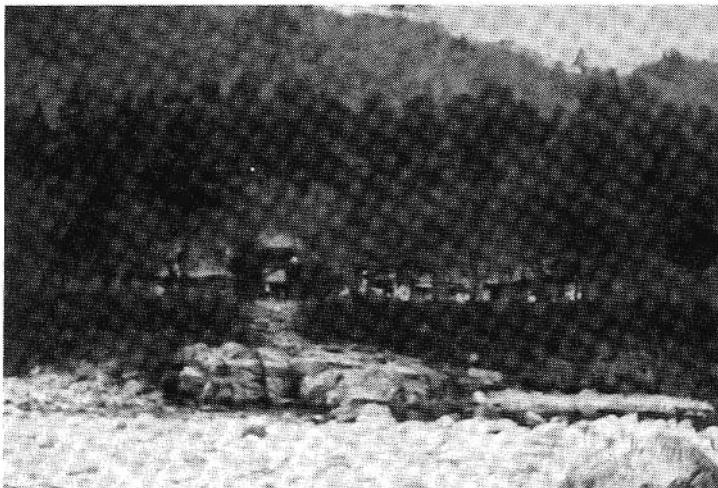
처음 한계사를 建立하였을 때는 미타불상 (彌陀佛像) 삼위 (三位)를 奉安하였다. 그후 43년이 지난 神文王 10년 (690)에 불타버리고 그후 다시 聖德王 8년 (719)에 重建하였다. 元聖王 元年 (785)에 또 불타버렸다.

그러다가 元聖王 6년 (790) 사승 (寺僧), 종연 (宗演), 각동 (覺洞), 영조 (靈照), 광학 (廣學), 설흡 (雪洽), 법찰 (法察) 스님등이 이곳을 떠나 30里 지점에 寺刹을 세우고 이름을 운흥사 (雲興寺)라 改稱하였다.

그러나 그 운흥사 터도 어느새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 옛터가 연현 (淵峴)에 있다.

이 운흥사가 자리잡았던 곳은 경치가 매우 좋다. 뒤로는 『범바위』를 비롯한 세 봉우리가 솟아있고 西東쪽 方向에 『주걱봉』이 보이고 밑으로 寒溪 냇물이 흐르고 있다. 『양반바위』니 『송곳봉』이니 하는 봉우리가 이곳 부근에 있다.

歲月이 흘러 雲興寺는 高麗 成宗 3년 (甲申 984)에 變으로 因하여 없어졌다. 成宗 6년 (丁亥 987)에 寺僧 洞薰, 俊



熙等이 옛터의 北쪽 60里 地點에 다시 옮겨서 세워 雲興寺를 深源寺라 改稱하였다. 그러던 深源寺가 李朝時代로 들어와 世宗 14年(壬子 1432)에 다시 불타 버리니 世宗 16年에 寺僧인 해섬(海遲), 취옹(翠雙) 스님 등이 30里 地點에 새로 세워 선구사(旋龜寺)라 하였다. 그후 9年만에 불타고 다시 4年만에 옛 터 西쪽 10里 地點에 영취사(靈鷲寺)를 세웠다. 그후 世祖 元年(丙子 1456)에 다시 재화를 입고 그 이듬해 丁丑年에 寺僧 재익(載益), 재화(載和), 신열(愼悅) 스님 등이 옛터의 윗쪽 20里 地點에 절을 세우고 百潭寺라 改稱하니 百潭寺의 이름은 이때 부터 시작되었다.

이 百潭寺도 여러번의 곡절을 겪다가 英祖 46年(壬辰 1772)에 또 불타고 그로 부터 다시 3年후에 최봉(最麟) 태현(太賢) 스님 등이 힘으로 절을 또 세우고 절 이름을 심원사(尋源寺)라 하였다. 그

러나 正祖 7年(1783)에 다시 百潭寺라 改稱하였다.

그런 歷史를 되풀이한 百潭寺는 1915年(乙卯年)에 160余間이 또 불타버리고 지금의 百潭寺建物은 그 4年後인 戊午年(1918)에 印空禪師가 세웠다. 그러나 6·25動亂으로 다시 燒失되어 1957年에 다시 重創한 것이다. 百潭寺는 이렇듯 곡절이 많으나 雪嶽山의 名刹이다.

그리고 口傳에 의하면 절이 계속 화재로 소실 폐허되므로 이름을 고쳐 보려고 애쓰던 중 주지스님의 꿈에 白髮老人이 신비스럽게 나타나 청봉에서 지금 절까지의 담(潭)을 세어 담이 100개되는 곳에 절을 건립하면 三災(水火, 風)을 免하리라 하여 현 위치에 건립한 것으로 潭字는 水氣를 강하게 막을수 있다하여 百·潭·寺라 改稱하였다 한다.

百潭寺의 긴 歷史는 受難의 歷史다. 거듭되는 失火와 寺名의 改稱, 그리고 자리를

옮겨짓기 수차례, 이것이 百潭寺의 歷史다. 그러나 수난의 歷史를 끈질기게 지켜 近代의 榮光을 이끌었으니 萬海 韓龍雲 스님의 배출이 그 것이다.

이제 百潭寺가 그 어느 寺刹에 비해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좋은 것은, 아니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은 수난반년 어두운 時代에 萬海 스님이라는 한 등불을 내어 놓았기 때문이다.

萬海스님의 本寺인 百潭寺는 萬海思想의 故鄉이다. 萬海스님은 그의 “佛教維新論”과 “十玄談註解” 그리고 “님의 沈默”을 이곳 百潭寺에서 内雪嶽의 바람소리와 물소리를 들으면서 執筆했기 때문이다. 萬海스님의 生涯를 紹介하면 좋겠으나 紙面事情으로 중요한 줄거리 몇 구절만 소개하기로 한다.

그의 나이 39세되던 1917년 겨울 雪嶽山 五歲菴에서 좌선중 바람이 불어 무슨 物件인가를 떨구는 소리를 듣고 의심하면 마음이 씻은 듯이 풀렸다고 한다. 음력 선달 초사흘날 밤의 일인데 그 내용의 詩 한토막을 이에 적어본다.

男兒到處是故鄉  
幾人長在客愁中  
一聲喝破三千界  
雪裡桃花片片紅

『남아란 어디메나 고향인 것을 그 몇 사람 客愁 속에 길이 갇혔다.

한 마디 버럭 질려 三千世界  
뒤흔드니 눈 속의 복사꽃 불  
게 흘날리누나.』

그리고 1919年 새 봄은 남  
다른 뜻을 품은 萬海 스님에  
게 바쁜 날들이었다.

崔麟, 玄相允氏 等을 만나  
獨立運動을 議論하기 始作했  
던 것이다. 萬海 스님은 崔南  
善이 基礎한 “獨立宣言文”에  
『最後의 一人까지 最後의  
一刻까지 民族의 정당한 意思  
를 快히 發表하고 光明正大  
하게 行動할 것』을 다짐하  
는 公約三章을 덧붙였다. 그  
리고 그는 3月 1日 泰和館에  
서 民族의 獨立을 發言할 때  
에도 그 곳에 모인 33人을  
代表하여 다음과 같은 演說  
을 했다.

『여러분, 우리는 民族을 代  
表해서 한 자리에 모여 獨立  
을 發言했습니다. 기쁘기 限  
이 없읍니다. 이제는 죽어도  
限이 없읍니다. 그러면 다 함  
께 獨立萬歲를 부릅시다.』

萬海스님이 3·1運動에 있  
어서 가장 重要한 役割을 담  
당한 人物이었음은 어느 누구  
도 否認하지 않는다. 이때문  
에 그는 3年的 獄苦를 치려  
야 하기도 했다.

1919年 7月 10日 日帝檢事  
의 訓問에 대한 答辯으로 基  
礎하여 提出했던 “朝鮮獨立  
의 書” (“朝鮮獨立理由書”) “  
朝鮮獨立에 대한 感想” 等으  
로 불리우기도 했다)는 當時  
우리 나라의 思想潮流는 물  
론 그의 獨立思想을 明快하  
게 드러낸 것이었고 당시에

發表된 여러가지 獨立宣言文  
中에서도 가장 잘 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萬海스님은 그렇게 念願하  
던 祖國의 光復을 보지 못한  
채 城北洞의 尋牛莊에서 入  
寂했다.

光復의 時機이 터오면 44  
년 5월 9일이었다. 茶毘를 거  
친 遺骸는 망우리의 공동묘  
지에 安葬되었다. 萬海 스님  
自身의 말처럼 分明 “壽命은  
時間이 아니라”면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民族의 가슴에  
꺼지지 않는 불씨로 살아 있  
는 것이다.

#### (15) 구유소(槽沼)

大勝谷(골)의 구유소는 이  
름이 높다. 큰 바위의 단애(斷崖)  
밑으로 흐르고 떨어지는 물은 마치 “말구유”와 같  
다 하여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다. 盤石의 斷崖와 흐르는  
물이 “말구유”와 같으며 (如  
馬槽) 이런 仙山에 天馬를 먹  
여 이곳의 물을 마시게 하였  
는지는 모를 일이다. 구유소  
의 가을 단풍(丹楓)의 풍경  
은 너무나 좋으며 간(諫)의  
애사(哀史)가 담겨 있다. 李  
朝肅宗 15年(1689)의 일이다.  
이 해는 나라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저 有明한 장희빈  
(張嬉嬪) 사건이 터진 것이다.

肅宗의 正妃인 仁顯王后 閔  
氏에게는 王子가 없고 숙원  
장씨(淑媛張氏)가 숙종 14년  
(1688) 9월에 王子를 낳았다.  
肅宗이 張嬉嬪에게 혹해지자  
西人들이 숙종을 간(諫)하였  
다. 숙종 15년 정월에 肅宗

은 장희빈 소생을 世子로 책  
봉하려하자 영의정(領議政)  
김수홍(金壽興)을 비롯하여  
김수항(金壽恒), 송시열(宋  
時烈) 등 중신이 反對하였다.  
領議政 金壽興 같은 분은 “世  
子를 가르치는 문제가 급하  
지, 世子 책봉문제가 급하지  
않다”고 金壽恒과 함께 반대  
하니 숙종은 숙원장씨 소생  
을 王世子로 책봉하고 숙원  
장씨를 회빈(嬉嬪)으로 봉하  
였다. 이에 西人們이 들고일  
어나니 숙종은 경노하여 金  
壽興을 비롯하여 金壽恒, 宋  
時烈을 귀양 보내었다.

이때 金壽恒이 관작(官爵)  
이 삭탈(削奪)되니 그해 2월  
의 일이었다. 윤3월이 되자  
金壽恒은 王命에 의하여 사  
사(賜死) 되었다. 이때 宋時  
烈은 제주도에 귀양가 있었  
는데 그해 6월에 역시 사사  
(賜死) 되었다. 이때 金壽恒  
의 아들 삼연(三淵) 김창흡  
(金昌翕)은 세상과 因緣을 끊  
고 雪嶽山의 이곳을 찾아 山  
水를 즐기고 永遠히 세상에  
나가지 않을 것을 맹서(盟誓)  
(永不出世爲誓)하였다. 그래  
서 이곳에 정사(精舍)를 짓  
고 영원히 盟誓한다는 뜻에  
서 영시(永矢)라는 名稱을 붙  
이게 되었다. 삼연 김창흡 선  
생은 아버지 김수항의 영(靈)  
을 위해 아침 저녁으로 山川  
神靈님에게 祈禱를 드렸고 누  
른 잎이 물들었을 때는 만산  
홍엽(滿山紅葉)의 절경을 이  
룬다.

## (16) 영시암지(永矢庵址)

영시암(永矢庵)은 남쪽에 조원봉(朝元峰)이 솟아 있고 서쪽에 청룡봉(青龍峰)이 보이는 아담한 수림(樹林)사이에 싸여있는 이름높은 암자(庵子)이다. 이 영시암의 내력은 살펴보면 슬픈 사연이 스며있고 더욱 孝心이 지극한 한인이 恨을 드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變化하는 山色을 바라보며 눈물로서 세월을 보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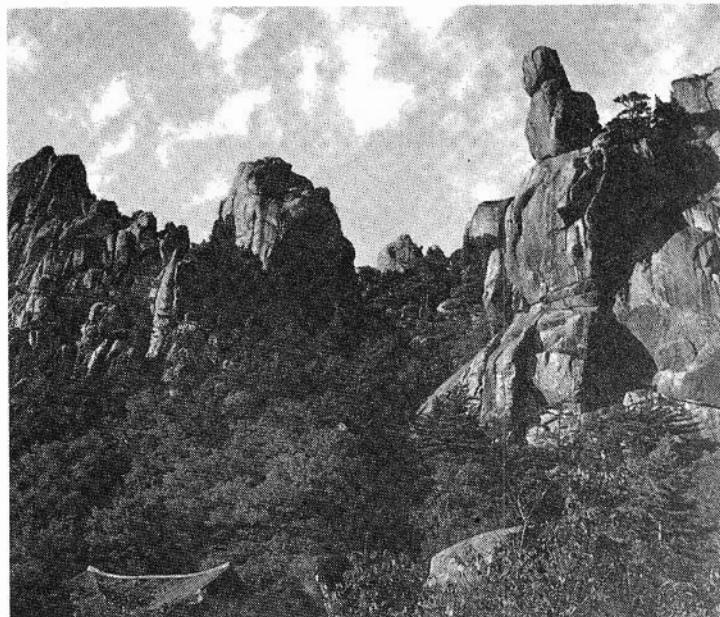
三淵 金昌翁先生의 詩句에

투로설산중(投老雪山中)

성시영시암(成是永矢庵)

이라는 글귀를 읽을 때마다 그 당시의 三淵先生의 애끓는 슬픔에 젖기도 한다. 그후 歲月이 흘러 이 精舍는 황폐하여 가시덤불에 파묻히고 말았다. 그후 雪淨禪師가 애석하게 생각하여 위로는 判書와 江原道觀察使와 의논하고 평소에 三淵 金昌翁先生과 친한 人事들을 찾아 施主로 받들어 이곳에다 다시 精舍를 지어 서비스려운 부처님을 모셨다. 암자의 크기가二十四間이나 되고 碑閣이 있었다. 그후 二百數十年이 지나 1925년 乙丑年에 기호스님이 重修하였으나 6·25동란에 불타버리고 지금은 그 자리만 남아 있으니 옛 三淵 金昌翁先生의 서려운 뜻이 다시금 회상된다. 지금 三淵先生의 遺蹟碑가 남아있을 뿐이다.

## (17) 봉정골(鳳頂谷)의 구곡담(九曲潭)



九谷潭은 双龍瀑 가운데 左 편에 있는 것을 보통 부르기를 女瀑 즉 암폭(雌瀑)이라 한다. 이곳을 지나서 上流 凤頂庵이 있는 곳을 凤頂谷이라 부른다. 구곡담 가운데 첫째의 담(潭)은 그 形態가 方圓瀑이다. 그래서 이 방원폭은潭이 울창한 폭포가 아니다. 이름그대로 구곡담이면 아홉의 폭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방원폭인 첫째 담 이외는 그 명칭이 없다. 다만 둘째번 셋째번 담이라고만 해아린다. 그 다음으로 올라가면 넷째 담이 있다. 이때 左 편쪽에 보이는 바위가 흡사 사자(獅子)풀을 한 사자암(獅子岩)이 보인다. 수천 수만년간에 풍화작용에 형성된 이 사자암은 맹수같은 자태를 나타낸 바위이다.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의 담을 지나 第9曲

潭에 이르게 되면 겨우 숨을 들려 주위의 풍경을 바라 볼 수가 있다. 오른편으로 눈을 돌리면 큰 들의 계단같은 곳이 보인다. 이것을 백단의 둘 층계라 하여 百段台라고 부른다. 여기서 들리는 것은 끝 없이 들려오는 물소리뿐이다. 한폭의 南畫풍경이 눈앞에 전개되니 마음은 자연의 神秘에 감싸이기만 한다. 深山幽谷의 妙景은 山色이 清淨함에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다.

## (18) 봉정암(鳳頂庵)

봉정암(鳳頂庵)은 新羅의 名僧 慈藏律師가 唐나라에서 돌아온 新羅善德女王 6年에 慈藏律師에 의해 創建되었다. 이 암자를 創建할 때 慈藏律師는 암자의 서쪽 石台 위에 唐에서 釋迦世尊의 舍利를 奉安하여 5層塔을 세웠다. 慈



藏律師가 道場을 찾을 때 하늘에서 봉황이 내려와 자리 를 정해 주었다 한다. 그런 후 신라의 高僧 元曉大師가 다녀가고 高麗 高宗때 名僧

普照國師가 고종 13年 (1226)에 重修하였다. 이어 이조시대 中宗 13年 (1518) 幻寂스님의 重修하였으며 仁祖 10년 (1633)에 雪淨스님이 다시 重

修하고 그후 幻空, 睡山(수산) 스님들이 차례로 補修하였다. 鳳頂庵은 우리나라 庵子 가운데 가장 높은곳에 있는 庵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山勢가 氣高萬丈한 곳이니 怪岩奇峰이 병풍처럼 庵子를 둘러싸고 있어 한 마디로 表現하기는 어려운 神秘鏡이다. 가장 장대하고 巨岩中에 聖者로 보이는 봉우리를 釋迦峰이라 한다. 그야말로 수천 수백 척의 높이임으로 聖者峰이라 할 만하다. 鳳頂庵을 한 가운데 두고 오른편쪽 동쪽에 솟아있는 峰이 頸麟峰, 할미峰, 범 바위등이고 절 뒷편 왼쪽의 峰이 獨聖羅漢峰, 地藏峰, 가섭봉(迦葉峰, 阿離峰) 등이 솟아 있다. 이 庵子가 있는 溪谷의 이름이 鳳頂谷이다.

『鳳頂庵들에 서서 四方을 둘러보니 구름 밖에 峰이요 峰 밖에 하늘이라 아마도 雪嶽장관은 여기뿐인가 하노라.』

直興詩가 나을 정도의 勝景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니 알피니스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다.

※以外의 名所와 五藏庵은 다른號로 이루기로 한다.

# 내고장의 옛地名



# 내고장의 옛地名

김명환 / 강원일보 교열부장

영북(嶺北) 지방 제1항도인 속초(束草)는 ‘속진’(束津) ‘속새’ 등의 이름을 가졌다.

양양군에 속해있던 속초는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만천동(萬千洞) ‘우령골’을 병합, 양양군 도천면 속초리였다.

이 때문에 현재의 대포동(大浦洞)인 대포항은 있었어도 속초항은 지도에 없었다.

1942년 속초읍 동회제 실시 때 속초 1, 2, 3, 4 구를 두었다가 6·25 동란 후에 3구의 일부를 떼어 6구로 넓혔고 1966년 1월 동제(洞制) 실시 때 1구를 영랑(永郎), 2구를 동명(東明), 3구를 청학(青鶴), 4구를 금호(琴湖), 5구를 청호(青湖), 6구를 교동(校洞)으로 나누었다.

속초의 지형은 와우형(臥牛型)으로 누워 있는 소가 풀단 모양의 초도(草島)의 여물을 먹고 일어나는 힘찬 미래 지향적 도시가 된다.

속초 앞바다의 초도에는 풀과 소나무가 무성해 이용(李龍)씨가 강원도지사로 재직 시 정자를 짓고 자신의 이름 용(龍)자와 섬 이름 초(草)자를 따서 용초정(龍草亭)이라 이름했던 일로 ‘용초도’란 이름도 있다. 현재 정자는 헐리고 조그마한 등대만 서 있다.

속초의 남쪽 관문인 대포동(大浦洞)은 ‘득재’(蹙峙) 아래 나루가 있어 ‘옹진’(甕津)이라 했다가 조선조 성종 21년(1490) 강릉 안인포(安仁浦)에서 대포영(大浦營)이 옮겨와 대포로 고쳤다. 그러나 대포란 이름은 큰포구이었기 때문이며 큰고기가 많이 잡히는 어구였으므로 예전에는 ‘한개’였을 것으로 추정 하기도 한다.

대포동은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마깍말’ ‘새깍말’ ‘청룡’ 등을 병합하여 대포리로 도천면에 편입, 1966년 속초시의 시제 실시 때 현재

의 동명이 됐다.

‘마깍말’은 벗사람들이 일컫고 있는 ‘마쪽’ 즉 ‘남쪽마을’의 방언으로 속초 남쪽에 자리잡은 동네이다. ‘새깍말’도 동쪽을 지칭하는 ‘새쪽’의 방언. 어부들이 동풍을 샛바람이라 하고 동북풍을 높새(바람)라 함도 같은 맥락의 어원이다. 이처럼 속초에는 벗사람들에 의해 지어진 마을 이름들이 있는데 특이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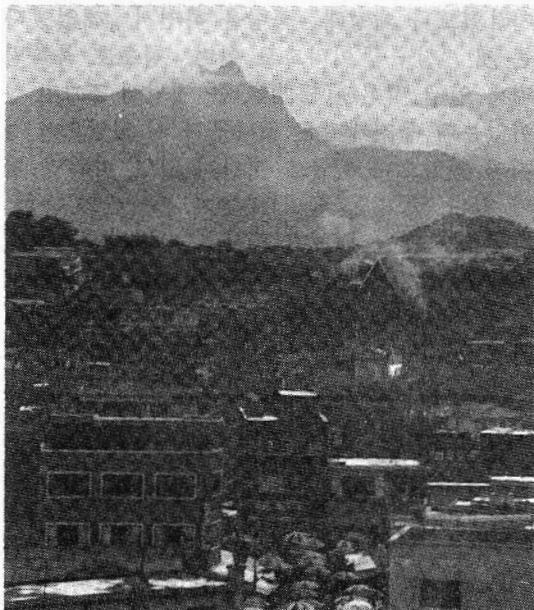
‘마산재’는 대포 북쪽에 솟아있는 산으로 말처럼 생겼다. 말산위의 ‘마성대’(馬城臺)는 옛 대포성(大浦城)이 있던 터가 있다. 이 성은 돌로 쌓은 석성(石城)으로 조선조 중종 15년(1520)에 쌓았던 것으로 높이가 12척 둘레가 1469척이었다.

대포 아랫마을을 ‘아랫말’ 위쪽을 ‘웃말’이라 하며 대포 북쪽 끝에 있는 마을을 ‘대포꼬댕이’라 한다. ‘꼬댕’이란 끄트머리의 강원지방 사투리이다. ‘솟돌바위’는 대포의 동쪽 축항너머에 있는 바위로 솟돌처럼 생겼다. 대포 남쪽 산모퉁이에 있는 마을이 ‘산두꾸미’, 북쪽 끝마을이 ‘제집골’인데 기와집이 많았다(지와집은 기와집의 방언. 지와집의 준말로 추정됨). ‘청룡’(青龍)마을은 대포의 청룡이 되는 산 아랫마을이며 ‘큰날기’는 서쪽 둔덕끝에 있는 들로 논이 많다(날기는 벼의 방언).

청룡 서북쪽의 ‘진등’은 산등성이가 길어서 붙여진 이름.

청룡 안에 있는 유물재비(渝沕齋碑)는 조선조 때 선비였던 물재(勿齋) 유일해(俞一海)가 아버지 묘에서 3년을 시묘하다가 죽어 인조(仁祖) 6년(1628년) 유수(留守) 홍봉조(洪鳳祚)가 이를 기려 세운 비.

물치(沕淄) 마을의 ‘물’자는 물에 잡긴다는



뜻이고, ‘치’는 마을이란 뜻을 담는다.

‘앞풀치’는 쌍천의 앞마을이어서 ‘내풀치’는 안쪽 마을이어서 부르게된 이름이나 예전에는 한 마을이었다고 한다.

물치의 유래는 조선조때 송시열(宋時烈) 선생이 함경도 덕원에서 경남 거제도로 유배되어 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 이곳 물치에 사는 정립(鄭笠)이란 농부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간밤에 내린 폭우가 온 마을을 쓸어 홍수가 지면서 강물이 불어남에 갈 길이 막히게 됐다. 이 때문에 송시열은 며칠을 더 머물렀다가 떠났다고 한다. 이때부터 마을 이름을 ‘물치’라 했다는 설과 송시열이 떠날 때 ‘물치’란 이름을 지어 주고 떠났다는 유래가 함께 전한다. 송시열을 섬겨오던 유일해는 송시열이 며칠 간 묵고 갔던 방을 자신의 서재로 꾸미고 호(號)도 물치에서 따온 물재(○齋)라 했다. 물치는 속초의 남쪽 관문 마을이 된다.

내풀치 아래쪽 산모퉁이에 있는 마을이 ‘아랫모퉁이’ 아랫모퉁이 남쪽끝의 바닷가에 우뚝 솟아있는 바위가 ‘선바위’인데 선바위는 사람이 서있는 형태여서 생긴 이름이다. 선바위 북쪽 ‘게바위’는 바위밑에 게가 많았다고 한다.

게바위 북쪽에 있는 ‘등글바위’는 모양이 등글어서, ‘가래고지바위’는 가래고지(바다에 사는 오리종류)가 잘 날아와 앉아서 붙여진 바위이름.

내풀치 남쪽 쌍천에 놓은 다리가 ‘쌍천교’인데 다리가 길다하여 ‘큰다리’로도 부른다.

옹치(甕峙)마을은 마을의 형태가 항아리(독)를 엎어놓은 형태인 옹치산에서 유래한다. ‘발독재’(外甕峙)는 옹치마을의 바깥마을이란 뜻이다.

설악산으로 들어가는 도문동(道門洞)은 1966년 1월 1일 속초시 동제실시때 상도문(上道門) 중도문(中道門), 하도문리(下道門)를 병합, 도문동이 됐다.

‘도통의 문’이 열렸다는 도문동은 신라때 설총(薛聰)의 아버지 원효(元曉)대사와 의상(義湘)대사가 양양군 강선면 강선리에서 신선의 안내를 받아 설악산쪽으로 가는데 이곳에 이르자 갑자기 숲속에서 맑고 우아한 곡(曲)이 들리자 무상무아(無常無我)의 불법을 아뢰는 듯하여 법장(法杖)을 멈추고 서있다가 갑자기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 신흥사로 들어가는 첫문이 된다.

상도문 동쪽의 ‘옹기점말’은 옹기점이 있었던데서 나온 마을이름이며 ‘토기점’(土器店)이라고도 한다. 옹기점말 북쪽에서 청대리(青笠里)로 넘는 재가 ‘싸리재’, 싸리재에는 싸리나무가 많아 그리 불렸으나 살인사건이 있고 부터는 ‘살인고개’로도 부른다.

상도문 북쪽 ‘절골’은 절이 있던 골짜기, 주봉산(朱鳳山)은 산모양이 봉황같아서 지어진 이름으로 상도문 북쪽산 상·중·하도문은 도문의 위, 중간, 아래에 위치해 갈라부르는 마을 이름. 중도문의 ‘골밀’은 중도문 앞들의 벌판마을의 뜻이 된다. ‘나무남재’는 중도문에서 대포동으로 넘는 고개로 옛날 나무꾼들이 이고개에서 쉬었다 갔다. ‘떡발재’는 중도문에서 논산리 즉 조양동으로 넘는 고개로 고개 옆으로 밭이 있다. ‘건너말’은 쌍천의 건너마을, 하도문 북쪽이 되며 하도문 남쪽 양지쪽에 자리한 마을이 ‘양지촌’이다.

하도문앞 논을 고씨와 양씨가 살았던 터라 해서 ‘고양터’라 하며 고양터 위쪽 골짜기도 ‘고양터’라 한다.

조양동(朝陽洞)의 논산(論山)마을은 들가운데 산이 되므로 ‘논뫼’라고 한다. 논산조양(論山朝陽)이라 하여 소야팔경(所野八景)의 하나로 꼽히는 지역이다.

소야평야(所野平野)는 척산리(尺山里) 도리원리(桃李源里) 노리(蘆里) 청대리(青岱里) 논산리(論山里)에 걸쳐있는 커다란 들이 된다. 이 들판을 흐르는 소야천(所野川)을 설악산 달마봉(達磨峰)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 청초호(青草湖)에 유입된다. ‘온정’(溫井)마을은 더운 우물이 있어서 부르던 마을이름인데 부월리 안쪽 마을이어서 ‘안말’이라고도 한다.

논산리 지역이었던 ‘청대리’(青岱里)는 청대산 밑의 마을이어서 생긴 이름. ‘청대산’(青岱山)은 해발 320m로 소나무가 무성하여 푸르름이 가관이다. 청대화병(青岱畫屏)이라 하여 소야팔경에 들고 있다.

청대산 아래에는 ‘청대저수지’가 있다.

청초호(青草湖)를 끼고 앉는 청호동(青湖洞)은 속초속의 합경도 ‘아바이마을’로 알려진 육지의 섬마을.

쌍성호(雙成湖), 진성호(震成湖)라 부르기도 하는 청초호는 둘레가 약 5km나 되는 큰호수로 그 모양이 술단지같이 생겼다.

어귀쪽은 바다에 연해있어 조선조때는 수군만호영(水軍萬戶營)을 두고 병선(兵船)을 정박시켰었다고 전한다. 한겨울 얼음이 얼을 경우 평평하지 않고 논밭을 갈아놓은 두렁같이 골이져 ‘용갈이’(龍耕)라 하며 얼은 얼음의 형태를 보고 새해 농사를 점쳐왔다는 유래가 있다.

여지승람에는 이 쌍성호(雙成湖)의 아름다움이 영랑호보다 낫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에는 양양의 낙산사 대신 이 일대를 관동팔경의 하나로 들고 있음에 그 절경의 빼어남을 알 수 있다.

청초호의 ‘장군암’은 남궁억 선생이 양양군수로 재직할 때 지방유지와 마을 일을 논하면서

자리였으나 왜정때, 축항을 하면서 깨없었다는 것. ‘장수암’이라고도 한다. 청초호 북쪽방파제 입구 비선대(秘仙臺)는 옛날엔 조그만 섬이었는데 무지개같은 소나무가 서 있었으며 정자가 있었으나 지금은 정자가 있던 바위만 남아 있다. 동명동 앞의 부둣가 돌섬위가 된다.

청호동 ‘부월리’(扶月里)마을은 한때 온정리(溫井里)를 병합했으나 인구의 증가로 다시 분리하기도 했다. ‘배다리’는 중앙동 ‘갯뱃터’에서 떠난 갯배가 와닿는 나루터. 현재 한쌍의 나룻배

‘반부득’은 청초호를 끼고있는 모양이 호수에 떠있는 반원형이어서 ‘半浮坪’ ‘연깨’는 연못이 있던 마을, ‘온정’은 부월리 안쪽마을이라서 ‘안말’.

가 삿대를 집어던진채 도선줄을 호반에 드리워 왕래하고 있다. 부월리 앞에 ‘반부득’은 청초호를 끼고 있는 모양이 호수에 떠있는 반원형이어서 ‘반부평’(半浮坪)이라고도 한다. ‘연깨’는 연못이 있던 마을. 배다리에서 청초호 건너 ‘갯뱃나루’간은 청호동 주민들의 왕래로 언제나 봄비고 있는 도선장(渡船場)이 된다.

‘온정’(溫井) 마을은 마을 서남쪽 들 가운데 큰 우물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샘물이 솟아 유래한 마을이름. 부월리 안쪽 마을이라서 ‘안말’이란 이름도 갖고 있다. 온정 역시 온정조하(溫井朝霞)라 하여 소야팔경(所野八景)의 하나가 된다.

노학동(蘆鶴洞)은 속초시 동제 실시때 노리(蘆里)와 도리원리(桃李院里) 척산리(尺山里)를 병합, 현재의 동명이 됐다. 노학동의 노(蘆)자는 노리(蘆里)에서, 학(鶴)자는 학사평(鶴沙坪)에서 각각 한자씩 따서 지은 마을이름이 된다.

노리지역이었던 척산(尺山)은 척산’밀의 마을이 되므로 척산이라 한다. 척산온천은 한창 개발되어 유명 온천장으로 이름이 높아가고 있

다. 척산이란 이름은 농사철에 이 산의 그림자 의 길이를 보고 시간을 쟤는데 유래한다. ‘학사평’은 척산 서북쪽 들판으로 경지가 매우 넓고 학이 많이 찾아 들었단다.

‘도리원’은 마을의 위치가 둔덕이어서 된언 덕의 된린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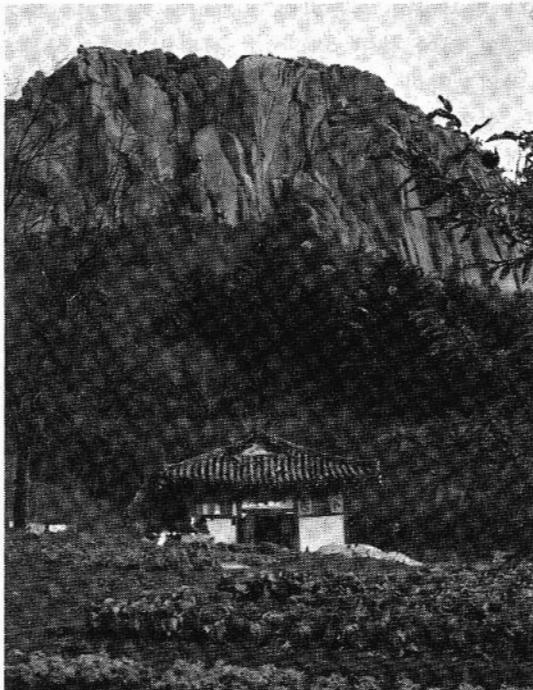
된린덕은 속초 읍제 실시때 도리원리가 됐다. 동우전문대로 올라가는 중간마을이다. ‘도리원’마을 옆이 이복리, 그 위가 척산리, 노리가 된다.

같이 많아 ‘갈골’인 노리(蘆里)는 양양군 소천면 지역이었다. 행정구역 폐합 때 도리원리 응골 이목동 척산리를 병합, 양양군 도천면 (현 속초시)에 편입했고 속초시제 실시때 현재의 동에 속하게 됐다.

노리명월(蘆里明月)도 소야팔경의 하나가 된다. ‘응골’(應洞)은 갈골 서쪽 마을이다.

영랑동(永郎洞)은 1942년 속초읍 동회제 실시때 속초리의 일부를 떼어 속초 1구라 하였다 가 1966년 1월 1일 시제실시때 영랑호(永郎湖)의 이름을 따서 현재의 동명이 됐다.

‘똑적바위’는 영랑호 동쪽 동해변에 있는 바



위로 이바위 밑에 똑저기(똑조기)가 서식하고 있어 똑적바위란 이름이 생겼다. 똑저기는 꺽 저기의 방언으로 ‘불락’이라고도 한다. 똑적바위 옆에 있는 이형근(李享根) 장군 공적비는 제1사단장이었던 그가 38선 이북이었던 속초를 수복하고 지역재건에 공로가 커서 1953년 8만 주민들의 이름으로 세운 기념비.

‘마작’ ‘마짜개’ 마을은 속초동대 아래의 바닷가 마쪽에 있는 마을.

마쪽은 남쪽을 가리키는 벗사람들의 말이다. 남풍을 마파람이라 일컫는 것과 같다. 동해의 푸른 물결을 감고 앉은 이 마을은 여름에도 더운줄을 모르고 생활할 수 있는 조용한 마을로 인근의 횟집등으로 각광을 받아 가고 있다.

영랑호변 ‘범바위’는 그 생김이 범 같아서 불여진 바위이름이다.

영랑호는 신라때의 화랑인 영랑, 술랑, 안상, 남석 등이 금강산에 들어가서 무술등을 익혀가며 수련을 닦은후 무술대회에 나가기 위해 고성군 삼일포에서 3일 동안을 쉰다음 금성으로 가는 길에 영랑호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 영랑호에 이른 이들은 30리나 되는 호수의 맑음과 질푸른 송림 우거진 숲속을 날오는 백조의 비상하는 경치가 절경이라 자연에 도취됐다 한다. 일행 중에서 영랑은 넛을 잊게됐고 무술대회에 나가는 것조차 잊은채 이곳에 남게 돼 그의 이름을 따서 영랑호라 부르게 됐다는 유래이다.

속초국민학교가 있어 교동(校洞)이라 이름 한 이 마을은 속초읍 동회제 실시때 속초리의 일부를 떼어 속초 4구라 했었으나 6·25 동란후 속초 4 구에서 분리, 속초 6구가 됐고, 속초시 동제실시때 현재의 동명이 됐다.

속초의 서편마을인 교동은 신도로가 넓게 뚫리면서 새로운 개발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교동 서쪽의 ‘만천동’(萬千洞) 마을은 집의 숫자가 만천호가 된다는 뜻이라 한다. 그러나 만석꾼이 살았다는 유래와 만천(萬泉)이란 아주 좋은 샘물이 있어 그리 부른다는 마을유래도 있다.

청학동(青鶴洞)과 금호동(琴湖洞)도 속초리

## 내고장의 옛地名

의 일부를 떼어 동회제 실시때 청초호의 뜻을 따서 현재의 동명을 갖게 됐다.

중앙동(中央洞)은 속초시의 중앙이 되므로 불여진 동명.

‘장거리’마을은 중앙시장을 가로 지르고 있는 시장거리란 뜻이며 제일시장은 속초에서 제일 먼저 생긴 시장이어서 그리 부른다. 주로 해산물의 거래가 활발하고 곡물의 거래도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장골’은 서북쪽 언덕아래 마을로 ‘장안골’이라고도 일컫는다. 옛날에는 이곳에 성(城)이 있었다고도 전해오고 있다.

‘노루목이’ 설악동(雪嶽洞)은 본래 양양군 도문면(道門面) 지역이었다. 노루목고개 밑이 되어 ‘노루목이’ ‘장항리’(獐項里)라 하였고 41년 행정구역 폐합때 토왕성리(土旺城里) 정고리(丁庫里)를 병합, 장항리라 고쳐 도천면에 편입후 1966년 1월 1일 속초시 동제(洞制) 실시때 설악산 아래가 되어 현재의 동명이 됐다.

설악산 턱 밑 ‘노루목고개’는 장항리에서 신흥사(神興寺)로 오르는 고개로 가파르지 않고 및 및한 노루목처럼 생겼다. 이 고개는 신라 때 의상대사(義湘大師)가 설악산으로 가다가 이곳에서 겹겹이 들러싸인 산과 우거진 숲으로 갈길을 잊고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노루 한마리가 나타나 고개와 몸짓으로 길을 인도했다는 고개이다. 의상대사는 우리나라 화엄종의 창시자가 된다. 노루목고개를 따라 오르다 보면 장항리 서쪽 쌍천(雙川)가에 ‘향성사’(香城寺)터에 다다른다.

이 향성사터는 신라 진덕여왕 7년에 자장을 사(慈藏律師)가 지은 향성사가 있던 절터이다. 현재는 뉴설악파크호텔이 이자리에 들어서 있다. 절은 불에 타 없어지고 석탑만 호텔 앞 남쪽 길건너에 보존되고 있다. 이 향성사터은 원래 9층탑이었으나 향성사가 불에 탈때 무너져 내려 3층만 남아있다.

신흥사 입구의 쌍천(雙川)상류에 놓인 ‘세심교’(洗心橋)는 부처님이 계시는 성지(聖地)로 들어가는 어귀에 있어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뜻의 다리가 된다. 개울이 2개로 갈려 흐르고

있어 다리도 2개가 놓여있다. 이 다리는 오래 되어 낡은 것을 86년 다시 놓았다. ‘세심천’은 세심교 밑으로 흐르는 쌍천의 상류 줄기가 되는 내이다.

계조암(繼祖庵)은 내원암(內院庵) 북서쪽의 울산암 남쪽 산기슭 바위굴 안에 있는 신흥사에 맬린 암자. 신라 진덕여왕 6년에 자장을 사가 지었는데 그 뒤로 원효와 의상의 두 조사(祖師)가 계승했다 하여 계조임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이 계조암 아래에 있는 바위가 ‘쌍동암’(雙童岩)이다. 계조암의 문지기 바위로 알려진 이 쌍동암은 두 어린이가 길의 양쪽에 서있는 모습이어서 붙여진 이름. 동암 밑에 있는 널다란 바위가 ‘와우암’(臥牛岩)인데 소가 누워있는 형체이며 이곳에서는 100여 승려들이 모여 앉아 공양(供養)을 하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바위를 ‘식당바위’라고도 한다.

와우암 맞은 편에 우뚝선 커다란 바위가 ‘용암석’(龍岩石).

‘흔들바위’로 알려진 ‘쇠뿔바위’는 와우암 위에 있다. 흔들바위란 이름은 한사람이 흔들거나 백사람이 흔들거나 움직이는 정도가 똑같다고 하여 불인 이름이고 쇠뿔바위란 이름은 바위모양이 쇠뿔 같다 하여 불인 이름이 된다.

설악동 170번지 신흥사(神興寺)는 신라 진덕여왕 7년(1653년)에 자장을 사가 장항리 동쪽의 향성사(香城寺)를 지었으나 불에 타고 효소왕 10년(701년)에 의상대사가 능인암(현재의 계조암)터에 절을 짓고 선정사(禪定寺)라 했다.

그러나 조선조 인조(仁祖) 22년(1644)에 또 불에 타자 다음해에 운서(雲瑞) 연옥(連玉)혜원(惠元) 등 세 승려의 꿈에 달마봉밀 소림암(小林庵)에서 백발노인이 나타나 “나는 달마(達磨)다. 이르노니 저 건너쪽에 절을 지으면 삼재(三災)가 범하지 못하리라”하는 신의 가르침을 받고 지었다 하여 절의 이름을 신흥사라 했다는 것. 삼불상 구리시루 경판 등은 아직껏 보존되고 있으며 보제루(普濟樓)안에 있는 범종은 1,000근이나 되며 소리가 우렁차고

아름다웠으나 6.25 동란때 총탄에 맞아 일부가 깨어져 그대로 보관해오다가 지난해 (87년) 음력 사월 초파일에 1,500 관으로 다시 만들었다. 신흥사 뒤편 병풍같이 들려 서 있는 바위가 유명한 ‘울산바위’. 이 울산바위는 옛날 조물주가 강원도에 명산을 만들 때 전국의 산봉우리들을 불러놓고 설달 그믐까지 금강산에 도착하면 심사를 거쳐 명산으로 지명해주겠노라하고 일렀다. 경남 울산에 있던 울산바위도 주위의 봉들과 차별을 하고 금강산을 향해 떠났다. 그러나 둘레가 10리나 되는 덩치를 이끌고 오느라 지치게 됐고 이미 금강산은 1만 2,000 봉의 산봉우리로 채워진 뒤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울산바위는 설악산에 주저앉고 말았다느 전설이다. 울산바위는 설악산의 팔기(八奇)중의 하나로 비가 오고 천등이 치면 산이 울고 하늘이 으르렁거려 천호산(天吼山) 이라고도 한다.

신흥사 동쪽의 ‘달마봉’(達磨峰)은 높이가 526m나 되는 산봉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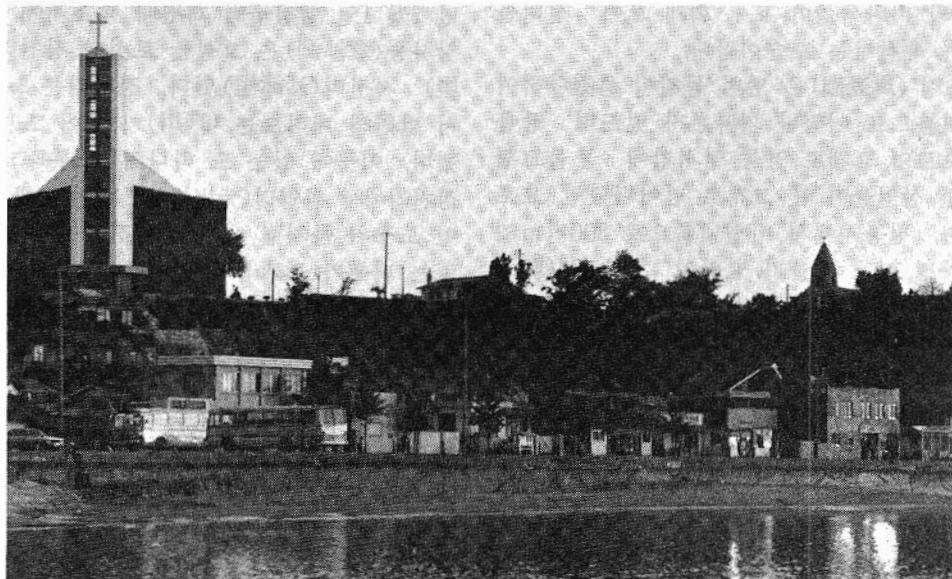
달마봉 서쪽 기슭에 있는 ‘소림암터’는 소림암이 있던 터. 신라 문무왕때 창건한 소림암(小林庵)에서는 대사(大師) 한 분이 중국의 양(梁)나라 무제(武帝)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포도전법(布道傳法)이 부족함을 깨닫고 이곳

에서 9년동안 도를 박으며 지냈다고 한다.

신흥사에서 ‘정고평’으로 가는 길 옆에 있는 바위가 ‘망비위’. 망비위란 이름은 신흥사 주위에서 올라서서 이 길로 넘나들던 장사꾼(도부장수)이나 물건을 갖고 다니는 행인들의 동향을 살피던 바위이다. 이곳 도적들은 장사꾼의 물건을 탈취하거나 사찰 주위 농토에서 지은 곡식을 신흥사로 거둬들이는 것을 털어 갔다고 한다.

‘정고평’(停庫坪) 또는 ‘정고리’(丁庫里)라 부르는 이곳은 토왕성리 서북쪽 마을인데 설악산 백담사(百潭寺)의 곳집이 있었다는 것. 그러나 영동의 행산물과정서의 농산물을 직접 교환하던 때여서 창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는 당시 마등령을 넘으면 맨몸으로 조차 힘겨웠던 터여서 이곳에서 짐의 일부를 덜어놓고 넘었을 것이라는게 박익훈씨(朴益勳)의 도움말이다. 그는 설악산의 이름도 산의 모양이 대(竹)조리 같이 생겼다 하여 여지승람에는 ‘이산’(璃山)으로 적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또 한쪽의 주장은 ‘술뫼’‘서리뫼’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도 있다.

히말라야 정복의 꿈을 가진 알파니스트들의 빙벽훈련 코스가 돼있는 ‘토왕성 폭포’는 설악산 폭포중의 왕. 석가봉 문주봉 익적봉 노적



봉 문필봉 보현봉들이 석벽처럼 둘러싸고 있다.

옛 선선들이 놀았다는 ‘문주담’(文珠潭)은 문주보살이 목욕했다는 전설에 따른 이름.

‘문수담’(文殊潭)이라고도 한다. 천불동계곡에서 약 1km 올라가면 옥수가 피어있는 깨끗한 등근 담이 바로 이곳이다.

이밖에 설악산에는 여섯개의 담소(潭沼)로 이루어진 ‘육담폭포’(六潭瀑布)가 있으며 용이 승천했다는 ‘비룡폭포’(飛龍瀑布)가 일백오십 척의 물줄기를 바위 아래로 쏟아붓고 있다. 천불동계곡의 맨 마지막 폭포인 ‘천당폭포’(天堂)는 고생 끝에 오르면 마치 천당에 오른듯 하다하여 붙여진 폭포이름.

다섯개의 폭포가 연이어져 내려 생긴 ‘오련폭포’(五連瀑布)는 천불동계곡의 맨 위쪽이 되며 오련폭포를 지나 골짜기가 양쪽으로 갈라진 곳에 다다른다. 두 갈래의 물이 좌우로 갈라지는 좌측이 ‘양폭포’(陽瀑布), 오른편이 ‘음폭포’(陰瀑布)가 된다.

옛날 선선이 놀았다는 ‘와선대’(臥仙臺)는 마고선(麻姑仙)이란 선인이 바둑을 두고 거문고를 뜯으며 즐기면서 반석위에 드러누워 주위의 산수를 만끽했다는 전설이다.

권금성 뒤편의 영봉들이 ‘집선봉’(集仙峰) 집선봉의 바위색깔이 모두 희게 보여 선녀들이 모여 속삭이는 모습이란다.

‘마등령’(馬登嶺)은 말의 등같이 생겼다하여 생긴 이름으로 어찌나 가파른지 엎드려 땅을 짚고 오르던 고개로, 영동 영서간에 물물교환을 하던 상인들이 이 고개로 넘어다녔던 요로가 된다. 신흥사에서 비선대쪽으로 300여 m가면 마등령 아래 개울가 벌판이 ‘치마장’(馳馬場)이다. ‘군량장’ 위쪽인 이 치마장에서는 신라때 화랑들이 전쟁터에 타고 나갈 군마를 훈련시키던 자리로 풀이한다. 마등령은 내, 외설악을 갈라놓은 분수령이 된다.

설악산 케이블카가 오르내리는 ‘권금성’(權金城). 권(權)장사와 김(金)장사가 쌓았다는 이 성(城)은 병란이 일어났을 때 두 장사는 가족을 이끌고 설악산으로 피난을 올라왔다. 그

러나 적을 막을만한 성이 없고 성을 쌓을 돌도 없었다 한다. 날이 새면 적병들이 공격해 올라올 것을 생각하니 큰 일이었다. 생각다못한 두 상자는 한 장사는 산 아래로 내려가 돌을 모아 던지고 한 장사는 산 위에서 돌을 받아 성을 쌓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3일밤을 새워 쌓은 것이 현재의 성이라는 것이다. 이 성으로 하여 두 장사는 물론 가족들이 무난히 전란을 피했다는 유래이며 성의 이름도 두 장사의 성(姓)을 따서 ‘권금성’이라 했다고 한다. 권금성은 케이블카가 놓임으로써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반드시 거쳐가는 또 하나의 관광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목우재’(牧牛峙)는 척산(尺山) 도리원리(桃李源里) 노리(蘆里)등 현재의 노학동 일대의 소야평야에서 생산된 양곡을 신고 신흥사로 넘어오다가 우마에게 풀을 뜯어 먹이며 휴식을 취했던 고개. 이 고개를 ‘모기재’라고도 부른다. 현재는 고갯길을 확장하고 아스콘으로 말끔히 포장되어 우마의 등짐행렬은 간곳 없고 각종 차량의 유행이 빈번하다. 소야평야는 도문들(道門坪)과 함께 속초의 큰들로 소야천(所野川)을 따라 척산 도리원 노리 청대 논산에 걸쳐 있는 들이다.

소야천을 지금은 쌍천으로 많이 부른다. 73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때 속초시에 편입된 장사동(章沙洞)은 고성군 토성면 장천리(章川里) 사진리(沙津里)였다. 장천리는 노루목에서 발원해 내려오는 내(川)가 있어 ‘노루내’라 했다. 이곳에 있는 또 하나의 ‘노루목고개’는 장천리에서 원암리(元岩里)로 넘는 고개로 모양이 노루의 목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이다. 사진리는 나루가 모래톱에 있어 ‘나루모래기’라고 하고 ‘사야지진’(沙也只津)이란 한자이름도 갖고 있다.

영랑호변에 있는 ‘관음암’(觀音岩)은 신라때 영랑이 놀았던 바위로 주위의 경관이 기암괴석으로 경지를 이루고 있다. 사진리 동쪽 바다에 있는 ‘형제바위’(兄弟岩)는 2개의 바위가 형제처럼 정다운 모습으로 나란히 서 있기에 붙여진 이름.



동명동(東明洞)은 1942년 속초읍 동제 실시 때 속초의 일부를 떼어 속초구라 했다가 1966년 1월 1일 속초시 동제 실시때 동해 바닷가에 위치했으므로 동쪽에서 떠오르는 햇빛이 밝아 오는 마을이라 하여 현재의 동이름이 됐다. 속초 동대 아래 바닷가에 옥지와 잇닿는 돌산이 있었는데 이 돌산을 '영금정'(靈琴亭)이라 불렀다. 이곳은 널따란 바위들이 깔려있어 바다 놀이터가 됐었으며 바위모양이 기묘해 절경이었다. 석산 꼭대기의 괴석들은 정자모양을 했었고 파도가 석벽에 부딪칠 때면 신비한 소리가 들려 이를 일컬어 산신령이 거문고를 탄 것이라 하여 '영금정'이라 이름하게 됐다고 한다.

'화험정'(火驗亭)이라고도 불렸다는 이곳에는 밤이면 선녀들이 몰래 내려와서 목욕도 하고 신비스런 노래를 부르며 즐겼다고 하여 '비선대'(秘仙臺)란 이름도 갖고 있다. 현재는 석산은 없어지고 넓은 바위가 남아있다.

동명동 삼거리 옆에 세워진 탑이 '수복기념탑'(收復紀念塔). 북쪽에서 온 피난민들의 향수를 달래고 수복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념탑으로 1954년에 세웠다.

속초등대가 있는 산봉이 '선황봉'인데 이 곳에는 성황당이 있었다. 속초등대는 동명동 1번지. '삽짜개'마을은 산등성이를 사이로 '마짜개'마을과 경계가 된다. '새짝'마을이라고도 한다. '새짝'은 '새쪽'의 방언으로 동쪽을 가리키는 뱃사람들의 말로 동쪽이란 뜻이다.

'우령골'은 보광사가 있는 마을로 산구렁이 안쪽 마을이 되며 우령골에서 '용솟골'로 가는 고개가 '옹고개' 속초여중이 고개 옆에 있다.

'불당골'(佛堂谷)은 보광사 남쪽골짜기로 예전에 불당이 있어 생성된 마을 이름이다. 우령골 산기슭에 있는 보광사(普光寺)는 1937년 정화담(鄭華潭)이 세운 사찰. 용솟골은 예전에 용소(龍沼)가 있었다고 한다.

## 4 월의 노래

강석태

봄비는 봄비가 아니며  
속초는 속초가 아니다  
철새는 고향을 찾아오고  
바람은 꽃잎을 피우는데  
첫애를 낳은 아내는  
그날의 아픔을 잊지 못한다.  
상처는 아물어도 자국은 남는 것  
펜족이 칼끝보다 굳세고  
호미가 총구보다 강한  
4월은 4월이 아니며  
서울은 서울이 아니다  
바다는 목련꽃을 피우고  
하늘은 눈물처럼 빛나는데  
살아 있음으로 아름다운 시인이여  
할미새는 날아가고  
할미꽃은 할미꽃으로 남아야 한다.

## 하늘새

정희균

한 응큼

숲속 흘어진 가시먹고  
창백한 미소로  
피를 토해 버려

파편처럼

천백년 龍의 기지개에  
밀린 결음은  
바위에 부딪치리

스려질듯 아, 스려질듯  
가녀린 몸짓 떨고 떨어

꼼

작은 메아리 되어 골을 헤매면  
파르락, 하늘새  
날개울어

순간에 죽어 아픔을 모르는 새여

꽃의 향기

하늘 공기 마시고  
구름조각 하얗게 태워  
끌내는 날아가리.

# 덕을 쌓는 기업 – 韓進

〈편집부〉



지난해 “5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韓進。

2차산업의 비중이 전산업의 0.9%밖에 되지 않는 기형적 경제구조의 우리 고장에서, 수산물을 가공하는 한 작은 업체가 이루어낸 값진 열매이다. 더군다나 금년엔 800만불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니 韓進은 가위 日就月將의 성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韓進이 위치한 속초시 청호동은 대표적인 실향민 마을. 주민의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며 그 생활수준이 비교적 낮은 편에 韓進이 담당한 고용창출의 효과 또한 돋보인다. 부업으로 참여했던 유하노동력들이 이제는 완전한 主業으로 전환되기에 이른 것이다.

현재 韩進은 두 개의 공장에서 연중 무휴로 원양산 오징어와 붉은대게를 가공 생산해내고 있다.

조미오징어를 생산하는 제1공장은 부지 800평에 공장건물 500평 규모로 평균 200여 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다. 연간 1,000톤 가량을 생산, 이중 70%는 일본으로 수출하고 나머지 30%만이 국내에 시판된다. 제2공장 역시 대지 800평 건물 400평 규모로 평균 250명의 고용효과를 보고 있다.

동해 중부 연안 10~20마일 해상에서 수심 1,000m 이상의 깊은 곳에 서식하는 붉은대게



현재 韩進은 두개의 공장에서 연중 무휴로 원양산 오징어와 붉은대게를 가공 생산해 내고 있다.



를 직접 어획하여 1차 가공한 후 전량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생산량 규모는 연간 150톤 정도.

韓進이 오늘의 모습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7년전인 1981년, 당시 도산직전의 '한풍교역'을 현재의 李揆詰사장이 인수하게 되면서부터이다. 李사장은 그 특유의 열정과 침착으로, 이 폐업상태의 공장을 동해안 제일의 수산물 가공 공장 韓進商事로 변신시킨다.

李사장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立志傳의 인물. 30여년전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단신으로 고향인 홍천을 뛰쳐나와 열다섯살에 면사무소 사환, 열여섯살엔 원주에서 껌팔이 소년으로 그리고 열일곱살엔 양양에서 벌채장인부로 전전했다.

성인이 되면서 속초로 들어와 한 때 오징어 배를 타기도 했는데, 이후 스물두살 때부터 보따리 오징어장사로 나서기 시작한다. 이런 파란만장한 그의 생애 중에서도 始終如一했던 것은, 성실한 그의 인간성과 信義를 제일로 꼽는 그의 좌우명.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이익을 주어야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서른 세살 때인 75년부터는 가공공장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오징어의 귀·다리 등을 조미해 서울시장에 내다 파는 것으로 까지 사업을 확장했고, 77년 이후엔 일본 북해도 근해에서 잡히는 赤오징어를 가공하기 시작했다. 몇 개의

공장에 가공을 의뢰해 생산해내던 그는 드디어 79년 주문진에 있는 전평 400평짜리 수산물 가공공장을 임대인수하게 된다.

李사장은 휴업상태이던 이 공장을 맡아, 20여명의 종업원을 100여명으로 증원하는 등 3년만에 정상궤도에 올려 놓았다. 여기서 얻은 공장 경영 경험으로 이윽고 李사장은 현재의 한진상을 정식 인수, 천부적인 그의 재능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연간 70억원의 외화벌이를 하는 한진의 사장실엔 두평 남짓한 비좁은 방에 고작 책상 하나와 허름한 응접셋트 하나뿐이다. 李사장의 검소한 생활모습 그대로다.

그는 '오늘의 한 시간이 내일의 열시간'이라는 신조로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 일처리를 하는 업무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거래자와의 신용을 제대로 지키려면 무엇보다 품질관리가 우선이라고 믿고 있다. 종업원 복지 향상에도 남다른 정성으로 나서며, 경영 내용을 종업원들에게 결코 감추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축재가 아닌, 일거리 분배를 통한 종업원의 생활향상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확천금이 아닌, 순리적인 발전을 그 과정으로 삼고 있다.

가능한한 남에게 무엇인가 베풀려고 하는 그의 인품은, 사회봉사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업중 실종된 어부 가족에게 거액의 성금을 내놓기도 하며,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나 노인들에 대한 회관 건립기금에도 조금도 인색하지 않다. 그의 도움이 필요한 곳엔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 애쓴다.

그래서 이미 韓進은 富를 쌓는 기업이 아니라 '德을 쌓는 기업'으로 소문나 있다. 李사장 자신도 韓進을 한 개 기업이 아니라 인생을 공부하는 학교로 가꾸고 싶어한다.

우리가 이런 진정한 의미의 기업 韓進과 이웃하고 있음은, 매우 마음 든든한 일이다. 수산물 종합식품 센터로의 성장을 꿈꾸는 韩進의 소망은, 따라서 우리 고장 모두의 염원이다.

# 향성사지 3층석탑



# 향성사지 3층석탑

“  
 선조 25년(1592년)  
 임진왜란때 6층이  
 파괴되고 3층만 남게  
 되었다.  
 탑신의 옥석받침이  
 매우 정연하여 보기에  
 꼭 아름다움을  
 느낀다.  
 ”

향성사 옛터에 남아 있는 이 탑은 2중기단(基壇)의 석탑으로서 화강암으로 축조되어 있다. 높이는 4.33m, 지대석(地臺石) 폭은 3.6m이다. 지금 석탑은 3층뿐이나 건립당시는 9층탑이라 한다.

이 탑은 향성사 건립 당시인 서기 652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신라탑의 형식을 갖춘 것이다. 기단과 초층탑신을 고찰할 때 위래 9층탑 이라는 데 대해 의문점이 없지 않다. 비교적 안정감이 느껴지는 석탑으로서 자장율사가 나당라에서 가져온 석불사리 33과를 봉안하였다 한다.

신라 효소왕 7년(698) 향성사가 소실될 때 이 탑만이 남아 있었으나 그 후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 병화로 6층이 파괴되고 3층만 남게 되었다. 상륜부문인 탑두부는 보개가 없고, 탑신의 옥석받침이 매우 정연하여 보기에도 꼭 아름다움을 느낀다.

여러개의 장대석으로 지대와 하층하단의 중대(中臺)를 만들고 그 위에 바깥 쪽으로 경사가 있고 중앙에 2단의 몰딩이 있는 갑석(甲石)을 여러 장의 판석(板石)으로 조성하여 상층기단의 면석(面石)을 받았다. 면석은 4우주(四隅柱)와 각 면에 2개의 팽주(撐柱)를 두어 3칸으로 나누어졌는데 모두 8개의 돌로 되어 있다.

상층갑석은 부연(副椽)이 있고 윗면에 약간의 경사가 있으며, 중앙에 몰딩을 두어 옥신(屋身)을 받고 있다.

옥개(屋蓋)받침은 5단인데 낙수면(落水面)의 경사는 급하고, 처마의 아랫선은 수평선이며, 윗선은 4우주에서 경미한 반전(反轉)을 한다.

1966년 12월(12월 16일~30일)에 해체 보수하였는데 3층옥신 상면에서 7cm×5.5cm×9cm의 방형사리공이 발견되었고 그 위에 길이 12cm, 폭 9cm 크기의 동판이 덮여 있었는데 내용물은 없어진 뒤였다고 한다.

1966년 8월 25일 보물 제443호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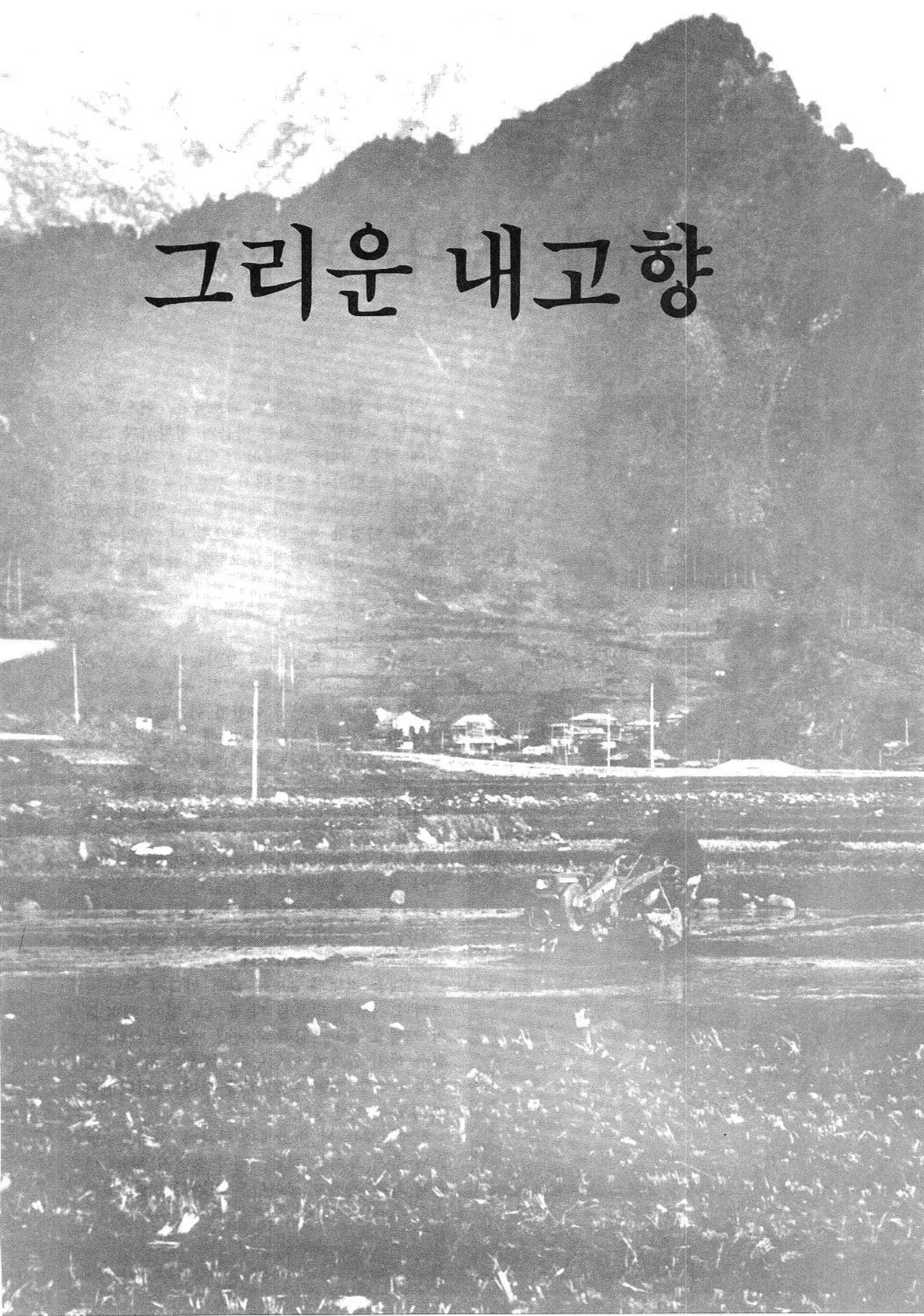
文  
化  
相  
通  
源

戊辰  
嶺東書芸士蒼



현암 정원철

# 그리운 내고향



# 꿈속에서 만나는 대청봉



권진량 / 경북 안동군  
북후중학교 교사

사람에 있어서 고독과 피로움은, 어느때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의 정황이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소외되고, 닥쳐오는 사회적 소란이나 소음에서 평온함을 잃을 때, 모두가 그리움을 찾아 해매일 때, 잊어버렸던 친구의 다정한 목소리가 필요할 때, 우리는 갑자기 잊어버리고 있던 내고향의 들녘을 떠올린다.

그리고 자유스럽고 평화롭기만 하던 고향의 문을 열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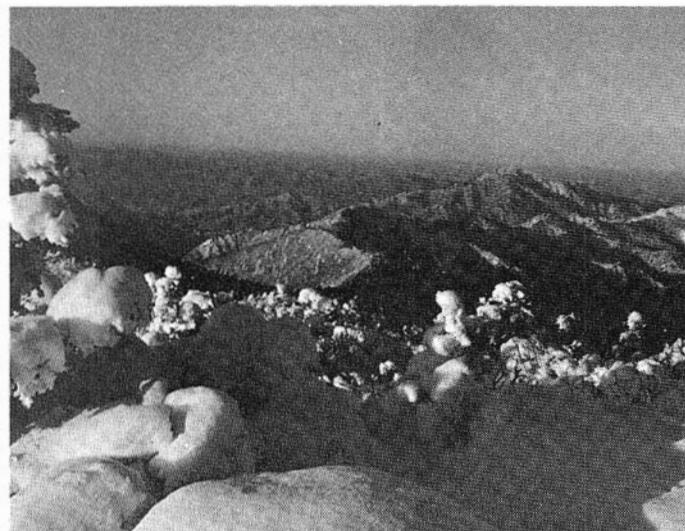
어느날 저녁 온 식구가 모여앉아 오손 도손 이야기하던 때가 떠오른다. 저 푸른 은하계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서 숨한번 쉬지않고 “별하나 나하나, 별들 나들” 하고 셀 때 옆에 계신 할매는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를 하신다.

“저 하늘 나라에 견우와 직녀는 은하를 사이에 두고, 동쪽 서쪽으로 갈라져 떨어져 있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이란다.

그런데 은하에 다리가 없어 서로 만날 수가 없어 사랑을 속삭일 수 없었던단다.

이 딱한 사정을 알고 해마다 칠석이 되면, 이 땅위의 까치는 저 하늘로 올라가서 은하수에다 오작교란 다리를 놓아준다. 그때 견우와 직녀는 다리를 건너와 1년에 한번 만나게 된단다. 그러나 사랑의 회포를 다 풀기도 전에 새벽 닭이 꼬끼오 울고, 동쪽 하늘에 먼동이 트니, 이 별을 하지 않으면 안된단다. 견우와 직녀는 또 이별을 하고 발을 갈고 베를 짜며, 그리워만하고 1년을 지낸단다.

칠석날에는 이 세상에는 까치가 하나도 없으며 혹시 보이는 것은, 병이 들어서 하늘 나라에 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거란다. 또 칠석





고향에서 묵묵히 내고향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여러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먼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일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그  
소임을 다하는 것”

남에 비가 출출 내리면 견우와 직녀가 하도 반가워서 흘리는 눈물이고, 이튿날 새벽에 비가 오면 이별의 슬픈 이야기란다”고 구수하게 이야기하신 할매의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맑디 맑은 넷가에서 피리와 봉어를 잡으며, 내 힘이 제일 세다고 힘자랑하던 씨름장도 버들가지 꺾어들고 피리를 불던 것도, 동네 길모퉁이에서 자치기하고 서로가 이겼다고 싸움질하던 것도, 특히 잊혀지지 않고 있는 한 가지는 친구들과 같이 신흥사에서 큰 스님이 장래기축 망되는 소년들은 명심하고 마음 다스리는 교훈을 삼으라고 힘주어 하신 말은,

“사람의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사람의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사람의 도는 안정에서 생기고

사람의 명은 화창에서 생기나니

사람의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사람의 재앙은 물욕에서 생기며

사람의 허물은 경만에서 생기고

사람의 죄는 참지 못하는데서 생긴다고 하였으며, 늘 입을 조심하여 착한말 바른말 부드럽고 고운말을 언제나 할 것이며, 어른을 공경하고 덕있는 이를 반들며, 모르는 이를 너그럽

게 용서하라”는 등 좋은 말이 귀에 쟁쟁하다. 또 여러 소년들이여!

저 설악의 대청봉같이 높은 이상을 가지며, 동해의 푸른 바다를 보세요? 얼마나 넓고 깊습니까? 동해 바다같이 넓고 깊은 마음을 갖고 노력할 것이며, 마지막 한 가지는 차돌같이 단단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매진하라고 일렀다.

6·25를 겪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공업국으로 발돋움함에 있어서 같이 웃고 놀고 하던 친구들은 산지사방 제갈길을 간다.

고향에서 묵묵히 내고향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여러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먼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일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그 소임을 다 하나라고 생각한다.

특히 상전이 벽해가 되고 초가집, 스레트집이 헐려서 빌딩이나 아파트가 우뚝우뚝 들어서고 꼬부라진 골목길은 찾을 길이 없고 오늘도 내일도 내고향에서 고향에 궁지심을 갖고, 내고향을 지키고 사랑하고, 우리것을 알아서 이어가고 옛것을 찾아서 후손에게 후회없이 넘겨주기 위하여 내길을 걷고 있다.

墨香文房風

書藏士家寶

在中冓清秀

皆斯以身補

丁卯夏月李元植



이원식

# 나의 제언



# 政治와 自由守護

“  
政治는 道德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國民和合이  
이루어지고  
自由守護가  
생겨난다.  
”



李虎舜 / 속초시 자유  
수호협의회장

天賦人權의 學說과 主張이라든가 天不生無祿盡이란 말들은 弱者의 辩(辯)이라고 할 련지 모르겠지만 實은 自由思想과 人間의 希望인 福祉社會를 念願하는 人類의 理想實踐을 위한 最高念願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역시 이 實踐을 위하여 人類는 무수한 歷史속에 獨裁와 權威의 제단 앞에 祭物로 희생되어 왔던것을 否認할 수 없다.

사람은 원래 集團生活이 形成되면서 부터 獨裁과 權威주의가 쟁트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지배자와 피지배자 생겼고 간격은 멀어지고 身分의 差가 생겼고 貧富의 差가 생겼다. 이 점점 심하게 생기는 심각한 차가 사회나 국가의 커다란 문제로 되고 말았다.

그러나 政治理想을 實踐한 努力으로 현대에 이르러 정치 형태는 自由民主主義와 共產政治體制로 二大江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自由진영국가와 公산진영국가와의 差異을 論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自由民主主義가 政治制度思想이 가장 우수

한 政治制度라고 아니 할 수 없다.

共產體制에서는 獨裁體制가 아니고서는 到底히 國家運營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貧困보담 自由가 더 중요하다. 구속된 생활 억눌린 생활, 불안한 생활등이 공산체제의 生活이라고 하겠다.

자유수호를 위하여서는 治者的立場이 더 중요하다 道德的인 政治秩序있는 政治潔白한 政治生活이 어두워진다면 自然히 國民이 希望을 갖고 일터에서 보람있는 삶을 著할 것이다.

옛 말에 웃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다는 俗談이 있다. 近者治者들은 自己의 榮光과 權坐를 유지하기 위하여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으니 여기에 부패가 쟁트고 國民의 不滿과 不信社會가 생기기 마련이다. 道德과 正義는 땅에 떨어지고 모사꾼의 甘言에 정치는 휘말리어 그릇되는 歷史는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다.

여기에다 나의 談笑를 적어 보기로 하자.

일제시대 불란서 토인비 史學家 교수가 日本으로 가는

길에 우리나라 記者들이 車에 올라 당신은 어찌하여 이당에 들지 않느냐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나는 歷史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五百年 王朝속에 國民의 저항없이 아무 변화가 없는 나라에 무슨 歷史가 있겠는가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말은 국민의 理想社會를 向해 새로운 社會를 創造하여 새 歷史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하겠다.

나는 學生時節에 우리 祖上들이 오죽 못났으면 祖國을 日本에게 빼앗기겠느냐고 늘 말하였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여 보면 우리自身들이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해방 후民主化 투쟁을 위하여 무수한 學生들의 連束된 희생이 계속 되었지만 아직도 별 效果가 없으니 이 어찌 부끄럽지 않은가.

治者의 精神生活을 위하여 中國古事를 하나 紹介한다. 中國의 湯王의 祈雨祭를 말하고자 한다.

은(殷)王朝를 연 湯王은 仁政을 베풀어 걸왕의 폭정에서 시달리던 民生을 安定시켰다. 그러나 不幸히도 七年間 한발로 農土가 말라 살수없게 되었다. 湯王은 생각다 못하여 太史官에게 점을 쳐보라고 하니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하겠다고 하니 王은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내가 百姓을 구하고자 이리 섰는데 이 무슨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울 수 밖에 없다고 하고 桑林이란 땅에 가

서 祈雨祭를 지내는데 그 祭文이 결작이다.

1. 정치에 절도가 없어 문란한 때문인가
2. 궁실이 너무 크고 호사한 까닭인가
3. 백성이 직업을 잃고 해매는 때문인가

이다' 한 말에서 나왔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親近感을 주는 말인가. 권위주의에서 完全히 탈피한 良心의 소리라고 믿고 싶다. 앞으로 보통사람으로 大統領을 하여주기를 기대하여 보겠다.

政治는 道德으로 이루어져

**民主政治와 自由守護는 不可分의 關係를 가지고 있다. 爲先政治가 道德의이고 潔白한 生活, 秩序있는 政法哲學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國民은 愛國愛族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法이다.**

4. 부녀자의 청탁이 많다 말인가
5. 뇌물이 성행하는 때문인가
6. 참언이 많은 탓인가

이 여섯가지 가운데 失政이 있으면 하나님 저를 벌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비를 주십사하고 말이 끝나기전에 구름이 몰려와 中國 天地에 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었다는 古事가 있다.

이 古事를 紹介하는 理由는 적어도 政治하는 사람은 이같은 自身을 가지고 한 점의 부끄럼이 없이 올바른 政治를 하여 달라는 뜻에서 소개하는 바이다.

요즈음 보통사람이란 말이 流行이다. 이 말은 廬大統領이 출마 당시 '나는 보통사람

야 한다. 여기에 國民 和合이 이루어지고 自由守護가 생겨난다. 그리고 國民에게 勝共理念思想이 뿌리깊게 確立되어야 한다. 그러나 思想만 가지고는 아니된다. 하나님의 強한 團體에 함께 呼應하고 뭉쳐야 그 힘을 發揮할 수 있다. 民主政治와 自由守護는 不可分의 關係를 가지고 있다. 爲先政治가 道德의이고 潔白한 生活, 秩序있는 政法哲學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國民은 愛國愛族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法이다.

自由民主主義나 自由守護는 分斷된 우리들의 祖國을 統一할 遠大한 理想實踐을 위하여 勝共理念으로 온 國民의 精進하는 길이 自由守護의 길이라 하겠다.

祖國의 앞날에 榮光있으라.

#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자



정태갑 / 금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모든 나라들이 지향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건설이며, 우리나라 또한 그렇다.

1인당 국민소득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잘사는 나라의 기준을 삼고 있는 추세이지만 진정 잘 산다는 것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이라 생각될 때,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을 지켜온 두레, 품앗이, 향약, 계등은 길이 보존되어야 할 관습이라 본다.

이러한 관습을 시대에 맞게 발전시킨 것이 새마을금고이다.

새마을금고법 제1조(목적)에 “……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전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새마을금고의 설립목적을 명시하고 있음은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라는 금고의 이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좋은 이념을 가지고 1963년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태어난 금고였지만 주위의 무관심으로 제자리 걸음을 걷다가 70년

대 초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함께 발전하기 시작, 양적으로 성장했으나(77년도 금고수 4만여개) 의욕만 앞섰지 경영에 대한 지식이 없는 탓으로 많은 금고가 탄생하자마자 사라지거나 부실금고로 되고 말았으며, 거기에 따른 부작용 또한 적지 않게 나타났다.

그래서 신문지상에는 심심치 않게 금고의 사고소식이 보도되어 <새마을금고=사고>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이에 당황한 연합회의 강력한 지도감독으로 조금씩 정비되어 갔고, 금고의 업무체계도 많이 개선되었다.

겨우 걸음마 단계이던 새마을금고가 획기적인 발전의 분기점을 마련한 것은 83년 1월 새마을금고법이 제정, 발효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한 해가 다르게 자산이 증식되었으며 82년 이전에 1억원의 자산도 못되던 속초시내 금고들이 87년 말 현재로 10억원 내외의 큰금고로 발전하여, 속초지역의 경우 9개금고, 15,000명 회원에 총 자산은 85억원을 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3,400여금고, 460만 회원, 자산은 2조 6천억원을 넘어 머지않아 3조원을 달성하리라 본다.

이렇듯 새마을금고가 급성장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금고가 회원에게 주는 여러 가지의 편리함과 이익때문이라 생각되어 금고의 업무를 소개해보기로 한다.

새마을금고는 1구좌(1구좌 1천원)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한 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원은 금고의 주주인 동시에 고객이 되는데, 출자금은 금고의 자본금으로 매년 높은 배당(11~12%)을 받게 된다.

보통예탁은 은행의 보통예금과 같고 은행의 저축예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립예탁금이 있

는데 이율이 년 8%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 정기예탁과 정기적금이 있는데 편의상 다음과 표로 설명하고자 한다.

#### ◎정기예탁금

금액	기간	이율	월이자	세금	실지급액
100 만 원	3개월이상	7%	5,833	80	5,753
	6개월 "	9%	7,500	110	7,390
	1년 "	11%	9,166	130	9,036

#### ◎정기적금

금액	기간	월부입액	총불입액	세금
100 만 원	1년	78,900	946,800	790
	2년	37,100	890,400	1,640
	3년 (금고) (은행)	23,200 24,600	835,200 885,600	2,470 22,700

위의 표에서 정기적금 3년 만기 100만원의 경우를 은행과 비교하여 볼 때 월불입금의 차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금감면으로 인한 차액을 합치면 금고가 은행보다 7만여원의 이익을 고객에게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출은 신용, 담보, 범위내, 적금대출 등 4종류가 있으며 서류가 간단하고 문턱이 낮다는 점과 연중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업무는 금고법에도 명시했듯이 여·수신 업무외에도 복지사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은 금고가 단지 금융업을 위주로 하는 기업체 성격의 법인이 아님을 실증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금고에서는 불우회원을 돕고, 지역내 단체의 행사를 지원하며 경로잔치 회원 자녀의 장학금지급 등을 행하고 있으며, 대형금고의 경우는 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예전의 금고 사고로 인하여 거래하기를 꺼리는 주민들이 있음은 금고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83년 새마을금고법이 시행되면서 금고 사고에 대한 첫 조치로서 안전기금제도가 마련되어



금고에서 매년 송금하는 출연금과 정부의 보조금으로 87년까지 100억원을 목표하였지만 이를 초과달성하여 160억원에 가까운 기금이 조성되었는데 이를 다시 89년까지 연장하여 200억원이 넘는 기금을 확보하여 사고에 대하여 철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이제 새마을금고도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임을 내세울 수 있겠다.

국가대사의 하나로 88년중에 실시되는 지방자치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가치가 선결문제라는 점은 아무도 이의가 없으리라 보며, 경제적자치를 위한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역에 자금이 많이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밖으로 나가는 돈보다는 밖에서 들어오는 돈이 많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밖으로 나가는 돈이 훨씬 많다는 점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자금(하숙비 포함)이 년 600~700억원, 예금액이 거의 본사 또는 중앙으로 송금되는 보험업계와 우체국이 200억~300억원, 기타 일반금융기관의 경우도 예금액보다는 현지 대출액이 크게 밀도는 것으로 보아 속초 지방에서 타지(특히 서울)로 나가는 돈은(상품판매대금 등은 제외) 년간 1,000억원을 웃돌 것이라 생각되지만 통계자료가 없어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외지에서 반입되는 돈은 절반에 못미치리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상환준비금(은행의 지불준비금에 해당)이 연합회로 송금되는데 전체 예금액의 5%로 나머지 95%는 지역에 머물게 된다.

때문에 지방자치체 실시의 경우 지방경제활성화의 선두주자는 새마을금고임을 자부하지

만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아직도 일부 주민들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하고 모든 저축기관을 골고루 홍보해야 할 시 행정에서 조차 저축홍보자료에 새마을금고를 빠뜨리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속초시에서 관광하는 수도요금을 새마을금고에서도 수납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한다.

이제 이 글을 통하여 새마을금고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아지고, 금고의 이용은 지방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개인적으로는 “금고를 이용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하는 길이다”라는 자세로 모든 주민들이 금고를 이용한다면 개인의 생활향상은 물론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새마을금고는 물론 속초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소식으로 대포동에 5만평의 대지를 확보하여 전국의 새마을금고 가족을 위한 휴양시설을 건설하는 작업이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속초시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의하여 진행중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 간판유감(看板有感)

위와 같은 제목으로 18년전 속초시청 근무시절 한국일보 “백인백상”란에 투고한바 있는데 그후 당국의 간판정비사업에 따라 일정규격으로 도시의 간판정비가 어느 정도 완비되어 가는 과정이어서 꿔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쓴다.

나는 한가로히 시내거리를 거닐때면 길 양쪽에 사열이나 하듯이 늘어선 각양각색의 간판을 하나하나 바라보곤 한다.

그 간판들의 모양과 내용만 보아도 그 밑에 살고 계시는 주인양반님의 성격과 취미도 대개 짐작이 간다면 과연 일까?

집채보다 더 큰 간판, 길앞까지 암체처럼 쑥 빠져 나온 간판, 휘황찬란하게 위용을 자랑하는 간판, 퇴색될대로 퇴색된 초라한 간판, 산뜻하고 아담한 간판 등등.

듣건대 외국에서는 전물에 비하여 간판들은 아주 작다는 데 우리는 전물보다 간판이 더 큰 것이 특색이라 할까.

각설하고 간판의 이름도 가지가지, 예로 들면 이·미용소의 경우 의자 두 서너개 놓고 작은 사랑방만한 면적의 업소도 간판만은 “국제미용소” “파리미용소” “뉴욕미용소” “런던미용소”이다.



李建錫 / 지방행정동우회장

앙이란 말인가.

호빵집 우리창에 써붙인 간판적인 빵이름도 별나고 가지가지. 구미를 돋구는 빵이름도 많으면만 하필이면 “공갈빵”일까. 어린이들에게 파는 한개의 빵이름도 양양이 높은 공갈조의 이름이래야 잘 팔리는지?

이미용소의 간판만 하더라도 그렇게 거창한 이름보다는 순수하게 우리와 거리가 가까운 간판이름은 없는 것일까? “미인미용소” “도라지 이용소” “숙녀미용소” “내고향이 용소” 등으로 말이다.

남의 것은 덮어놓고 좋고 내것은 그만 못하고, 사실 그대로 보다는 크게만 과장하고 허세부리는 심리라면 같이 과장해서 사대주의 사상의 잔재라고 한다면 노여워하실 분이 있을가보아 세계로 뻗고 큰것을 지향하는 진취적 기상이라 친양해 두자. 자기자식 이름짓듯이 자기간판 자기 멋대로 짓고 제작하는데 그 자유를 누가 막으며 탓하리. 하나 우리는 먼곳에서 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높은 곳에서 보다는 낮은 곳에서, 큰일보다는 작은일부터 하나 하나 차곡차곡 꼼꼼하게 고쳐나가는 것도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하는데 크게 보탬이 될 것 같다.

# 東道西器

우리 國民은 半萬年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文化國民으로서 先祖들로 부터 훌륭한傳統을 이어 받았다. 그러나 우리 先祖들은 激變하는 國際情勢에 對處할 수 있는 自主力量의 不足으로 日帝의 武力侵略 앞에 우리의 主權을 喪失당하는 悲劇으로 쓰라린 苦難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함에 우리文化는 말살되고 斷絕되어서 繼承發展이 不可하였다. 그래도 先祖들은 투철한 民族精神과 翡志로 試練과 苦難을 이겨내고 스스로 運命의 開拓者임을 자각하고 外來文化의 浸蝕으로부터 우리文化의 傳統을 지켜왔다. 마침내 世界二次大戰이 終息됨으로서 苦難속에서 主權回復을 위하여 國內外에서 戰爭하던 우리 國民에게 解放이라는 벅찬 기쁨을 안겨 주었다. 참으로 오랜 歲月의 忍苦끝에 우리 것을 되찾는 歡喜의 8·15를 맞이한 것이다. 그러나 그 기쁨은 참으로 짧은 순간이었다.

解放은 되었어도 他意에 의하여 國土는 南北으로 分斷되어 오가지 못하게되고 民族 또한 南北으로 分裂되어 異質化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苦難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또다시 6·25動亂으로 同族相殘의 처참한 悲劇을 겪게되었다. 國土는 戰爭의 소용돌이



高榮和 / 속초문화원이사

속에 國民生活은 어려울 대로 어려워지고 社會紀綱은 극도로 문란하였다.

이럴때 우리 國民은 힘을 모아 社會紀綱의 確立과 貧困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출기찬 努力의 結果 警異의 経濟發展을 이룩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잘못이 있었다. 어려운 生活에서 벗어나 잘 살아 보자는 努力과 慾心은 無分別하게 外來文物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결과 우리 古有의 美風良俗이 浸害되었다.

오늘날 우리 社會가 敬老孝親을 다시 부르짖어야함은 한 예라 하겠다. 일찌기 우리 先祖들은 「東道西器」를 부르짖었다. 이것은 西歐의 外來思想과 文物을 받아들이되 盲目的으로 모방하고 추종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實情에 알

맞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것을 잊어가며 살고있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貴重한 教訓이 아닐 수 없다.

發達된 오늘의 우리生活은 편리하고 윤택함은 사실이나 사람의 참된 모습을 喪失하여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에게는 계절에 맞추어 시행되는 歲時風俗이 있었다. 先祖들은 이 歲時風俗을 통하여 우리 民族에게 教養이 되게 하였으며 東方에서 으뜸가는 禮儀國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生活 속에는 우리 民族의 文化와 風土 그리고 慣習等 生活文化를 이해할 수 있는 歲時風俗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다. 우리들은 歲時風俗을 되살려 참된 精神文化를 繼承發展시키고 분별없이 外來文化를 받아 들여서는 아니되겠다. 또한 풍요로움 속에서 物質에 의하여 喪失된 人間의 참모습을 회복하고 보다 참된 보람 있는 삶을 위하여 우리 것을 啓發하고 지켜나가야 하겠다.

우리들은 죽어서도 大韓民國 國民이기 때문이다. 문득 「너 自身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教訓을 되새겨본다. 自身은 把握하는 일이 긴요하지 않을까. 함께 생각하여 보자.

# 서예와 정신건강



鄭元澈 / 영동서예학원장

우리는 저마다 人生의 農事 를 짓는다. 農夫는 豐盛한 結實과 收穫을 祈願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에 人間은 빵만으로는 살수 없는 존재로 天惠의 自然속에 文化的 環境 을 이루며 살아왔다.

生活苦에 시달리며 받는 精神的 피로내지는 매말라가는 情緒 혼탁한 公害속에서 우리의 生活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마음에는 더러운 때가 끼여 결코 幸福한 生을 살 수 없다.

精神은 痘이 들고 性格은 멍이 든다. 이럴수록 우리는 精神的 安息處가 要求되고 기쁨의 源泉을 찾아야 한다. 近代生活에 餘有가 생기면서 점차 趣味生活에 關心이 높아가고 있다. 얼마나 豐盛한 삶을 사느냐는 問題에 있어 특히 現代와 같이 急變하는 社會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生活

들에게 있어서 趣味는 거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지니고 生의 活氣를 더해준다.

心田耕作이라는 말이 있다. 마음의 밭을 가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아름답고 豐盛하게 갈아서 香氣를 내야 한다. 많은 類의 취미가 있고 각己自身의 趣味가 第一이라 하겠지만 나는 人間의 心田耕作生活에 書藝처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書藝는 筆硯紙墨만 있으면 아무런 부담없이 언제 어디서나 相對가 없이도 혼자서 쉽게 즐길 수 있으므로 男女老少를 막론하고 여가선용과 心身手練에 다시없는 道樂이 된다. 근간에는 心身安定으로 인한 長壽비결에 하나리는 研究發表도 나오고 있다. 글씨를 쓴다는 것은 곧 精神修養이다. 책상앞에 단정히 앉아

먹을 가는 것은 흘어진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고 自躍의 人格을 아름답게 가는 것으로 動中靜 靜中動의 極致이나 墨香속에서 하얀 畫宣紙위에 古人の 書帖을 본받아 한자 한자 써내려갈 때 수많은 破紙 속에 마음을 닦아내며 自己의 人生을 精誠스럽게 쓰는 것이다. 艸을 깨끗이 씻음은 洗心淨魂 즉 때묻은 마음을 씻고 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붓을 잡는 것은 곧 마음을 잡는 것이요 획을 바로 긋는 것은 마음을 바로 긋는 것이다. 한점 한획을 소홀히 하지 않고 쓸 때 精神이 統一되고

情緒가 深化된다.

心正即筆正이라 했다.

마음이 바르고 곧아야 글씨도 바르고 잘 되지 마음이 어지러우면 글씨도 어지럽고 均形이 흐트려진다. 관상가가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의 운명을 대략 적중하듯 글씨는 그 사람을 表現하고 人品을 나타낸다. 그렇게 書者의 心性體質感情에 따라 글씨가 다르게 나타남을 볼때 一筆揮之한 精神統一은 加筆을 不許한自己表出이다.

한편 古典속에는 生活의 左右銘이 되고 人生의 指標가 될수 있는 金科玉條의 珠玉같은 말씀들이 저장되어 있어 書를 공부하면서 생활의 眞理를 터득할 수 있다. 이런 文句를 韻致있게 써서 친구에게 전해주거나 後孫들에게 傳하는 것은 書藝만의 特權이요 寶貝이다.

더구나 書는 東洋古來의 傳統의 藝術로 우리民族의 精神文化遺產 가운데도 右手 역할을 하였으니 소위 현대감각이라는 波高속에서 韓國의 氣와 風을 보이는 高尚하고 우아한 취미로 傳統文化의 繼承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좋은 취미는 정신의 安息處로 來日의 生活에 活力素가 되고 좋은 취미의 所有者は 健康하고 創造의 生活이 될 수 있다.

雪嶽山과 東海의 山水流麗한 이 要覽에서 墨香과 더불어 우리네 生은 얼마나 高尚하고 香氣롭겠는가?

# 雪嶽圈 개발을 위한 市民의 緊急動議

- 金鍾祿 번영회장과 池一權 本誌 편집위원과의 對談 -

池：늦었지만, 번영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번영회에, 그 어느 때보다도  
市民들의 기대가 큰듯 합니다.

金：번영회란,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모임입니다. 지역발전이란 것은, 지  
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든다는  
뜻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市民들의 단합된 意  
思결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번영회는 이 의사  
결집에 주력할 것이고, 그것으로써 우리 고장  
의 숙원사업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것입니다.

池：요즘 지역민들의 최대 관심이라면 어떤사  
업이 있겠습니까.

金：역시, 고속전철 종착역 유치 문제겠지요.  
정부가 이 사업을 처음 기획하게 된 것은 설  
악권 중심의 관광단지와 연결시키겠다는 의도  
에서였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  
장은 천혜의 관광寶庫입니다. 세계적인 명산,  
전혀 오염되지 않은 청정해역, 해수욕장, 호  
수, 온천, 약수, 스키장 최근에 개발된 통일  
전망대 등이 설악권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  
습니다. 명실공히 국민휴양지로 손색이 없지  
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과 두시간대의  
거리로 단축시킬 경우, 이곳은 그들의 앞뜰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원관광으로 공해  
와 소음에 찌든 그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비  
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지요. 따  
라서 이는 지역사회 개발의 차원을 떠나서 범

“  
국민휴양지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이 설악권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과  
두시간대의 거리로 단축시킬 경우,  
이곳은 그들의 앞뜰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지역사회개발의  
차원을 넘어서  
범 국민적 숙원사업으로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



국민적인 숙원사업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  
남북관광열차가 곧바로  
금강산과 연결되어……”

**池** : 최근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종착역이나 경유지가 강릉이 될 것이라 하는데.

**金** :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고속전철은 어디까지나 관광산업전철이지 화물 완행열차가 아닙니다. 고속전철이 춘천 호반을 끊고 내설악으로 들어올 경우 서울에서 불과 150km의 거리인데 비해, 강릉을 경유하게 되면 320km나 됩니다. 고속전철은 최단거리를 최단시간에 운행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池** :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이니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야 할 텐데요.

**金** : 그렇습니다. 멀지않아 북한과 통일을 이루거나 화해가 되어 남북을 자유로히 왕래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단일민족이니 이 상황이 영구히 고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세계의 다이아몬드라는 금강산과 불과 80km 거리에 바로 설악산이 있읍니다. 남북 관광 열차가 곧바로 금강산과 연결



金鍾祿 번영회장

“우리 번영회는 고속전철유치를 위해, 그야말로 사활을 걸 것입니다.”

## 교육문화 不在의 오명을 씻기 위해 서라도 4년제 대학은 꼭 유치되어야 할 문제이고…

될 수 있다는 얘기죠.

池 : 생각만해도 가슴 벅찬 일이군요. 아닌게 아니라 국가적 숙원사업이라 할만합니다.

金 : 우리 번영회에서는 이 사업 추진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것입니다.

池 : 4년제 대학 유치도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모여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金 : 속초시민뿐 아니라 설악권의 30만 주민 모두의 숙원사항입니다. 수복지구로서 실향민들의 온갖 애환을 담고 있는 마을인데도 지나치게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들의 높은 교육열에 따른 자녀교육 관심도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고, 또 이렇다할 교육 문화 시절이 전무한 형편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북지방을 교육과 문화 不在의 낙후지역으로 만든 근본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池 : 대학이 유치된다면 어떤 학과들이 개설되어야 할까요.

金 : 물론, 수산학 분야나 관광학 분야 중심이 되어야겠지요. 우리의 수산업 발전에 이론적근거를 제시하고, 우수한 관광분야 인재들을 양성할 곳으로는 이곳이 최적지입니다.

池 : 속초방송국 시설 확장은 오래 전부터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金 : 물론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였는데도 설악권 지역의 모든 방송활동이 강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매년 관광객이 400~500만명씩 운집하고 있고, 또 이곳 주민들이 실향민들로 구성된 이른바 안보전초도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 비해, 지역 생



池一權 편집위원

**“미시령 도로는 국도로  
다시 승격되어져야 합니다.”**

지방방송이 지방언론의場이 되자면, 하루빨리 시설확충은 물론 T.V 방송이 실시되어야…

활권 소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한 문제가 있습니다.

池 : 지방방송이 지방 언론의 역할도 담당해야 할 것인데 현재와 같은 라디오 방송만으로는 미흡하다는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金 :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지역 주민의 욕구가 분출될 것인데, 이러한 여론수렴의 장을 지방방송국이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텔레비전 방송이 빨리 시작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400만명이 넘는 설악권 관광객들에게 설악권 방송국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 당위성이 설명될수 있을 것입니다.

池 : 청초호 개발 문제도 시급한 것으로 압니다.

金 : 최근의 동명항 방파제와 청초동 방파제의 연장으로 의해 청초호의 오염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미 당국의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이는 지체없이 그 대책을 추진해야 할 문제입니다. 나아가 설악산과 청초호를 연계 개발하여 국제 관광지로 성장시키고, 이로써 시민 소득과 직결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 개발이 요망되는 일입니다.

池 : 속초고등학교 이전 문제는 어떻습니까.

金 : 그건 현재 추진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 자리하고 있는 校舍는 속초중학교가 사용하고 속초고등학교는 장사동으로 연내에 옮겨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실 24개, 체육관 1개동 등 총 43실 8동이라고 하는데 아마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池 : 미시령 포장문제도 추진중에 있다고 들었

미시령 포장문제와, 시민문화공간의 不在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화회관의 건립 또한 시급히 해결 해야…

읍니다만.

金 : 관계 당국에 의하면, 포장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5.5km의 구간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지금처럼 서울 또는 춘천으로 가기 위해서 양양군을 거쳐 한계령을 넘거나, 고성군을 경유해 진부령으로 넘던 불편은 해소될 것입니다. 최단거리인 미시령을 넘는다면 최소한 30~40분은 단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덧붙인다면, 미시령도로는 국도로 다시 환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池 : 시민 문화공간의 不在 또한 무수히 지적되어 온 사항인데, 문화회관 건립문제는 어떻습니까.

金 : 역시 관계 당국에서는 10월 말경 예정대로 완공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속초문화회관은 이렇다할 문화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절대적인 시민 숙원사업입니다. 완공될 경우 “속초문화”의 근원지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池 : 이처럼 산적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冒頭의 말씀처럼 市民들의 의사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직되고 획일화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시민 본래의 권리를 회복하는데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

“  
산적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市民들의  
의사결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경직되고 획일화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시민 본래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 육체의 등잔에 영혼의 불을 켜고

몸은 지상에 끓여도  
마음은 하늘에 살아야지  
이가지 저가지를 해매며  
바람으로 불어도  
영혼은 저 하늘에 별로 피어야지  
절망으로 울던 그 가난도  
찬연한 아픔으로  
천상에 빛나야지

# 육체의 등잔에 영혼의 불을 켜고

-詩人 李聖善論-

①

우리는 지금 상실과 부재의 시대를 살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역사는 진실을 왜곡하고, 우리의 사회는 엄청난 불신의 높에 빠져 허위적거리며,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은 송두리째 뿌리가 뽑힌 메마른 풀잎들의 서걱거림과도 같다.

따라서, 거칠고 척박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는 오늘의 '없음'에 대한 내일에의 '있음'을 갈망하는 희망과 그리움의 노래이어야 하며, 시인은 뒤틀린 세계를 부정하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여 '살아있음의 아름다움'을 노래함으로써 오늘의 결핍을 채워야 한다. 이것은 시대적, 문학적 요청인 것이다.

②

이성선 시인은 혼탁해질대로 혼탁해진 우리의 현실속에서 하나의 램프(희망)일 수 있고 밤하늘의 별(그리움)일 수 있는 시적 현실을 성취해 나가고 있다.

한밤 짐승이 되어 울까  
눈물 가득 꽃이 되어 울까  
광야에 웅크려 하늘을 본다  
몸은 지상에 묶여도  
마음은 하늘에 살아야지  
이 가지 저 가지를 헤매며  
바람으로 울어도  
영혼은 저 하늘에 별로 피어야지  
절망으로 울던 마음 그 가난도

찬연한 아픔으로 천상에 빛나야지.

-몸은 지상에 묶여도-

이성선은 <밤새워 눈을 뜨고 이 땅을 내려다보는 새벽별>을 삶의 지표로 <곧고 바르게 살기, 더우기 맑고 아름답게 살기>를 꿈꾸며 <연필 하나>를 지팡이 삼아 밤을 지새 걸어가는 시인이다. 그러나 현실적 세계는 여전히 시인의 이러한 갈망을 배신한다.

내일은 나를 좀 풀어줄까  
벗줄아, 내일은 나를 좀 풀어줄까.  
내일이 오고 또 내일이 오면  
좀 더 가는 벗줄로 날을 묶을까.  
내일이 오늘이 되어 내일이 오면  
나는 벗줄을 풀고 날개를 펼까.  
내일이 오늘이 되어 내일이 오면  
내일이 오늘이 되어 또 내일이 오면  
그러나, 아아 그것은 더욱 굳어서  
나를 조이네.

-내 일-

그럴 때마다 마땅히 감수하여야 하는 고통과 자기 부정 앞에서 참으로 시인은 눈물겨운 사랑을 익히지 않을 수 없을 것만 같다.

나는 너에게 가서 떨리고 싶다.  
너도 나에게 와서  
떨리는 작은 꽃이 되어다오.  
나에게 나의 순결을 주고 싶다.

詩人 李聖善은  
 우리의 현실속에서  
 하나의 희망일 수 있고  
 밤하늘의 별일 수 있는  
 시적 현실을  
 성취해 나가고 있다.



나에게 젖은 가슴을 다오.  
 풀잎 입술을 다오.  
 우리는 어두운 바람  
 별 아래서만 조금씩 얼굴 비추며  
 서로에게 눈물짓는 풀꽃  
 나에게 떨리는 눈동자가 되어 다오.  
 나는 네 가슴에 작은 풀꽃등으로 피고 싶다.

—풀꽃사랑—

이성선의 시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 혼한 좌절이나 헛된 맹세가 아니다. 그의 시는 낡고 흔한 서정이 아니라 ‘빛나는 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성선을 가리켜 <참으로 아름다운 영혼을 지닌 시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바라보면 지상에서 나무처럼  
 이름다운 사람은 없다.  
 늘 하늘빛에 젖어서 허공에 팔을 들고  
 촛불인 듯 지상을 밝혀준다.  
 땅속 깊이 발을 묻고 하늘 구석을 쓸고 있다.  
 머리엔 바람을 이고 별을 이고  
 악기가 되어 온다.  
 내가 저 나무를 바라보듯  
 나무도 나를 바라보고 아름다와 할까  
 나이 먹을수록 가슴에  
 깊은 영혼의 강물이 빛나  
 머리 숙여질까.

—아름다운 사람—

이성선은 육체의 등잔에 영혼의 불을 켜고 기도한다. 하늘의 종이 되어 마음 가난으로 우는 영혼을 찾아가고 해매는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성선은 온 몸에 불을 냉겨 어두운 땅 한번 환하게 빛내고 불이 되어 하늘로 가리라 한다.

### ③

이 성선 시인은 「문화비평」(70년)과 「시 문학」(72년)으로 등단한 이후 7권의 시집을 출간하면서 작품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87년을 보내면서 주요 일간지와 월간 문예지에 그의 작품이 높이 평가된 바, 그중에서 김재홍(문학평론가)씨의 평을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이성선 시인은 우리 시의 전통적 맥락이라 할 수 있는 서정의 세계를 지속적으로 전착함으로써 이 땅 서정시의 본령을 지키고 있는 시인이다. 그의 시에서는 빛나는 별의 침묵이 전해오기도 하며, 풀잎 맑은 잎을 타고 올라가는 물방울의 투명한 노래가 들리기도 하고, 가슴에 젖어오는 가난하고 어진 이웃들의 따뜻한 눈빛과 언어가 올려오기도 한다. 그의 시는 그만큼 따뜻하고 맑은 서정이 섬세한 가락의 언어로써 형상화되어 독특한 시적울림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놓여진다”.

글: 강석태 (물소리 詩낭송회 총무)

## 물소리 詩 낭송회



물소리 시낭송회는 속초의 시인들이 규합되어 이 지역문화 독자들에게 현대시를 접하게하고 지방문화의식을 고취한다는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1981년 9월 이성선을 중심으로 최명길, 이상국, 고형열, 강석태 등이 창립 회원으로 가담하였다. 그동안 이상국과 고형열이 탈퇴하고 새로 김송희, 이완우, 이광예, 이선국 등이 가담하여 현재는 7명의 동인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창립 시낭송회를 가진 이후 현재 40여회를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의 주요 활동내용에 의하면, 이들은 회원들의 시낭송뿐만 아니라 중앙의 이름있는 문학인들을 초청, 독자들의 열망을 충족시켜 주어 왔다.

지금까지 초청된 문인을 보면, 박희진·구상황·금찬·성찬경·민영·이근배·전상국·박동규·강우식·박호영·정진규·이반·조영수·안경원·이언빈·신승근·박기동 등이다.

이들은 매월 2회에 걸쳐 정기모임을 갖고 회원들의 작품을 평가하고 행사에 대한 토론을

거쳐 차기행사의 방향과 계획을 세운다. 처음에는 동인 중심으로 행사를 추진하였으나, 점차 독자와 거리를 좁히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현재는 초청 문인, 동인, 독자들의 습작시 낭송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행사지역은 속초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때로는 타지역(고성(2회), 양양(2회), 주문진(1회), 강릉(1회))으로 자리를 옮겨 실시하기도 하여 영북지성의 문화의식 고취에 힘쓰고 있다.

이 낭송회에는 매회 100여명의 독자들이 꾸준히 호응해주고 있어 이제는 정착단계에 접어 들었다. 그래서 영북지구에 시낭송붐을 일으킬 만큼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어떤 낭송회에도 뒤지지 않을 알찬 발전을 하였다.

이 회의 운영비는 상임시인들이 전담하고 있다. 다소 부담스럽지만 일부 후원금과 광고료의 보조, 그리고 문학에 대한 열의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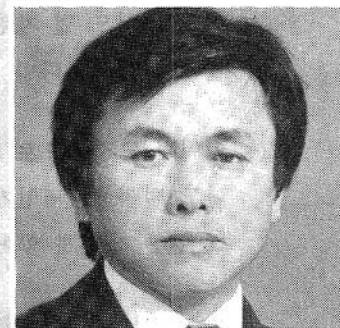
이들은 현재 50회 특집행사를 계획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시낭송 공간의 마련, 시극활동으로의 확대, 회원들의 동인지 발간 등을 구상하고 있다.

그간의 활동으로 전국에서도 지명도 있는 詩 낭송회로 발전한 이 낭송회는 몇 가지 어려운 점(경비조달, 낭송장소 등)이 차츰 호전된다면 명실상부한 강원지성의 시 낭송회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글은 “지역문화예술활동 사례조사 보고”(신구전문대 민속문화연구소)에서 원문대로 옮긴 것입니다). — 편집자註〉

李聖善 제7시집 발간기념  
속초문화小詩集 (1)

# 별까지 가면 된다



약력 : 1941년 강원도 고성 출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1970년 「문화비평」지로 작품 활동 시작  
1972년 「시문학」으로 추천  
시집 : 「시인의 병풍」(1974년)  
「몸은 지상에 뿐여도」(1979년)  
「나의 나무가 너의 나무에게」(1985)  
「별이 비치는 지붕」(1987)  
「별까지 가면 된다」(1988)  
장시집 : 「하늘문을 두드리며」(1977)  
「밧줄」(1982)  
현, 물소리 시낭송회 상임시인  
양양고등학교 재직

## 고향의 天井

밭둑에서 나는 바람과 놀고  
할머니는 메밀밭에서  
메밀을 꺾고 계셨습니다.

늦여름의 하늘빛이 메밀꽃 위에 빛나고  
메밀꽃 사이사이로 할머니는 가끔  
나와 바람의 장난을 살피시었습니다.

해마다 밭둑에서 자라고  
아주 커서도 덜 자란 나는  
늘 그러했읍니다만

할머니는 저승으로 가 버리시고  
나도 벌써 몇 년인가  
그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후

오늘 저녁 명석을 펴고  
마당에 누우니

온 하늘 가득  
별로 피어 있는 어릴 적 메밀꽃

할머니는 나를 두고 메밀밭만 저승까지 가져가시어  
날마다 저녁이면 메밀밭을 매시며  
메밀꽃 사이사이로 나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 耕 作

새벽에 농부는 밭을 간다.

챙깃날에 햇빛이 갈리어  
밭고랑에 넘어진다.

고랑마다 번쩍이는 하늘 물소리.

밤내 껴안고 신음하던  
마음의 밭뙈기를 꺼내  
벌판에 펼쳐놓고  
힘껏 갈아가는 농부

넘어지며 부서지며 농부는  
밭을 간다.

들밭을 갈고 바람을 갈고 산악을 갈고  
아내의 바닥에 고인 슬픔을 갈고  
아이의 눈 속에 핀  
새소리를 갈고.

그가 갈아온 밭고랑에  
고인 눈물  
하늘에나 빛나는 가난한 물빛

일생을 갈고 와 이제  
황혼의 밭끝에 섰다.  
그의 밭 아래 다 갈려넘어진 벌판  
찢긴 밭고랑에 피빛으로 타는 놀

노을 속에 끝내 자기마저 갈아버리는  
그의 뒷모습이  
어둠에 잠기고 있다.

## 별을 보며

내 너무 별을 쳐다보아  
별들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내 너무 하늘을 쳐다보아  
하늘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별아, 어찌하랴.  
이 세상 무엇을 쳐다보리.

흔들리며 흔들리며 걸어가던 거리  
엉망으로 술에 취해 쓰러지던 골목에서

바라보면 너 눈물같은 빛남  
가슴 어지러움 황홀히 행구어 비치는  
이 찬란합마저 가질 수 없다면  
나는 무엇으로 가난하랴.

## 귀

내 귀를 비우고 싶네.

거리의 소리가 너무 높아서

진실도 거짓도 알기 어려워

내 귀는 쉬고 싶네.

내 귀를 이젠 바다를 향한

보석함으로 두고 싶네.

사람의 파장을 뛰어넘어서

다른 떨림의 울림 속에 들어가 살고 싶네.

풀잎 사이에 내려놓고

풀잎들의 맑은 목소리나 듣고 싶네.

나무들의 숲으로 가서

짐승과 별과 달과 바람이 얼굴 비비며

속삭이는 나라의 소리를 듣고 싶네

내 귀를 이젠 비우고 비워서

떨리는 사랑의 소리나 가려 듣고 싶네.

## 외로운 사랑

나는 다른 시인이 될 수 없음을 안다.  
풀잎과 마주 앉아서 서로 마음 비추고  
남들은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로  
함께 꿈꾸며  
별을 바라 밤을 지새는  
시인이면 죽하여라.  
그것만으로 세상을 사랑한다.  
그와 내가 둘이서  
눈동자와 귀를 서로의 가슴에 묻고  
사랑의 뿌리까지 영롱히 빛내며  
저 하늘 우주의 올림을  
들으면 된다.  
세상의 신비를 들으면 된다.  
그의 멀림으로 나의 존재가 멀리는  
그의 눈빛 속에 내가 꽂 피어나는  
그것밖에는 더 소용이 없다.  
그렇게 별까지 가면 된다.

## 속초문화小詩集 (2)

# 青湖洞 새 섬

전쟁 전까지만 해도  
그곳은 단지 갯벌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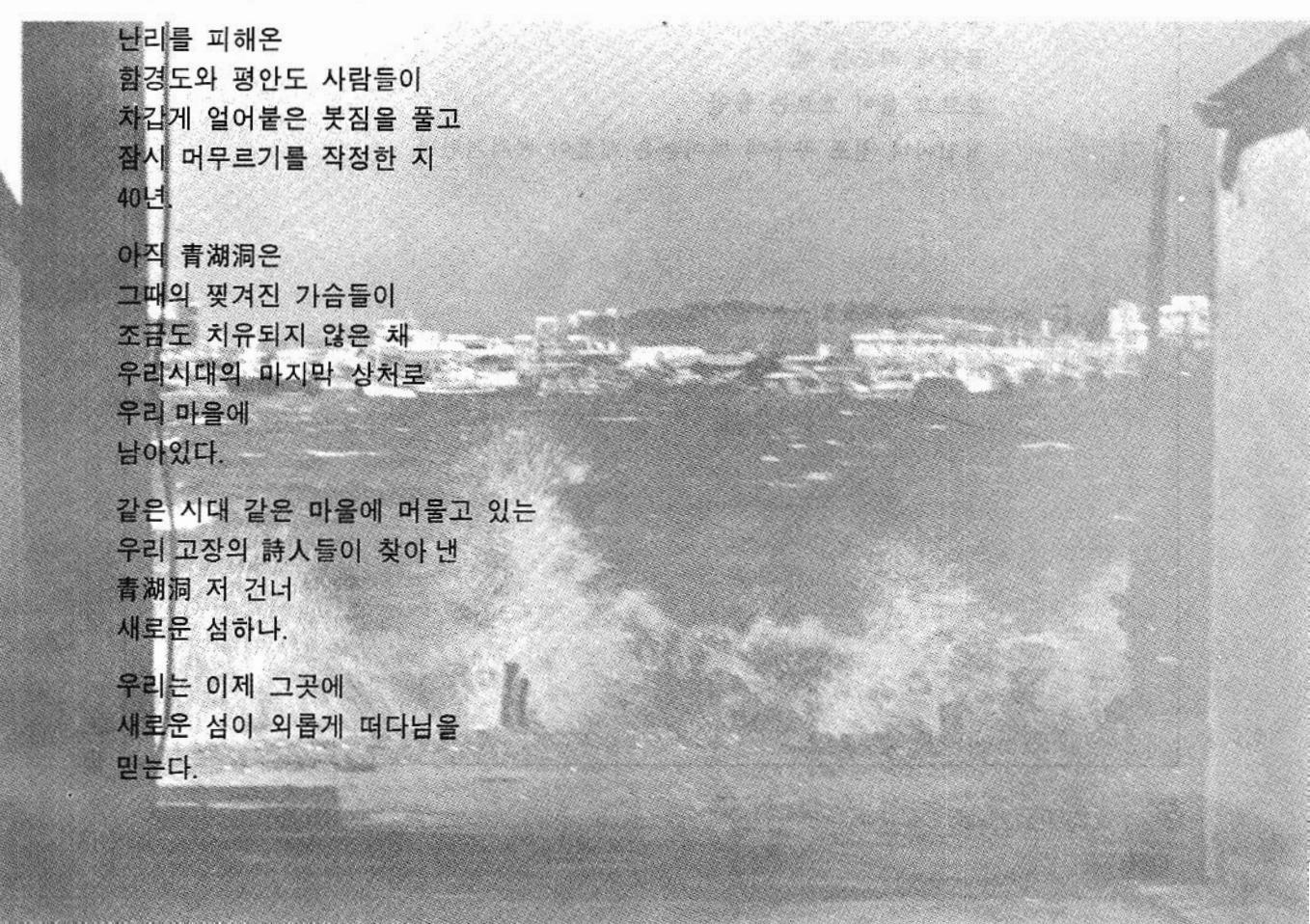
설악문우회

난리를 피해온  
함경도와 평안도 사람들이  
차갑게 얼어붙은 봇짐을 풀고  
잠시 머무르기를 작정한 지  
40년.

아직 靑湖洞은  
그때의 끊겨진 가슴들이  
조금도 치유되지 않은 채  
우리시대의 마지막 상처로  
우리 마을에  
남아있다.

같은 시대 같은 마을에 머물고 있는  
우리 고장의 詩人들이 찾아 낸  
靑湖洞 저 건너  
새로운 섬하나.

우리는 이제 그곳에  
새로운 섬이 외롭게 떠다님을  
믿는다.



## 떠도는 청호동

이상국

떠나야지.

청호동은 청호동 사람들의 땅이 아니고

그저 남한의 공유수면일 뿐,

이곳에선 물이 흐를 때마다

자꾸 발목이 빠진다.

잊혀지지 않으려고

잠들지 않으려고

서로 모래뿌리는 저녁

갈매기들이 청초호 더러운 물에 부리를 박고 있을 때

늙은 아바이들이 눈시울을 적시며 바라보고 있다.

섬이 아닌줄 알면서도

끌끌내 떠도는 섬,

흐르고 물이 흐르는 동안

청진이나 신포 부두에 매어놓은 배들이 삐걱거린다.

## 青湖洞 새섬

이상국

청호동 방파제 너머 떠다니는 섬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장화를 신은 채 청호동 사람들마저 잡들고  
홍남이나 청진 물이 속초 물과 쓰린 속으로  
새 섬 근처에서 카캄한 소주를 까다가 쓰러지면  
북쪽으로 날아가는 새섬을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  
헐떡거리며 짐승처럼 날다 바다의 벽에  
다치고 돌아와 죽은듯이 잠드는  
청호동 방파제 너머 새섬을 사람들은 모른다.  
청호동 사람들의 동해 밑바닥 국적없는 고기를 잡거나  
모래위에 집짓고 아이들을 낳는 사실을  
믿거나 믿지 않는 건 무서운 일이다.  
나룻배 끊기면 흐르는 땅 모래 껴안고 아바이들 잡드는  
청호동 방파제 너머 이남 물과 이북 물이  
야 이 간나이 새끼 마이 늙었구만 하며  
공개적으로 억세게 무너지면  
동해속으로 사라질 청호동은 잠시 객지일 뿐이고  
분명히 객지여야 한다.  
청호동 방파제 너머 청호동 사람들의  
흐르는 섬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 청호동 안개

이 상 국

그물이나 작살로는 잡을 수 없는 안개  
때문에 원산이 보이지 않는다.  
원산이 보이지 않으면 보일 수 없는 서울  
안개 속에 넘어진 청호동 아바이들은  
동해 모래바다에 못을 박으며  
캄캄한 소주만 마신다.  
안개가 청진을 먹고 원산 진남포를 먹어치우고  
목포 인천을 먹으며 산을 넘어와  
뻔뻔스럽게 청호동 여자들과 동침하는 밤에도  
속초 등대나 같은 인천 무적(霧笛)으로는 속수무책이다.  
청호동이 아프면 같이 아프다고 안개 속에 몸을 숨기고  
원산이 없는 사람들이 아프다 하면 속을 수 없는 청호동.  
서울에서 보이지 않는 원산은 청호동에서 보일 리 없다고  
항하여 배 타고 떠나는 오리무중.  
지워져야 한다고, 아픈 청호동은 지워져야 한다고  
안개는 속삭인다. 전라도나 함경도는 지구에 없다고  
먹어치우는 안개 잡으려고 작살이나 그물 께 들고  
넘어진 아바이들 기쓰다 잡들면  
지워지지 않으려고 우는 청호동.

## 청호동 나무

김 춘 만

가지를 치고 있어요. 파고들이 모래뿐인 땅 위에 피는  
소금꽃나무들은 흔들리며 소금을 뿜어내요. 이 세상 한복판  
낯선 땅에서 날아온 가지들이 비린 안개와 모래바람  
속에서 그렇게 쓰디쓴 수액을 나누는 일은 신기해요.  
보아요. 발바닥 써늘한 소금밭에 지난 날을 묻어두고  
흰뼈의 통통선은 어디로 가는지 안개가 끌고 다니는 적막뒤에서  
맨발의 아이들이 뛰어 올라요. 그물을 치고 친 그물을 끌어  
올리는 아이들의 익숙한 장난질 속에는 펼떡거리며  
아비가 놓친 고기떼가 걸려들고 와와 작은섬을 채우는 환호 소리에  
나무가 흔들려요. 흔들리며 소금을 뿐어내요.

## 청호동 아바이

장승진

엊저녁 청호동에서 마신 소주는  
그리운 바닷물인줄 알았다.  
어쩌면 그놈이 마시고 간 바닷물도  
십중팔구 쓱쓰름한 소주맛이었을지 모른다.

휘청이는 바닷물에 떠서  
잠기는 빛줄 전져 올리며  
힘있게 벨아내는 소주 기운이  
매양 이승의 아침으로 닥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판장 죽은 생선들  
감지못한 눈동자 핏발같은 햇살로  
따스해져오는 속초의 지붕들과 창문들을  
아슴아슴 바라보는 것 또한

낯설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엊저녁 청호동에서 마신 소주는  
정말 내 고향 바닷물인 줄 알았다.  
부러진 나무 젓가락 두드리는 소리도  
젊은 날 네녀석들 웃음소린 줄 알았다.

## 한국의 시

이 땅에 새로 심은 나무들이 자라고  
뜰 앞 꽃덤불도 해마다 줄기를 키우는데  
술깨는 아침이면  
동전만한 크기로 가물대는 땅  
고개돌려 따라가면  
무더기로 내다버린 눈동자들 뿐인 바다

바람만 드나드는 눈자위에  
하나 가득 다시 해장술을 따르면  
아바이 아바이 고향이 어데요  
아바이 아바이 타향은 또 어디메요  
갈매기를 끼룩대는 소리에  
새로 듣은 하루가 물살로 감긴다.

## 청호동 바람

채 재 순

청호동 갯배에서  
젊은 狂女를 만났다.  
질긴 사슬에 끌려가는  
女人의 속문을 열고  
걸어 들어가는 바람  
고쳐주시오,  
늘 열이 있는 날 고쳐주오  
자신없는 큰 소리로 부르는  
토막난 음절 사이로  
파고드는 바람

오징어 내장속에 절여겼다가  
살아난 소금기 바람이  
깨어 있으라고  
肉身에 감긴 어둠을  
툭툭 털고 일어서라고  
얘기한다.

청호동 마실 지붕위에서  
광녀의 밀바닥 밑으로 추락하는  
바람

밖으로 밖으로 나와  
햇발 디딘 세상  
女人의 맨발은 어디로 떠나는가  
거리마다 등등 떠다니는 청호동 바람  
청호동 사람들 가슴 언저리로  
빠져드는 바람  
중얼거리며 머리칼 풀어 헤치고  
뛰어다니는 바람.



# 청소년文化

## 집배원 아저씨만 보면

김종영 / 아동문학가

집배원 아저씨만 보면  
가슴이 설렌다.  
뛰어가서 아저씨 얼굴을 본다.

집배원 아저씨는 웃으시며  
고개를 젓는다.

오늘도 소식이 없어  
시집 간 누나가 원망스럽다.  
전학간 순희가 얄밉다.

복사꽃 가지에 붉은 물이 오르고  
강가가 연두빛 날개를 펼치고 있는데  
소식이 캄캄일까?

산길을 오르다  
몇번 뒤돌아본다.  
점점이 사라지는 집배원 아저씨  
'소식을 먼저 보내렴. 보내면 온단다'

해님이 떠있는 하늘가로  
발그랗게 떠오르는  
누나 얼굴 순희 얼굴

솔바람과 함께 산길을 뛰어오르며  
몇번이나 마음에 편지를 쓴다.

## 가을걷이

이성숙 / 속초상고

어둠이 해를 쓰러 뜨리고  
있다.

기인 들  
살찌게 부푼 땀방울  
그 아득한 한 날에의 기다림

불면에 잠긴 달은,  
풀벌레 울음속에 흐느적거리고  
쉼없는 간구는,  
경사진 기도를 잉태하는데……

장대같은 벚단을 장사 지내면  
앙상한 그 위로  
무수한 가을이 꽃잎처럼 쌓인다.

## 가을걷이

박영신 / 설악여중

파아란 하늘이 내게로 다가선다  
까닭모를 무거운 짐을 지게 하며  
차곡차곡 쌓아온 나의 작은 성숙을  
이제는 어느 먼 촌동네에  
거칠은 아낙네의 손으로 거두어 들이려 한다.

유유히 교만하지 않으며 자라온  
하늘 밑의 널따란 대지속에서  
침묵인 채 가만히 스며드는 향수  
  
하나 둘 셋  
어느 사이엔가 세개의 계절을 소유하고  
또 다시 마지막 잉태를 서두르는  
길고 긴 시간의 분주한 모습.

사람들의 발길에 채이며  
들리지 않는 여린 신음을 토해내고  
아파하는 메마른 낙엽들의 품에서  
왜인지는 모른다.  
  
다른 하나의 나로 태어나  
어스름한 가을 오후를 맞는다.

## 소 풍

이종원 / 교동국교

머리위엔 맑은 하늘  
빌아랜 푸른 잔디  
야호 야호 기쁘다.  
즐거운 소풍이다.

산 너머엔 맑은 강물  
술술 부는 가을 바람  
야호 야호 기쁘다.  
즐거운 소풍이다.

저 높이 하얀 구름  
저 멀리 시냇물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즐거운 소풍이다.

우뚝 솟은 높은 산  
싱그러운 풀 냄새  
모든 것이 내것이다.  
즐거운 소풍이다.



## 가을걷이

구경희 / 속초상고

두줄 짚게 파고든 가을 햇살속에 잠시 잃은 추억의 웃음을 찾아 떠나본다. 개구리 한산하게 울어제칠때면 내 고향집 언덕 위엔 정겨운 귀뚜라미가 박자를 가로채곤 했었다.

뒷산에서 조금 내려오면 길게 펼쳐진 논똑길엔 고개 놀린 벼이삭의 색깔이 고아 나이 어린 동무들과 거닐때면 으레 그것을 놀이삼아 몰래 뜯어 안에 수줍어 숨어있던 흰쌀을 빨라 먹곤 좋다고들 웃어대곤 했었다.

농번기철이 오면 동네 아주머니들과 어머니께선 광주리에 무언가를 가득 채우시곤 웃음 가득 머금은 고개를 넘어 갈때면 재밌게 노닐던 고무줄 놀이도 내팽개치곤 뒤이은 명명이 따라 발길을 옮겼다.

채 배우지도 못하고 어디서 귀동냥으로 들었던 유치원생의 노래를 우리들 각자의 작곡으로 멋대로들 흥얼대곤 했었는데……

가을햇살이 그때엔 푸른빛이었는지도 몰랐을 게다.

그저 흰구름이 없어 눈이 부시다는 것밖엔……

아주머니와 어머니께서 손수 만드신 열무김치에 온갖 맛난 음식들이 둘러앉은 동네 어른들의 입속으로 한차례씩 들어갈때면 곁에서 지켜보던 우리네들의 입속에도 시큼한 군침이 온 입속에 찌르듯 번져오곤 했다.

엄마의 치마폭을 잡아 당기며 “엄마 저거저거”라고 칭얼댈때면 엄마는 웃으시며 대뜸 맛난 음식을 내 앞에 내주시곤 했다.

그때엔 집에서도 먹던 열무김치였어도 세상 제일의 맛난 그 맛이었다. 밥그릇 두 개를 거뜬히 해치우곤 같이 놀던 동무들과 내려 올때

면 논에 앉아 놀고 있던 빨간 고추잡자리를 잡아 꼬리부분이 예뻐 실로 꿰매어 하늘에 높이 띄워 보내던 때도 어렵잖이 머리를 스치운다.

길게 늘어놓은 앞 마당의 빨랫줄 위엔 뭐가 그리도 좋았는지 줄지어 날아온 가을 잡자리를 하나, 둘 잡아 빈 깅통에 가득 채워놓고 방안 가득 날렸다가 날개짓을 하지못해 방바닥으로 떨어진 잡자리를 보고 날지 못한다하여 엉엉 울고 있으면 엄만 눈깔사탕을 사주며 달래고 잡을 채워주곤 했었다. 지금은 앞마당에 날아들 잡자리도 뵈지않고 간혹 들려오는 귀뚜라미와 같이 노닐던 동무들의 얼굴만이 떠오른다.

이젠 농번기라 맛난 열무 김치도 맛을 모르고 누런 논도 볼 수 조차 없어 가을이 돌아오고 돌아갈때면 지난 추억이 애석하게만 전해온다.



## 가을걷이

허정일 / 설악중

가을은 많은 사람들이 밭을 갈고 그곳에 씨앗을 뿌려 정성과 노력을 다해 수확을 거두는 결실의 계절이다. 그래서인지 농촌의 일손은 더욱 바빠진다.

농촌에 사시는 우리의 이모님댁도 요새 한창 바쁘실 때이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조금이나마 일손을 도와 주신다.

바람이 일지 않는 날이었다.

이모네의 농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모부께 농사에 판매 여쭈어 보았다.

“이정도면 농사가 잘 되었나요. 저번 수해 때문에 벼가 많이 쓰러졌을 텐데요” 물으니 이모부께서는, “저번 수해때는 땅을 홀리면서 그 쓰러진 벼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게 노력해서 풍년이 되게 하는 것이 참된 나의 일이며 이때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 하고 상냥하게 말씀해 주셨다. 이모부의 그 말씀을 들으니 고개가 숙여졌다.

이모부도 이모도 삼촌도 모두가 벼 베는 일을 열심히 하셨다. 그 얼굴에서는 굵직굵직한 땀방울이 흘러 내렸다.

하지만 벼 벤 곳에서는 논메뚜기가 이리 저리 뛰고 있었다. 그러면 아이들은 메뚜기를 잡느냐고 정신이 없다.

나도 덩달아 같이 잡았다. 긴 풀에 끊거나 빈병에 넣기도 했다. 어떤 메뚜기는 빠르고 어떤 것은 그냥 내 손에 잡혔다. 사람들은 모두가 일에 열중인데 놀면서 메뚜기를 잡는 것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덧 벌써 점심시간이 되었다. 이모와 어

머니께서는 점심을 차려 오셨다. 논두렁에 걸터앉아 아저씨들은 시원한 막걸리를 잡수면서 국에 밥을 말아 잡수시기도 했다. 아이들은 나무를 가져다 불을 피워 오전에 잡은 메뚜기를 볶아 먹었다. 자글자글 볶는 기름 냄새가 고소했다. 맛도 고소한게 맛있었다. 야외에 나와 여러 사람들과 밥을 먹으니 밥은 더욱 맛이 좋았다. 잡수신 후 어른들께서는 일에 열중했다. 나도 벗단을 날랐다. 벗단을 나르며 잠시 하늘을 보면 고추 잡자리들은 하늘을 자유로히 날아 다니고 있었다. 참새들은 멀어진 날알을 쪼아 먹기도 하였다.

이러한 푸르름을 마시고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보니 마음이 편안했다.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졌다. 때마침 이모부네의 농사도 거의 끝나갔다. 더 기쁜 것은 이모부께서 농사가 잘되어어서 흐뭇해하시는 표정이다.

저녁에는 밭에서 캔 고구마를 내오셨다.

먹음직스러웠다. 먹으면서 하늘을보니 별들은 하늘을 수놓은 듯 아름다웠고 홀로 떠 있는 달은 믿음직스럽게 여겨졌다. 시원한 바람 또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노고를 잊게 했다.

황금들판은 이젠 내년이나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다. 또한 풍성한 과일도 거의가 다 맴으니 이모부네는 편하실 것이다. 이모부댁은 정말로 많은 수확을 얻으셨다.



## 소풍

김은영 / 온정국교

오늘은 구름 한점 없는 파아란 날씨였다.

“은영아, 오늘 할미랑 산에 갈래?” 심심하던 침에 “예, 저도 갈래요”.

할머니께서는 자루에다 도시락도 넣고 자루를 들려 메셨다. 할미랑 산에 같이 간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할머니께서는 ‘소풍가는 것 같지’ 하고 물어오셨다. ‘네, 정말 소풍가는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는 도토리를 따셨다. 그래서 나도 같이 도와드렸다. 할머니는 집에서 힘드신 농사일도 하셔서 손마디가 거칠거칠하셨다. 나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할머니 제가 이다음에 커서 호강시켜 드릴께요.”

우리 할머니는 그래도 얼굴이 고우시다.

다리가 아파서 쉬었다. 할머니 자루를 보니 도토리와 내가 전혀 보지 못하던 버섯도 있었다. 산들은 서로 어깨를 나란히 사이좋게 있고 특히 단풍잎과 어울려 있어 나는 더욱더 산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이 아름다운 산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산울림이 되어 나를 유혹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잠자리 한 마리가 할머니 머리위에 사뿐히 내려 앉았다. 나는 잠자리를 잡으려고 가만가만히 가서 잡으려던 순간 잠자리가 날아갔다.

“할머니 할머니 때문에 날아가 버렸잖아요?  
모처럼 할미랑 소풍와서 잡으려고 그랬는데….”

“은영아, 저 날아가는 잠자리 좀 보아라.  
얼마나 좋다고 날아가니. 네가 만약 저 잠자리였다면, 만약 인간들 손에 잡혀 날아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니?”

너무 부끄러워 볼이 빨간 홍시같았다. 나는 나를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할머니가 좋다.

할머니께서는 계모임이 있을 때면 내 자랑을 가끔씩 하신다. 집에 돌아오니까 하늘엔 빨간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우리 손녀딸이 딴 도토리로 묵 좀 해먹자. 정말 맛있겠구나! 나는 이 보답으로 돌아오는 5월 8일 날 하얀 고무신을 사다 드려야지 할머니께서도 좋아하실거야. 우리 할머니처럼 양심이 바르고 고우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텐데… 아마 할머니께서 내일 돌아가신다 하여도 천당에 가실 수 있을 거다.

꽃들이 만발하고 천사들이 있는 그런 곳 말이다.

할머니와 소풍은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었다. ‘은영아, 이것을 너의 추억으로 가슴속깊이 새겨둬야 해 알겠지?’ 내 자신과 새끼 손가락을 결고 약속했다.

“꼭 기억해야지” 그리고 단풍잎도 책갈피에다 꽂아두었다. 그러면 더 오래 생각나겠지….



# 경로효친 수기공모 입상작

## 마음으로 부터의 공경

송윤재 / 속초고

우리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젊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을 살아가며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 해서도 안되며 부인해서도 안된다.

지금 우리들의 생각속에서 멀시 아닌 멀시를 당하는 노인들도 한때는 아름다운 젊은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며, 이 글을 읽으며 웃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의 씨앗이 조금이라도 싹트기를 바라는 것이다.

여름방학 보충수업을 받는 어느날이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가기 위해 차를 탔다. 자리에 앉으려고 둘러보니 딱 한자리가 남아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앉기 전에 열른 가서 앉았다. 거의 학교에 도착할 무렵 할머니 한 분이 타셨다.

나는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으나 ‘문득 조금만 더 가면 내리는데……’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할머니는 자리가 없나 둘러 보시더니 그냥 차 문턱에 걸터 앉으셨다. 나는 그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얼굴을 창쪽으로 돌렸다.

그때, 그 할머니보다 약간 연세가 낫아보이시는 할머니께서 그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시는 것이었다.

순간,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죄책감의 바위가 나를 내리누르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이런 일을 해 놓고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노인들을 공경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도

조금만 더 살면 변함없이 노인이 될텐데 내가 지금 노인에게 정을 베풀어주지 않는다면 먼훗날에 나도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났다. 나는 죄책감에서 자리를 양보하신 할머니에게, “할머니, 허리가 아프실 텐데 이 자리에 앉으세요. 저는 조금만 더가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께서 “아유! 고마워요. 학생”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과연 내가 이 할머니에게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마음이 숙연해짐을 느꼈다.

다음은 어느 사파장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이다. 땅거미가 질 무렵 할머니댁에 심부름을 가기 위하여 차를 탔다. 차 안에는 할머니 한 분이 안내양 누나에게 쩔쩔매며 사정을 하고 있었다.

“이봐요, 아가씨! 내가 실수로 경로우대증을 안 가지고 왔어요. 마침 가진 돈도 떨어지고 했으니 이 사파로 대신하면 안될까요?”하고 사정을 하였다.

그러자, 안내양은 신경질을 내며, “안돼요. 할머니! 돈으로 내세요”하고 막무가내로 말을 하였다. 그 할머니는 다른 사람이 보아도 분명 경로우대증이 나왔을 할머니였다. 그런데, 안내양은 그것을 알면서도 경로우대증이 없다는 사실 하나로 그 얼마 안되는 차비를 할머니에게 받아내려고 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진짜 그 차비가 아까와서 받아내려고 했던 것일까? 나는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안내양에게로 가서, “누나 이 할머니 차비 여기 있어요”하고 내밀었다. 이 누나도 약간은 미안했는지 돈을 받더니 슬그머니 가버렸다. 그 할머니께서 나에게 “학생, 정말 고마워요. 내가 출전 없고 이 사파라도 좀 먹어야요”하고 말했다. 나는 팬찮다고 사양했으나 할머니께서는 학생이 나에게 베풀어 준 성의에 보답하는 뜻에서 주는 것이니 받으라고 했다.

나는 차에서 내려 그 할머니께서 주신 사파를 쳐다 보았다. 그 사파는 할머니의 마음처

럼 햇볕을 받아 보다 빨갛고 청순하게 빛나고 있었다. 문득 창문을 쳐다보니 밖에는 황혼이 지고 있다.

저 황혼속에는 태양이 한나절에 불태운 열기는 보이지 않는다. 그저 사라져가는 태양의 힘없는 모습을 보일 뿐이다.

하지만 바로 그 태양은 몇 시간전 우리로 하여금 한증실과 같은 뜨거움을 주었다. 저 저기는 태양을 보며 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한다.

차츰 꺼져가는 이분들에게 더 해줄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언제나 우리들의 노인들이 오래전에 이루었던 것을 생각하며 지금 나약해진 그들을 우리는 감싸주어야 하겠다.

### 우리는 한핏줄

정현숙 / 설악여중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님을 아십니까?

자신의 부모님은 물론 다 알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잘 모를 것이다. 심지어 나는 할아버지 성함조차 모르고 있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손녀인가! 남의 사생 활에 이렇다 저렇다 간섭할 내가 아니다. 내 자신의 생활부터 수정해야 될 것 같다.

작년 이맘 때의 일이다. 친구집에 놀러가게 되었다. 집이 교동 부근이라서 시내에 나오려면 버스를 타야 했다. 한참 기다리다 보니 나 이든 할아버지께서도 차를 기다리시는지 우리 옆에 서 계셨다.

“학생들, 어디 가는 버스 타나”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동명동 가는 버스 타요” 우리가 대답했다. “그럼 나랑 같은 버스타도 되겠네” 하시며 우리를 보셨다.

잠시 후 버스 한 대가 우리 곁에 오는듯 하더니 그냥 지나갔다. 운전기사가 뻔히 우리를 봤는데도 말이다. 나는 영문을 몰라 고개를갸웃거렸다. 또 버스 하나가 오는 것 같더니 역시 흑 지나갔다. 겉은 연기를 뿐으면서……

“왜 버스가 그냥 지나가지” 내가 친구에게 물어 보았다. “잘 모르겠어” 그때 할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노인네들은 65세가 지나면 시내버스 무료권이 있으니까, 태우기 싫어서 그냥 가는 거야” 하시며 서운한 표정을 지으셨다.

곧 뒤에서 버스가 멈춰 그것을 타고 도착지까지 갔다. 집에 와서 오늘 있었던 그 일을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노인 한 분 차비 120원 밖에 되지 않는다. 그 돈 120원 때문에 이렇게 우리 사회가 영락 없이 비참해질 수 있는가 하고 말이다. 돈이 무엇이기에 과연 서로들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줄 모르겠다.

이건 순전히 성의 문제다. 우리는 모두가 단군의 한 자손이다. 좀 더 깊고 깊이 파고 듣다면 너와 나. 이런 사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다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부모님, 할아버지 아니 친척이 될지도 모르는 그분에게 우리는 오늘 몹쓸 짓을 한 것이다. 그리고선 후세들이 잘 반들어 주기를 바라는가? 아무리 오늘날 첨단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변모되면서 인심이 각박해졌다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나무둥지에서 사는 가족을 쳐버릴 수는 없다.

어느덧 내 자신을 다시한번 들이켜본다.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 인사도 안하고 그냥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닌다. 내가 과연 이 시대를 사는 내일의 역군이라 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다. 부모의 과잉 보호와 부로서 자란 우리들은 어른을 너무 공경할 줄 모른다. 돈이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된다고 믿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시부모님 모시기 싫어 생활비만 겨우 보내 주는 요새 세대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더우기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적적하실 것인가?

우리 고사성어에 ‘양상군자’라는 말이 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에게 하는 말이다. 그런데, 정말 양상군자야 말로 혈족을 모르고 망둥이처럼 뛰는 자, 뿌리를 모르는 자들이 이 말을 들을 사람들이 아닌가 싶다.

난 지금 이 다음에 일을 생각해 본다. ‘ 만약 시집가서 시부모님 모시게 되면 잘 모실거야. 말이 아닌 실천으로서’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잘 모시겠다.

조상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후손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나를 생각하기에 앞서 타인을 조금 더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성립 되는 것은 우리 개인생활 하나 하나가 묶어지고 결합해서 되는게 아닌가 싶다. ‘나를 먼 곳에서 살펴주신 부모님’이라고만 생각하더라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다 바뀌어도 우리 핏줄 아니 뿌리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정녕 변해선 안될것 같다.

‘우리의 뿌리를 찾자. 뿌리를 찾자’ 언니 오빠들이 힘차게 외쳤다.

나는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가슴 뿌듯했었던가? “아직도 이 사회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구나! 이 사회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구나!” 하는 안도의 숨을 작게 나마 쉬게 되었다. 나의 작은 가슴 빈 곳을 꼭 메워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도 이 찬란한 등불을 영원한 등불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조상을 알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뿌리깊게 심겠다.

##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사세요

염지수 / 청호국교

나는 할머니를 무척 좋아합니다. 할머니가 옆에 계시면 좋고, 할머니가 손으로 내 머리를

슬슬 만져주시기라도 하면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이제는 환갑도 지나고 칠순이 넘으신 할머니, 나는 할머니께서 오래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내 곁에 계시는 것이 소원입니다. 내게 있어 할머니는 엄마와 같은 분입니다. 나는 아빠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내가 유치원때 그렇게도 나를 사랑해주시던 아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고 할머니, 엄마, 언니, 오빠들과 살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안계셔 약간은 쓸쓸했지만 오손도손 정답게 사는 우리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엄마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부상은 심하여 반년 이상을 병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후 엄마는 조그마한 식당을 하시면서 집안살림을 꾸려 가셨습니다. 피곤한 모습 한번 보이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 형제들이 열심히 공부하기만을 바라며 일을 하셨지요. 그런 엄마가 사고를 당해 누워 계시니 자연 집안살림은 어려워지고 나의 기분은 늘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께서는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들에게 새벽밥을 지어주시고 학용품비와 식품비를 위하여 오징어 손질을 하시는가 하면 묵어리를 가져다 우리들 몰래 하시곤 했습니다. 처음엔 할머니께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하루는 일찌감치 학교에서 돌아와보니 할머니께서 묵어리를 찢으시다가 깜빡 잠이 드셨는지 방 한쪽에 누워 계셨습니다. 피곤하신지 한참을 곤히 주무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가 계시고 엄마만 건강하시다면 할머니께서 이런 고생을 안하셔도 될텐데…….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남은 묵어리를 찢었습니다. 얼마후 깨어나신 할머니께서는 겹연쩍은 얼굴로, “낮에 너희들이 모두 학교에 가고 나면 혼자 심심해서 하는 거란다” 하시며 쑥스러워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할머니 품에 안기며 엉엉

## 경로효친수기공모 입상작

울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런 나를 안아 주시며 “에그, 불쌍한 것 철도 들기전에 애비를 잃더니 에미마저 저러구 있으니……. 대신 이 할미가 애비, 에미 끝까지 너를 사랑해 주마” 하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할머니는 나의 등을 토닥여주시며 자장가도 불러 주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할머니의 손은 거칠어져갔습니다.

“할머니, 오징어 손질 하지마세요. 제가 할께요” “얘야, 괜찮다. 어린 너까지 집안 걱정 할 필요없다. 이 할미 아직 힘이 좋단다. 우리 손주 학용품 사준다고 생각하면 힘이 몇 배나 더 생기는 걸. 이제 네 에미도 퇴원을 할테고 그러면 우리 집도 좋아질테니 넌 그저 건강히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하시며 더욱 열심히 오징어 손질을 하셨습니다. 나 또한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옆에 앉아 오징어 손질을 도왔습니다.

봄, 여름이 가고 가을에 접어들자 엄마는 퇴원하 하셨습니다. 그런데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여 비록 퇴원은 하였으나 환자나 마찬 가지였습니다. 엄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뭐라도 해 보실려고 했지만 척추를 다치셨으니 자유로이 움직이질 못해 번번히 눈물과 한숨을 지으시며 주저앉곤 하셨습니다. 그러니 할머니의 고생은 계속 되었습니다.

새벽밥을 짓고 빨래 청소를 하시며 오징어 손질도 계속 하셨습니다. 힘이 드시니 저녁만 드시면 그 좋아하시는 텔레비전 연속극도 못보시고 주무셨습니다.

할머니 얼굴엔 주름살이 더욱 늘고 몇 달 사이

훨씬 늙어지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저녁마다 할머니의 팔, 다리를 주물러드리고 안마도 해드렸습니다. 또 텔레비전 연속극도 봐 두었다가 얘기해 드리고 가끔씩 밥도 해드렸습니다. 그럴때면 할머니께서는 “우리 막내 손녀가 이젠 다 컸구나. 밥도 다 할줄 알고” 하시며 맛있게 드셨습니다. 즐거워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 나 또한 즐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오래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제가 요 얼른 자라서 할머니 좋아하는 것 많이 사드리고 구경도 많이 시켜 드릴께요.”

“고맙다. 말만 들어도. 그래 빨리 자라서 훌륭한 사람되거라. 그래서 네 에미 호강시켜 드리렴.”

이젠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의 병은 완쾌되지 않고 할머니의 오징어 손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우리 할머니께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할머니께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많이 많이 사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우리 할머니의 손에 오징어가 쥐어지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매일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 우리 엄마의 병을 빨리 낫게 해주시고, 더 이상 우리 할머니가 고생을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저도 더욱 착한 어린이가 될께요’

이 시간에도 오징어 손질에 한창이실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 東草文化院 이사명단

### 속초문화원 임원

직 책	성 명	직 위	주 소	전 화
원 장	鄭鍾勳	전 은정국민학교장	청학동 482-37	32-9492
부 원 장	咸泳泰	현대슈퍼 대표	금호동 473-46	33-3456
이 사	李虎舜	전 고등학교장	동명동 514-12	33-3034
	沈丙燮	전 속초시 민방위과장	동명동 559-2	33-3186
	高榮和	영동철물 대표	영랑동 5/3	33-5374
	安國俊	한남도민회장	금호동 1/4	33-3687
	鄭仁燮	우리 페인트 대표	금호동 479-11 1/3	33-2909
	崔敬順	황금상회 대표	중앙동 496-55 7/4	33-3668
	崔龍文	국제방역공사 대표	동명동 250	33-3233
감 사	李光春	평통자문위원	교동 627-50	33-3920
	池一權	전 한국일보 기자	중앙동 469-15	33-5100
사무국장	崔在都	劇作家	중앙동 12/3	33-1354

### 속초문화원 연혁

- 1965. 3. 22 문화공보부 장관 설립허가 사단법인 속초문화원  
법인등기 제 2호 (설립자 원장 韓淳榮)
- 1970. 4. 30 제 1차 임시총회 개최 임원개선 원장 馬長乾
- 1974. 3. 27 정기총회 개최 임원개선 원장 張憲榮
- 1975. 12. 2 문화원청사신축기공
- 1976. 2. 30 문화원청사준공
- 1976. 12. 1 문화원청사 東草市에 寄附採納
- 1982. 3. 9 총회개최 임원개선 원장 金鍾祿 (법인등기변경신고)
- 1984. 3. 20 총회개최 임원개선 원장 金鍾祿 재선
- 1986. 7. 24 86년 임시총회 개최 임원개선 원장 金容龜
- 1986. 10. 21 문화공보부장관 허가 및 定款承認
- 1986. 12. 13 법인등기 변경신고
- 1987. 9. 25 87년 임시 총회 개최. 임원개선 원장 鄭鍾勳

## 東草文化院 회원명단

성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尹 弘 烈	문인협회지부장 · 소설가	교동 10/3	33-1155
李 相 國	시인 (설악문우회)	교동아파트 2동 508호	32-8586
李 聖 善	시인 (물소리 시낭송회)	동명동 513-54	33-3743
崔 在 都	희곡작가	중앙동 12/3	33-1354
朱 廣 河	소설가 · 외항선원	동명동 427번지	32-6283
辛 沂 夏	연극협회지부장	금호동 16/3	33-4300
장 규 호	청봉극회	중앙동 11/2	33-5013
최 신 영	청봉극회	금호동 8/3	33-3707
고 준 규	청봉극회	설악동 지구 5동	34-7533
朴 長 健	극단 "태"	청학동 6/4	33-3057
김 영 복	미술협회지부장	금호동 16/3	33-4180
金 光 秀	미협고문(중앙미술학원장)	청학동 중앙미술학원	32-8022
崔 虎 圭	미협고문 · 교사	중앙동 500-6 11/2	33-4044
張 世 煥	전 미협지부장	중앙동 468-65 백경사	32-1278
鄭 元 澈	영동서예학원장	교동 780-169 10/6	32-4909
金 秀 鐵	서예가	중앙동 3/5	33-2282
嚴 柱 天	서예가	중앙동 473-25	33-3066
池 應 進	설악서예학원장	교동력비아파트6동 506	32-8217
金 珠 鎮	서예가	금호동 4/1	33-1234
金 榮 凰	목공예 · 태백공예사	영랑동 태백공예	33-5664
강 철 환	목공예	도문동	34-7236
崔 春 永	속초사진동우회 · 속초시청	교동 6/1	33-5515
金 正 日	청봉사진동우회 · 신우사	중앙동 475-24	32-8028
崔 洛 眇	청봉사진동우회	설악동 주택 83/3	34-7019
李 來 鉉	청봉사진동우회 · 상업은행	조양동 우성연립 101호	32-6564
全 泰 極	청봉사진동우회 · 대포횟집	대포동 4/3	33-4424
嚴 湘 彬	청봉사진동우회 · 속초상고	금호동 14/7	33-1919
양 숙 희	한국무용가 · 속초무용학원장	금호동 1/6	33-3913
이 진 우	성악가 동우전문대 교수	노학동	32-6552
裴 基 雄	성보건축사 대표	동명동 253-6	33-5397
朴 益 勳	전국교장 · 노인학교장	교동 6/5	33-5468
林 德 淜	동우전문대교수	교동 767-133호	32-8032
崔 琳 圭	"	노학동 산 244	32-6551
李 鍾 旭	양양향교 총무	조양동 8/1	32-6531
朴 淳 午	양양향교	노학동 2/1	32-2895
金 在 變	영탕약국	영랑동 137-6/3	33-2416
尹 鍾 九	현대약국 새마을운동속초지회장	동명동 466-58	33-2533
崔 茂 一	제일약국 속초라이온스클럽회장	동명동 450-118	33-3844
朴 昌 緒	변호사	동명동 450-50	33-2689

## 東草文化院 회원명단

성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李虎舜	전 고교장	동명동 514-12	33-3034
鄭鍾勳	전 국교장	청학동 482-37	32-9492
吳濟政	교동국민학교장	노학동 620	32-0925
尹東萬	영랑국민학교장	영랑동 163-1	32-6212
崔五圭	중앙국민학교장	영랑동 11/4	33-1608
李沅宰	동우전문대교수	노학동 244	32-6551
金正祐	전 기자·농업	장사동 2/4	
池一權	전 한국일보 기자	중앙동 469-15	33-5100
董文星	전 조선일보기자 (유암문화재단)	동명동 450-22 4/4	33-3721
崔龍文	전 서울신문기자 (국제방역공사)	동명동 250	33-3233
黃善勇	속초감리교회 목사	동명동 338	33-2534
金兌泳	척산온천장·평통위원	조양동 923	33-3620
金享東	설악케이블카 대표	동명동 253-3 5/5	33-3576
李章燮	(주) 정아레저타운 상무	장사동 24-2	32-7711
李成哲	(주) 새강원관광 대표	금호동 11/4	32-6943
安國俊	정치망협회	금호동 1/4	33-3687
徐東石	항운노조	교동 769-22	33-5300
金鵬海	문화인쇄소 대표	동명동 450-39	33-2021
강수길	관동인쇄소·양양유도회원	교동 664-76	33-2384
李源益	제일극장대표·상공회의소장	중앙동 468-27	33-2462
咸泳泰	전 전국극장연합회지부장·현대슈퍼	금호동 473-46	33-3456
金致龍	유일택시	금호동 16/2	33-3847
李起榮	삼원전업사	동명동 450-181	33-2130
韓高本	농업	장사동 1/2	33-3780
高榮和	영동철물대표	영랑동 5/3	33-5374
鄭仁燮	우리페인트	금호동 479-11 1/3	33-2909
崔敬順	황금상회	중앙동 496-55 7/4	33-3668
尹有根	설악가방	중앙동 6/6	33-4882
金裕子	정화숯불갈비	대포동 산 34-1	33-4539
沈丙燮	전 속초시 사회과장	동명동 569-2	33-3186
李光春	평통위원	교동 627-50 14/4	33-3920
崔相圭	속초시 경우회장	동명동 7/1	33-3593
金容龜	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동명동 513-52	33-3368
金奭俊	전 문화원 사무국장	조양동 5/1 221호	32-9613
李建錫	지방행정동우회장	동명동 469-36	33-3987
文龍翼	농지개량조합장	동명동 450-300	33-3589
金普漢	일복문화관장	조양동 1398-6	33-4042
여석창	전 동장	청호동 587	33-4184
崔泓舜	전 동장	동명동 469-33	33-3671
姜龍祥	전 공무원	중앙동 5통 3반	33-3068

## 東草文化院 회원명단

성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李蘭植	전동장	조양동 6통 1반	32-1210
李榮一	시민서점 대표	금호동 479-26	32-3751
全秀吉	반도패션 속초지점 대표	동명동 427번지	33-6349
元有右	물치정유소 대표	대포동 236-12번지	32-6855
李文杓	전업사 대표	청학동 4통 2반	33-3883
金享鎮	평화양행 대표	중앙동 476의 83	33-4441
金喆燮	제일라사 대표	중앙동 468-144 1/5	33-2292
黃炳瓊	상업	중앙동 473-112	33-2136
金清浩	동아횟집 대표	중앙동 1통 1반	33-5407
김영파	로타리클럽 회원	장사동 624-7	33-5090

## 편집후기

- …실향의 아픔과 분단의 비극을 온몸으로 겪으며 한평생을 부대껴 온 청호동 사람들의 진술한 삶의 형태를 특집으로 엮어내려 했으나, 무산된 것이 무엇 보다 아쉽다. 자료를 보내주신 분들이나 취재에 응해주신 분들께 송구스럽기 이를 데 없다. 특집의 일환으로 준비했던 우리 고장 시인들의 청호동 노래만 小詩集 형태로 담는다.
- …‘내고향 사람들’, ‘논단’ 등 비중있는 기사들이 빠져 더욱 불편하게 되었기에 책을 내기가 두렵기까지 하다. 다음 호엔 알찬 내용만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
- …책 발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유암문화재단·한진상사·설악케이블카·정아레저타운 등과 寄稿者 들께 더없는 고마움을 느낀다.

### 편집위원

주간 : 池 一 權  
위원 : 朴 益 勳  
          李 建 錫  
          高 榮 和  
          金 光 秀  
          崔 龍 文  
간사 : 최 재 도

### 束草文化 第4號

〈비매품〉

1988. 3. 10 인쇄

1988. 4. 1 발행

발행인 : 鄭 鍾 勳

발행처 : 束 草 文 化 院

인쇄처 : 江原日報社 出版局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금을 받아  
발행되었습니다〉



雪嶽山 케이블카



## 雪嶽觀光株式會社

會長 韓丙起  
代表理事長 金亨東

商號：雪嶽觀光(株) 케이블카

本社：江原道 束草市 雪嶽洞 170番地

電話：34-7362, 7365

支社：서울市 江南區 新沙洞 577의 5 영도빌딩 403호

電話：548-1829



會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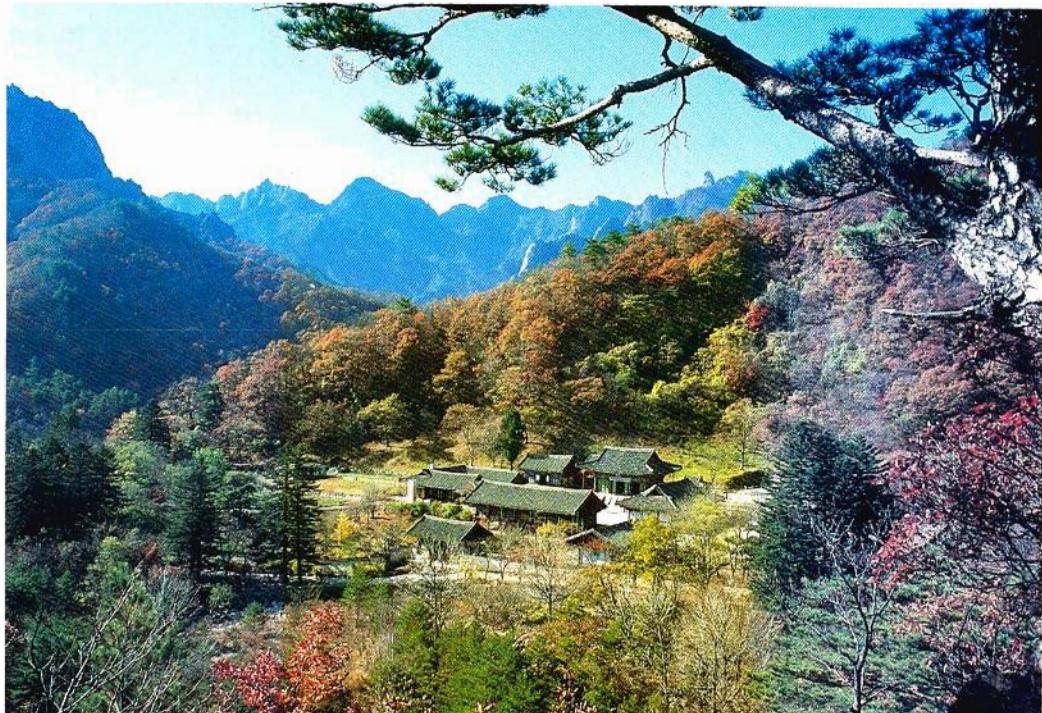


代表理事 社長

大韓佛教曹溪宗 第三教區 本寺

# 雪嶽山神興寺

주지 金慧法 스님 (法學博士)



神

興寺는 新羅 眞德女王 6 年  
(652) 慈藏律師께서 創建  
하여 香城寺라 이름하였

다. 그 후 화재로 소실된 것을 조  
선 인조22年 (1644)에 灵瑞,  
惠元, 莲玉 세 스님이 중건하여 神  
興寺라 개명하였다.

神興寺에는 創建 당시 주조한 대  
종과 조선 순조께서 하사하신 청동  
시루, 극락보전 (指定文化財14號),  
경판 (指定文化財 15號), 보제루 (지정문



화재 104호) 및 香城寺址 三層石  
塔 (寶物 第443號)이 보  
존되어 있다.

강원도지방유형문화재 제14호 신흥  
사 극락보전 강원도지방유형문화재  
제15호 신흥사 경판 강원도지방유형  
문화재 제104호 신흥사 보제루 지정  
문화재이외의 문화재 제11호 신흥사(계  
조암·내원암·안양암·부도 포함) 동산문  
화재등록 : 신흥사 아미타 3 존좌상외 9 점